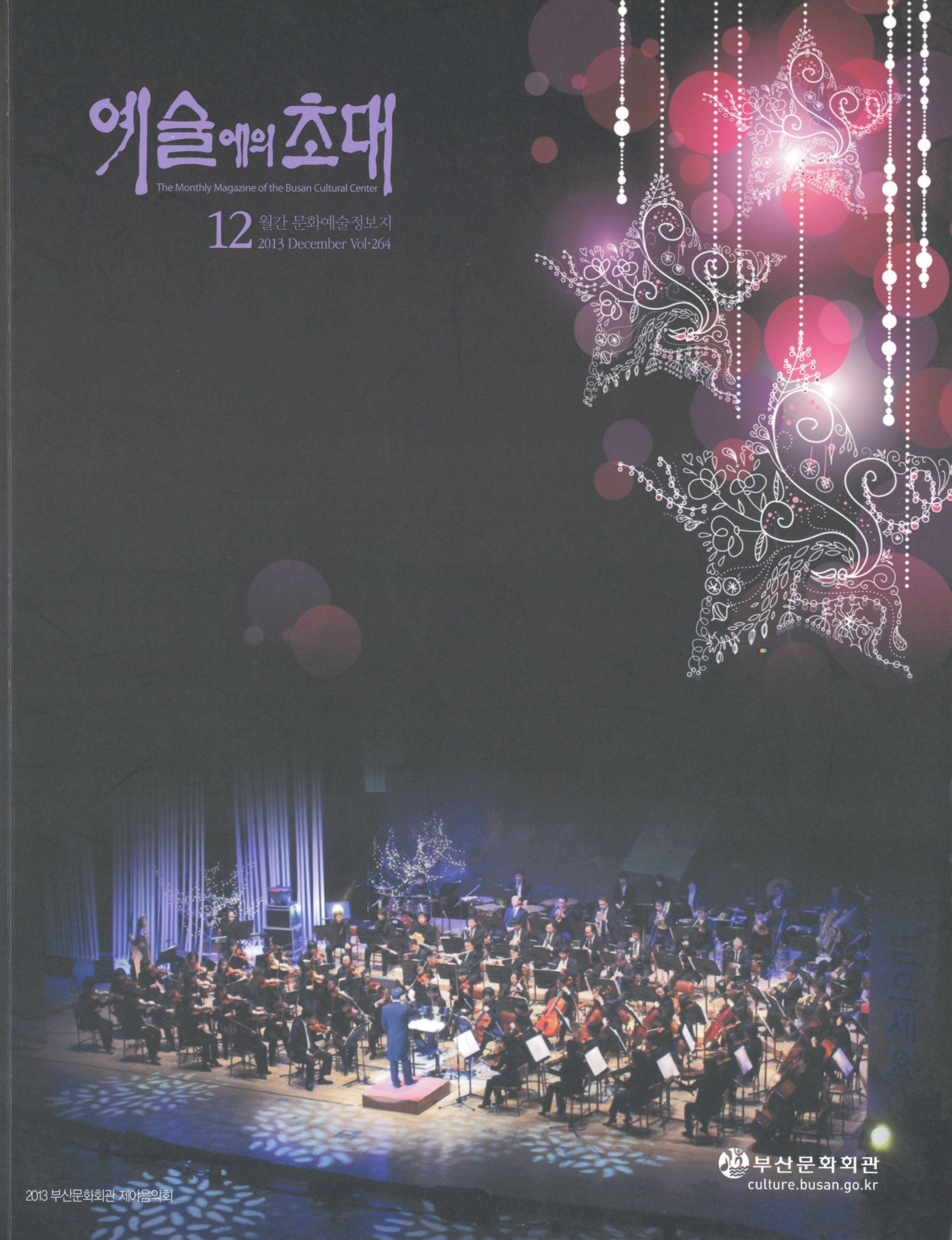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2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December Vol·264



2013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시립교향악단

Happy New Year

부 산 시 립 교 향 악 단　제 4 9 6 회　정 기 연 주 회

2014 신년음악회

2014. 1. 10 금　오후 7시 30분　_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_ 김덕기

■소프라노 _ 이화영

■테너 _ 김영환

주 최 부산광역시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문 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셔틀버스(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DYNAMIC BUSAN NEW YEAR'S CONCERT

Dynamic BUSAN 신년음악회

오충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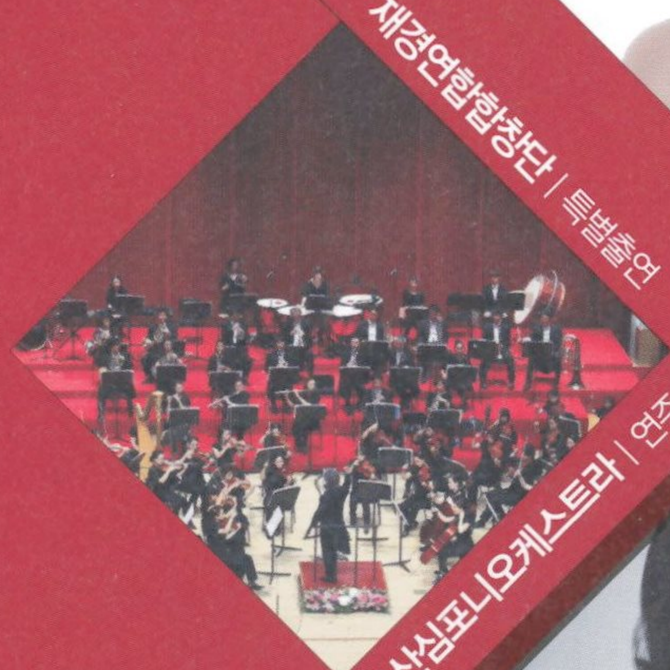
Oh Choong Keun & Busan Symphony Orchestra

오충근 | 지휘

슈트라우스 R.Strauss 교향시 '돈 후안' 작품20 Symphonic Poem 'Don Juan' Op.20

왁스만 F.Waxman 카르멘 환상곡 'Carmen' Fantasy

도니제티 G.Donizetti 오페라 '루치아' 중 〈깊은 침묵은 밤을 덮는다〉 아 수 곡 <Regnava nel silenzio> from Opera 'Lucia di Lammermoor'



재경연합합창단 | 특별출연

박은주 | 소프라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연주

김재원 | 바이올린

부산 클래식의 아이콘 오충근과 BSO!
한국 민간오케스트라의 센세이션!!
서울에 울려 퍼지다!!!

2014. 1. 26(SUN) PM 7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 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부산상공회의소 · 부산시 중·고 재경동창회 협의회 · Oh Choong keun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주 관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ARTS & ARTISTS ARTISTS MANAGEMENT + A&R PRODUCTION

후 원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일보사 · 국제신문 · KBS 부산방송총국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 부산 MBC

문 의 부산_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051-621-4577 www.bso21.com 서울_아트앤아티스트 070-8879-8485 www.artsnartists.com

티 켓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 A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예 매 SAC Ticket 02-580-1300 www.sacticket.co.kr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ticket.interpark.com

해피한 금요일의 휴식같은 만남

Happy Concert 2013

김혜진 바이올린 리사이틀

KIM HYE JIN

Violin Recital

2012년 부산 신인 음악회
최우수 연주자 특별기획공연

A. Dvořák

H. Wieniawski

L. v. Beethoven

Piano 표세구

2013. 12.6(금) 저녁 8시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공연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T. 051.220.5805 / 010.4568.3370

입장료 | 무료(초대)

The 27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Violinist Kim Da Mi

Boston의 감동

Program

백승태 을숙도

J.Sibelius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47

Tchaikovsky The Nutcracker Op.71 (호두까기인형)

예술감독 | **김원명**

지 휘 자 | **이효상**

연주 | **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2013. 12.26(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사)한국음악협회부산광역시지회, T.I.F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롯데마트사하점, 부산원음방송, 팝부산, 홈플러스장림점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금액 | 2천원 문의 | 051-220-5812

무대감독 | **전광수** 음향감독 | **이광섭** 조명감독 | **오종영**

문화로 꽃이 피었습니다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을숙도명품콘서트는 〈2013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Sun&Fun Haeundae

인문학 도시 해운대와 사회적 자본 증진

해운대문화회관 12월의 문화선물

주최 · 주관 Sun&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예매처 인터파크 BS 부산은행 전지점

Sun&Fun Haeundae

문의 051)749-7651

CONTENTS

2013 December Vol·264 culture.busan.go.kr

08 **커버스토리** | 2013 제야음악회

10 **프리뷰**

16 **반갑습니다** | 부산박물관 신임관장 박방룡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같은 듯 다른 중국의 새해 _허정애

22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㉔** |
괴테와 글룩의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3)_이동신

24 **불멸의 거장 – 바그너 ⑦** | 바그너의 작곡기법과 악기_ 임채흥

26 **그림, 풍류를 만나다 ㉞** |
자고로 말조심을 하라 했거늘… 신언인도(愼言人圖) _ 변광석

28 **그곳에 가면** | 감만창의문화촌

30 **우리는 문화가족** |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32 **리뷰** | 가거라!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를 타고_하순봉
'꽃보다 할배', 세대간 소통의 상징_남인용

34 **테마가 있는 여행** | 선비들의 기상 넘치는 청정골 산청

37 Culture Life

62 **생각그림** | 남심(男心)_ 하인상

63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64 **부산문화회관 소식**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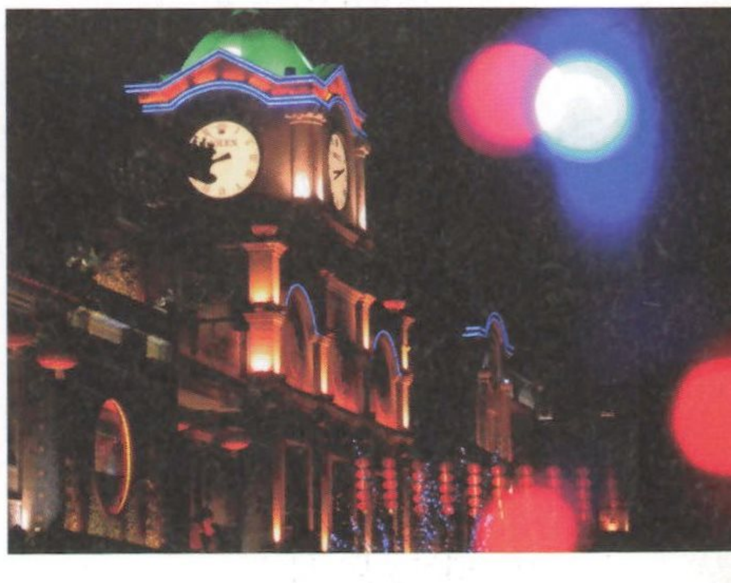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12월호 통권 264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발행인 | 박성택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3년 11월 25일

인쇄처 | (주)대주애드 Tel. 051)803-6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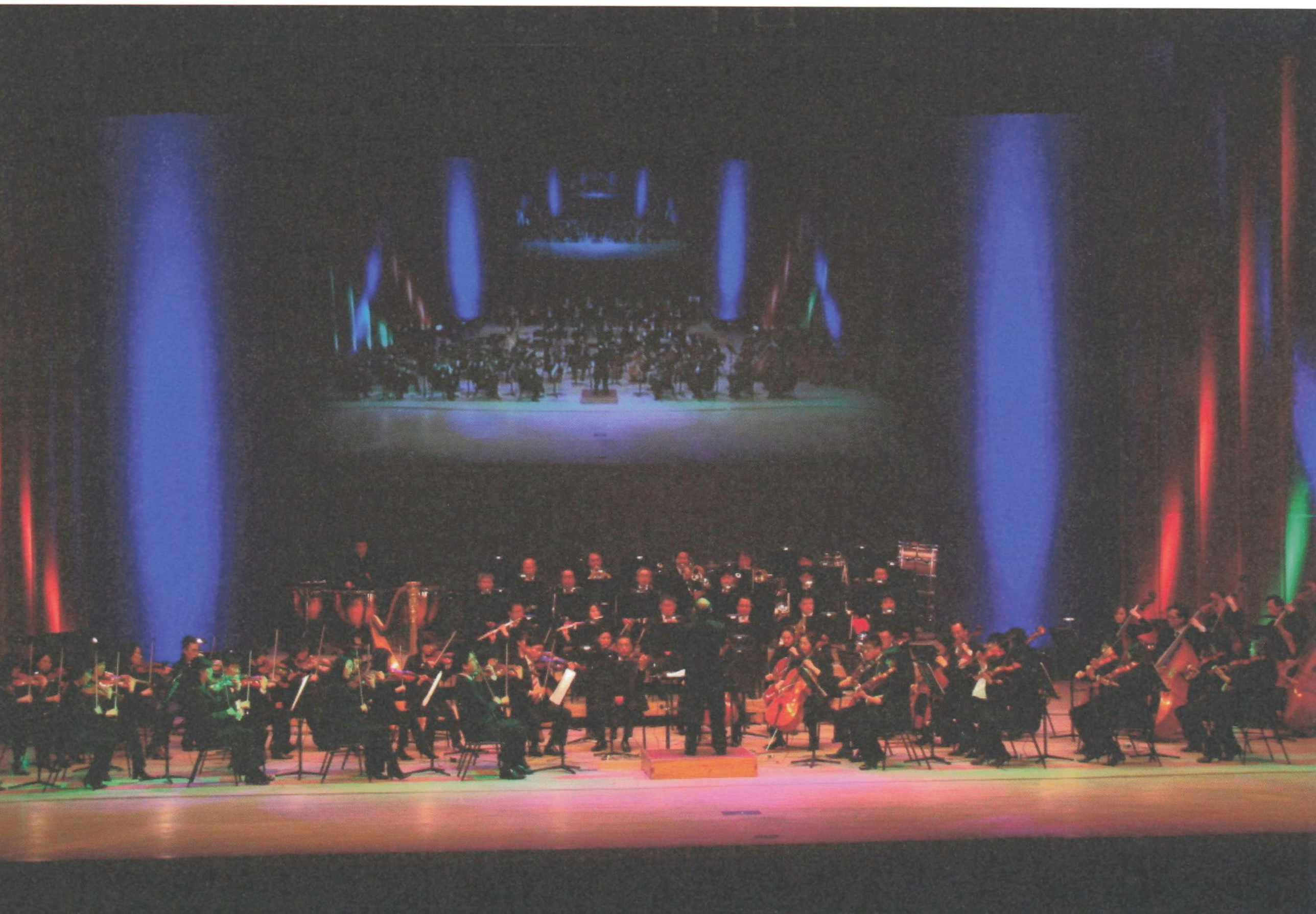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3 제야음악회

· 지휘/이동신
· 소프라노/김은주
· 테너/이현
· 발레/이영진, 이원국
· 바이올린/김현아
· 사회/지성훈
· 로비콘서트/부산시향 금관5중주 & 현악4중주

음악과 함께 한해를 마감하고 특별한 새해의 희망을 그려보기 위한 부산문화회관의 특별한 음악선물 2013 제야음악회가 12월 31일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연장에서 한해를 보내며 고마움과 아쉬움을 달래고 새해를 맞는 설렘을 담은 특별한 이벤트로 매년 매진을 기록하며 인기를 모아왔다.

올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이동신 부지휘자의 지휘로 1부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소프라노와 테너의 감미로운 이중창과 아름답고 서정적인 발레와 함께 가는 해의 아쉬움을, 2부에서는 밝고 경쾌한 축전 선율과 열정적인 바이올린 음색으로 오는 해의 희망을 노래한다. 1부 무대를 위해 대구 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은주와 테너 이현, 바이올리니트스 김

현아, 발레리노 이원국, 발레리나 이영진이 감성 충만한 제야 무대를 장식한다.

소프라노 김은주는 이탈리아 국제콩쿠르 Maria Caniglia 우승과 동시에 대중이 직접 선발한 최고 가수상과 Citta' di Colleferro 콩쿠르 1위, Citta' di Alcamo 콩쿠르 1위, Franco Corelli 콩쿠르 1위로 우승하면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베냐미노 질리, 라우리 볼피, 비오티 국제 성악 콩쿠르에 우승한 테너 이현은 한국인 최초 일본 Japan Arts 소속 메이저 아티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현재 영남대학교 사이버 감성 연구소 오페라 감성연구 센터장, 영남대학교 성악과 교수, 천마아트센터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 콘서트 리뷰로부터 "정교하고 화려한 테크닉, 맑고 영롱한 소리, 깊고 넓은 음역, 열정적이면서도 담백한 연주 스타일, 바이올리니스트로 최상의 기량과 미덕을 갖춘 연주자" 라는 찬사를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아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오디션 우승, 필라델피아 챔버 오케스트라 오디션 우승 등 세계적 무대에서 상위 입상, 우승함으로써 탄탄한 실력과 탁월한 기량 그리고 풍부한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세종솔로이스츠의 창단 멤버로 활약하기도 한 김현아는 미국 뉴욕 Summit Music Festival에서 초청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국립발레단 지도위원을 역임한 부산출신의 발레리노 이원국은 발레리나 이영진과 함께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중 '왈츠' '파드뢰'와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그랑파드되'로 감미롭고 화려한 음악과 어우러지는 최고의 앙상블을 선사한다.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로비콘서트에서는 와인, 다과와 함께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와 현악4중주 앙상블과 함께 하는 품격 높은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2014년 자신에게 쓰는 소망 엽서 등 다양한 이벤트로 2013년을 마무리 한다. 제야음악회에서 작성한 소망엽서는 한해의 다짐과 바람을 되돌아보고 2013년 제야음악회의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2014년 12월 작성자에게 우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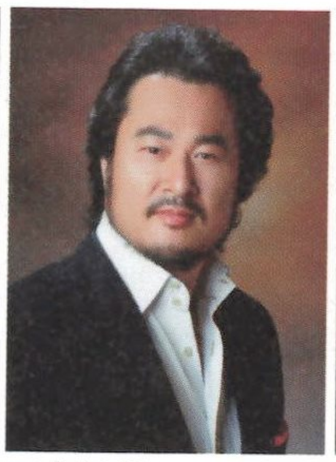
제야음악회의 하이라이트는 로비콘서트에 이어 진행되는 2부 무대. 스코틀랜드 민요 '그리운 옛날(석별의 정)'에 이어 용두산 공원에서 진행되는 제야의 종 타종식을 이원 중계하고 극장에 모인 모든 청중들과 함께 새해 카운트다운을 함께 하면서 벅찬 새해를 맞이한다. 올해는 2014년 새해 시작과 함께 조국과 그 자연에의 사랑을 노래한 경쾌하고 즐거운 분위기의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이 울려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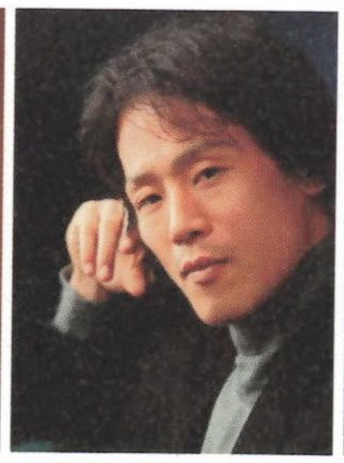
마지막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아가 협연하는 사라사테 '찌고이네르바이젠', 가르델 영화 '여인의 향기' 중 '탱고(간발의 차)'로 신년의 환희를 선사한다.

일 시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0: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S석 2만원·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지휘 이동신

■ 소프라노 김은주


■ 테너 이현


■ 발레 이원국

■ 발레 이영진

■ 바이올린 김현아

■ 사회 지성훈

시네뮤지컬 '친구'

뜨거운 부산 사나이들의 우정과 추억, 사랑을 담은 시네뮤지컬 '친구'가 11월 29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친구'는 2001년 전국관객 818만명 흥행신화에 빛나는 곽경택 감독의 동명의 영화 '친구'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시네뮤지컬로 제작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영화의전당과 비오엠코리아가 공동 제작하는 뮤지컬 '친구'는 중장년층 남성 관객들에게 폭발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남자들의 진한 우정과 의리'라는 소재를 무대 위로 끌어와 생동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 고심한 작품이다. 지난 11월 11일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작발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 '친구'는 검증된 스토리와 탄탄한 구성력에 아름답고도 감미로운 음악, 뮤지컬계 주목받는 실력파 신인들의 열연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영화 스토리의 주축이었던 동수와 준석 역에 부산 출신 배우 안재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2AM의 창민이 캐스팅되어 고향 부산의 정서를 뮤지컬 무대에서 고스란히 전해준다. 그 외 조형균, 김찬호, 김지훈, 권민수, 조윤영 등 뮤지컬계에서 주목받는 실력파 신인들이 캐스팅 되어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

안재모와 함께 동수 역할로 무대를 장악할 또 다른 배우 조형균은 '스팸어랏' '브루클린' '미남이시네요' 등의 작품을 통하여 색깔 있는 연기와 빼어난 노래실력으로 주목받는 뮤지컬계의 신인이다. 동수와 대립하며 뮤지컬 '친구'를 이끌어갈 친구 4인방의 리더 준석 역에는 '번지점프를 하다' '헤이, 자나!' '히스토리보이즈' 등의 작품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배우 김찬호가 창민과 함께 더블 캐스팅되었다.

친구 4인방 중 착실하고 반듯한 모범생 상택은 '두 도시 이야기' '루나틱' 등의 작품에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이며 단박에 주연으로 뛰어오른 배우 김지훈이 캐스팅 되었다. 까불거리지만 속정 깊은 친구, 중호 역을 맡은 권민수는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 드림코트' '영웅' '명성황후' 등의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기로 주목을 받았으며, 뮤지컬 '친구'의 히로인, 만인의 뮤즈 진숙 역에는 '헤이, 자나!'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른 조윤영이 캐스팅 되어 섹시한 레인보우 리드보컬부터 애잔함을 간직한 여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작발표회에서 김승업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는 영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화를 위해 부산 출신 감독이 부산을 배경으로 만든 시네뮤지컬 '친구'가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비쳤다.

시네뮤지컬 '친구'는 오는 11월 29일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12일까지 54회 장기공연 될 예정이다.

일 시 2013년 11월 29일
–2014년 1월 12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3:00,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장 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문 의 영화의전당(780–6030~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넌버벌 퍼포먼스 오리지널 NANTA 부산공연

세계가 인정한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 난타(NANTA) 오리지널 공연이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의 경쾌하고 속도감 있는 리듬에 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국내 최초의 비언어극인 '난타'는 1997년 10월 초연 후, 매 공연마다 매진행렬을 계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상품이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하여 작품성을 높여온 난타는 현재까지 한국 공연 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하였고, 서울의 전용관에서 연중 상설공연 중이다.

해외 무대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난타는 첫 데뷔 무대인 1999년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았다. 이후 계속되는 해외공연의 성공을 발판으로 2004년 2월 아시아 공연물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성공적으로 진출, 한국 공연계의 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난타는 아시아 최초로 브로드웨이에 전용관을 설립해 현재 전 세계 400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 연간 38만 명이 관람하는 난타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난타는 리듬과 비트, 상황만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언어의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 넌버벌 퍼포먼스라는 장점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파워풀한 공연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난타의 주 무대는 주방. 칼과 도마 등의 주방기구가 멋진 악기로 승화되어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으로 살아나고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드라마화해 재미를 안겨준다. 난타 이전의 기존 넌버벌 퍼포먼스극은 리듬과 비트의 끊임없는 반복으로 단조로움을 주어, 쉽게 그 매력을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었지만 난타는 주방이라는 보편적인 공간을 무대로 설정하고, 드라마틱한 요소를 대입시켜 누구라도 신명나고 즐겁게 관람할 수는 관객 참여형 작품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좌충우돌 주방장들의 하루 일과 시작!

세 명의 요리사가 주방에서 야채를 나르고 주방기구를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이때 등장한 심술기 가득한 지배인은 예정에 없던 결혼피로연 음식을 저녁 6시까지 모두 만들어 놓도록 명령한다. 게다가, 자신의 철부지 조카까지 데려와, 요리기술을 가르치며 함께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사라진다. 요리사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지배인의 조카를 뒤로하고, 음식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한다. 피로연에 쓸 음식들을 만들며 좌충우돌 해프닝이 계속되는 동안, 세 명의 요리사와 조카는 어느덧 가까워지고, 무대도 객석과 하나가 된다. 마침내 저녁 6시! 요리사들은 온갖 아이디어로 주어진 음식들을 모두 만들어내고, 그들의 결혼피로연은 무사히 끝난다. 결혼피로연 후 지배인과 네 명의 요리사들이 지금껏 보지 못했던 뜨거운 에너지와 강한 파워로, 관객의 머릿속에 깊이 울릴 감동의 파티를 선사한다.

일 시 12월 7일-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60,000원·S석 50,000원
A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주)오늘커뮤니케이션
(1599-8879)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5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시립합창단 제148회 정기연주회
리 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I

부산MBC 창사 54주년 기념
2013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2013년 고전음악의 교과서라 불리는 베토벤의 교향곡 세계를 재조명해본 리 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의 마지막 무대 베토벤 교향곡 '합창'이 '2013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에서 화려하게 울려 퍼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신차오가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샨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큐슈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한·중·일 3국이 함께 연주하며 부산시립합창단, 경산시립합창단과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하석배, 베이스 함석헌 등 최고의 솔리스트가 출연하여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최고의 역작인 교향곡 '합창' 전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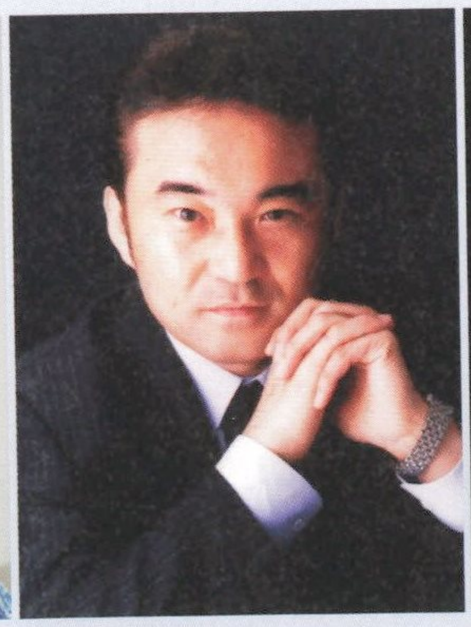
프랑스 계몽주의와 칸트, 실러의 영향을 받은 젊은 베토벤은 일찍부터 실러의 송시 〈기쁨에 부쳐 An die Freude〉에 곡을 붙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런던의 필하모닉 협회로부터 위촉받아 본격적인 작곡에 들어갔고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무렵인 1824년 완성, 그 해 10월 빈에서 '장엄 미사 Missa Solemnis'의 몇 악장 등과 함께 초연되었다. 베토벤 자신의 감독 아래 실제적인 지휘는 미하엘 움라우프가 맡았다. 연주가 끝난 뒤 베토벤은 귓병으로 인해 박수갈채를 듣지 못하다가 독창자들이 그를 청중 쪽으로 돌려세워주자 비로소 연주가 성공적인 것을 알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합창'은 특히 기악곡으로 작곡되던 고전 교향곡에 성악을 포함시킨 최초의 시도로, 성악곡 사이에 삽입되던 간주곡의 성격을 갖던 바로크 시대 신포니아의 전통을 이어받은 작품인 동시에 낭만주의의 문을 열은 베토벤의 혁신적 성향을 대변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음악 속에는 인간이 가진 모든 희노애락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해석, 그의 철학과 인생관 등이 피력되어 있다. 베토벤을 모델로 하여 '장 크리스토프'라는 명작을 남긴 로망 롤랑은 베토벤을 가리켜 '그는 이제 승리자였다. 그는 인간의 옹졸함을 정복한 승리자였다. 자기 자신의 운명과 비애를 극복한 승리자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작품의 궁극적인 숭고한 면이 깃들어 있는 제4악장은 로망 롤랑의 말을 실감케 한다.

일 시 12월 12일-13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0,000원·S석 15,000원
A석 10,000원·B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소프라노 오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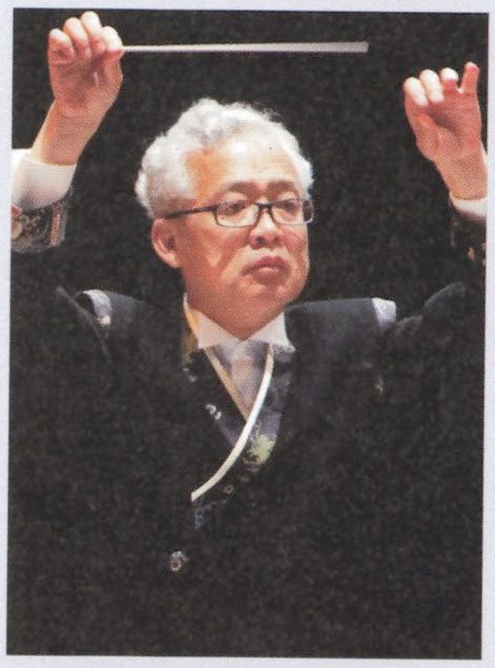
■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 테너 하석배

■ 베이스 함석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 지휘 김철호

■ 명창 김혜란(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후보)

일 시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의 길목, 흥겨운 우리 문화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가 12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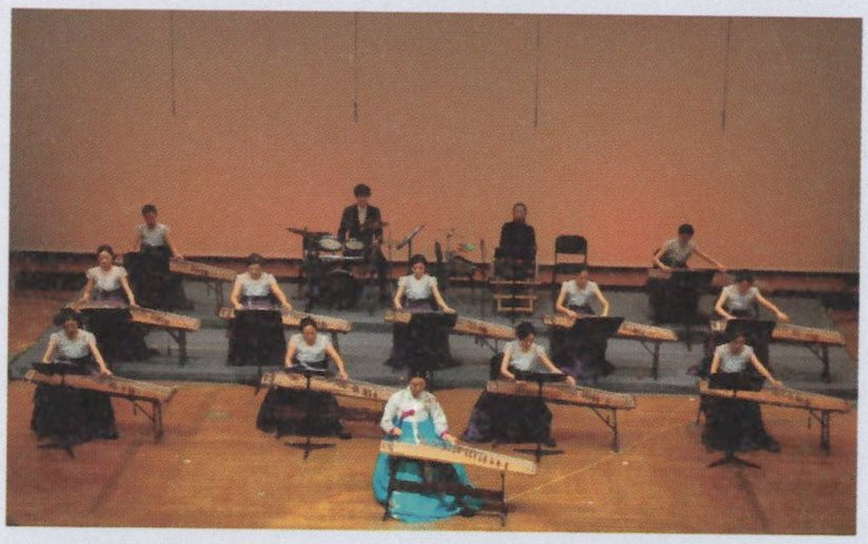
수석지휘자 김철호의 지휘로 우리 음악의 참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다이나믹하고 생동감 넘치는 무대로, 명인, 명창들과 함께 송년의 아쉬움을 나누는 흥겹고 신명나는 무대가 펼친다.

이번 무대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후보 김혜란 명창이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다. 맑고 깨끗하며 경쾌한 경기민요의 전승, 보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김혜란 명창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도 몇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부산 국악애호가들과도 친숙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경기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김보연,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8호 재담소리 이수자 김혜영, 전주대사습놀이 장원 수상자 강해림, 상주전국민요경창대회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자 유은지, 전국경서도 경창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유현지 등 제자들과 첫 무대 '우리비나리'로 2013년 송년무대를 연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기는데서 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터를 애기하고 역대의 여러 나라와 임금을 꼽고 나라의 태평을 찬양하고 굿 주인과 그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비나리'는 각종 액과 살을 골고루 꼽으면서 그 살과 액을 풀고 복을 비는 고사의 독경형식으로 전해져왔다. 우리비나리는 그 간의 비나리 문서를 참고해서 우리 역사의 큰 줄기를 오늘의 시각에서 정리하고 우리들의 소원을 담아내고자 관객과 무대가 함께 하는 친근한 소리로 만들어 내기 위해 구희서 작사로 이준호가 곡을 붙여 탄생된 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일파가야금합주단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무대. 백규진의 편곡으로 '노팅힐' '태양은 가득히' '해를 품은 달' '하바나길라' 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영화와 드라마에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을 입혀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1996년 창단된 일파가야금합주단은 장혜숙 단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의 가야금 전공자들이 부산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레퍼토리를 개발, 시민들에게 친근한 무대를 열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장경미, 박은영, 최수종, 하주현, 김명선, 김지우, 채미경, 김경현이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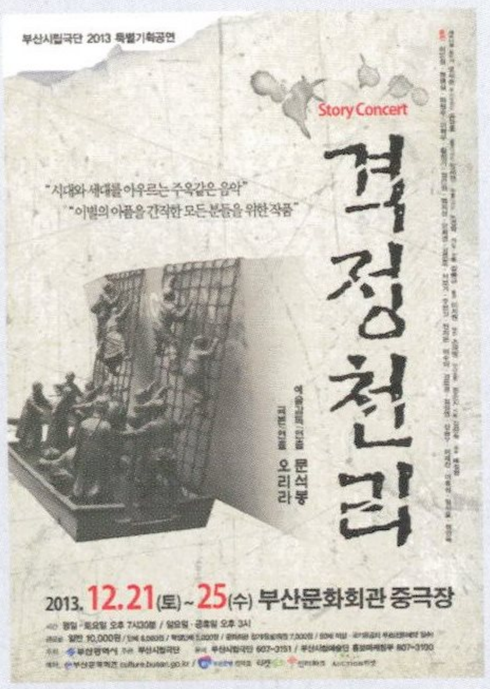
이 밖에도 연말 분위기를 한껏 돋우기 위해 전상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민요와 캐롤 무대, 김혜란 명창과 김보연, 김혜영, 강해림, 유은지, 유현지의 흥겨운 경기민요 한마당 '노래가락' '사랑타령', 2013년 위촉곡 강봉천 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타악협주곡 '회오리'로 2013년 송년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 일파가야금연주단

부산시립극단 2013 특별기획공연

격정천리



일 시 12월 21일–25일
평일·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공휴일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단체 20명이상 20% 할인, 학생 단체 5,000원, 국가유공자 및 60세 이상 무료)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3151)

2013년 '어메 게사니' '언챙이곡마단'으로 아픈 우리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해온 부산시립극단이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퓨전 스토리 콘서트 '격정천리'로 2013년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컨셉으로 기획된 '격정천리'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흥남부두 철수작전 속에서 부산으로 피난 온 가족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쟁의 참혹함과 가족의 소중함, 그 속에서 싹트는 애틋한 사랑과 비극을 그린 가족극이다. 전쟁을 피해 임신중인 아내와 떨어져 부산으로 피난 온 진수와 그를 찾아 뒤늦게 내려온 금진,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 속에서 태어난 아들, 그리고 비극적으로 생긴 딸, 일본으로의 망명, 건달 세력의 득세 등 전쟁 속에서 천리길을 마다않고 피난 내려와 살아가는 격정의 세월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을 하나의 작품에 담아 낸 '격정천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진하게 남아있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전쟁과 세월이 남겨준 상처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격정천리는 특히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된 역사적인 흥남철수 작전과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일화, 그 속에서 벌어지는 김진수 가족의 이야기를 픽션과 논픽션을 오가며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퓨전 스토리 콘서트를 표방하는 만큼 음악도 '격정천리'의 재미를 배가 시켜준다. 강산에의 '라구요'라는 노래로 시작하여 '베사메무초' '그리운 내고향' '꿈에 본 내고향' '내 생에 봄날은 간다' '여인의 탱고' '그대니까요'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등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주옥과 같은 노래들이 관객의 감정샘을 자극한다.

전체 음악은 전형적인 악극에서 탈피해서 추억의 가요와 더불어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가사의 현대가요, 가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속에서 모든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이어나간다. 이번 무대를 위해 '어메 게사니'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부산시립합창단 기획 담당 테너 오동주 지도로 오프닝 곡 '라구요'를 합창버전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창작극 연구소 몽키프로젝트 대표 오리라가 극본을 맡았고, 부산시립극단 문석봉 예술감독과 오리라의 공동연출로 제작된다.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무덤없는 주검'으로 동아연극대상 2회 수상, '연인과 타인'으로 백상예술상 신인 연출상을 수상한 바 있는 문석봉 예술감독의 연륜과 부산연극계의 젊은 기수 오리라의 호흡이 기대된다.

극을 이끌어가는 주요 배역인 김진수 부부는 부산시립극단의 간판 배우 이혁우와 이현주가 맡아 열연하고 시립극단의 큰형님 이돈희가 유랑극단 단장 역을 맡아 극을 맛깔스럽게 이끌어 준다. 그외 실력파 중견배우 황창기가 악당 조득룡 역을 맡아 극의 감정능선을 지휘해 나간다.

특히 이번 무대는 고향을 잃고 어린시절을 힘들게 살아온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국가유공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연말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효도선물로 기대가 크다. 초대권은 부산시립극단에서 선착순 전화 접수.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3 7080 콘서트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쏟아지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7080세대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 선물 '7080 콘서트'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1980년대, 90년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7080세대 대표가수 해바라기, 민해경, 박강성과 젊은 층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안치환이 부산의 7080세대들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무대를 선사한다. 젊은 세대들만의 축제일 것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에게 소외되고 외로웠던 부모님 세대들을 위한 맞춤공연으로 기획된 '7080 콘서트'는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노래 부르고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무대로 7080세대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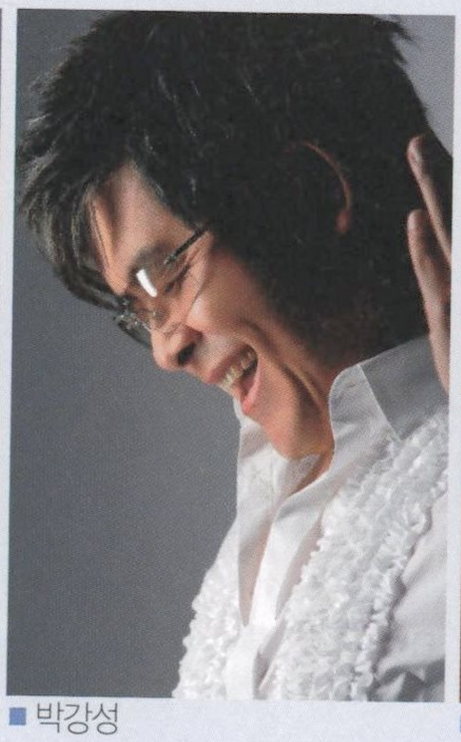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1980년 1집 앨범 '누구의 노래일까로' 데뷔, '그대모습은 장미'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등으로 많은 남성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민해경이 7080 무대를 위해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다. 최근 10년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인 민해경은 1980년대의 섹시아이콘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가수로, 이번 무대를 통해 오랜만에 가요계 선후배들과 한자리에서 호흡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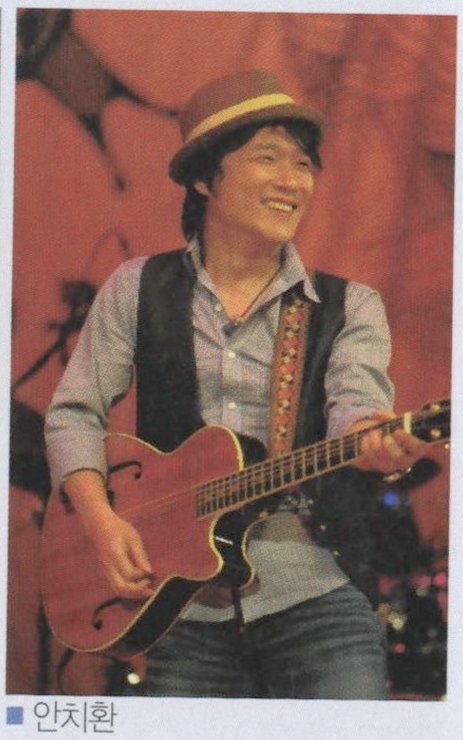
민해경 외 '사랑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 '내마음의 보석상자' 이란 노래로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포크 그룹 해바라기(이주호, 강성운), 1989년 1집 '안치환 첫 번째 노래모음'으로 데뷔한 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귀뚜라미' '소금인형' '내가 만일'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과 서민들을 위해 노래하는 시인으로 사랑받아온 안치환, 1982년 문화방송에서 주최한 MBC 신인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가요계에 데뷔, '장난감 병정' '내일을 기다려' '메모리즈' 등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 받아온 박강성이 열정적인 무대를 꾸며준다.

일 시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8: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해바라기

■ 민해경


■ 박강성


■ 안치환

부산박물관 신임관장

박방룡

다양한 역사를 간직한 편안한 역사 휴식공원 조성

"부산역사의 보고인 부산박물관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11월 1일 신임 부산박물관장으로 부임하면서 부산과 인연을 맺은 박방룡 관장. 부산박물관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박방룡 신임관장은 다이나믹한 부산의 역사를 담은 부산박물관 수장으로 요즘 어느때보다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도시 전체가 노천박물관인 고도 경주가 고향인 박방룡 관장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 문화재와 가까워졌다.

"어린 시절 故윤경렬 선생님이 진행하시던 어린이 박물관학교가 너무 재미있어서 쫓아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밑거름이 아닐까 싶어요."

초등학생 때 외가나들이를 갈때마다 재미로 찾았던 어린이 박물관학교의 경험들은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어느새 소년 박방룡을 성장시키는 인생의 좌표가 되었다. 윤경렬 선생이 들려주는 신라의 역사와 구연동화가 너무 재미있어 결석을 할 수 없었다는 그는 윤경렬 선생이 바쁠 때는 선생을 대신해 초등학생들에게 몇 년 째 들어 외우다시피한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며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되기도 했다. 박방룡 관장은 마지막 신라인으로 불리던 윤경렬 선생과의 오랜 인연과 가르침 때문에 우리문화에 대한 소중함, 교육관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부산과도 친숙하다. 그동안 고고학 관계 논문 50여편을 발표한 박방룡 관장은 신라의 산성 및 도성, 신라 금석문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2010년 1월에는 평생 가르침을 받은 고청 윤경렬 선생을 기리는 고청 윤경렬 학술상, 올해 5월에는 한국 박물관협회장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박물관상을 수상하며 그의 오랜 문화재 사랑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박관장은 그동안 고향 경주의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실장, 국립공주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 유물관리부장, 고고역사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올해 6월까지는 부여박물관장으로 근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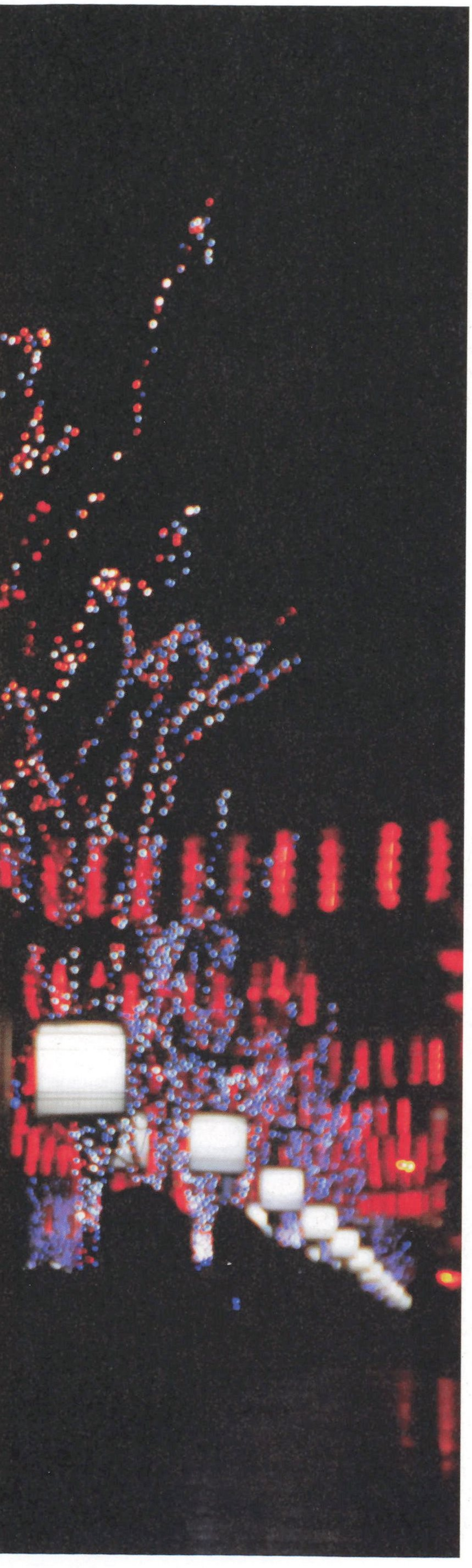
"부산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어 우리나라 최고,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근, 현대 유적이 많은 것이 특징이죠. 전국에서 부산의 중요한 문화유적을 보기 위해 부산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전시기획과 홍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 할 계획입니다."

복천분관, 동삼동 패총전시관, 근대역사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외에 내년 6월에는 정관지역에 정관박물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어 박방룡 관장은 부임과 함께 개관준비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물관은 과거의 역사 유물만 전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획전과 교육프로그램이 함께 열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십시오."

박방룡 관장은 앞으로 부산박물관 전체 분관을 둘러보는 뮤지엄 투어를 비롯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부산박물관을 부산시민들을 위한 편안한 역사휴식공원으로 만들고 싶다.

신라의 미소를 닮은 친근한 박물관 할아버지 박방룡 관장. 그와 함께 하는 박물관 나들이가 기다려진다.



같은 듯 다른 중국의 새해

■ 허정애_베이징온바오 팀장

중국은 3천여년 전부터 줄곧 음력을 사용해 왔는데, 그 때에는 음력 정월 초하루를 '신년(新年)'이라 하였다. 20세기 초에 중국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양력을 채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양력 1월 1일을 '신년(新年)'이라 하고, 음력 정월 초하루를 개칭하여 '춘절(春節)'이라 하였다. '춘절'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춘(新春)이 다시 돌아오면 만물이 모두 새로워지고 새로운 파종과 수확의 계절이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지신명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오곡이 풍성하고 만사가 뜻대로 되기를 기원한다.

매년 음력 12월이 되면 춘절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기 시작한다.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면 음력 섣달 초파일에는 '라빠저우(臘八粥)'를 먹는다. 라빠저우(臘八粥)란 쌀, 좁쌀, 찹쌀, 수수, 팥, 대추, 호두, 땅콩 등을 삶아서 만드는데 '오곡이 풍성하다(五穀豊盛)'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음력 섣달 스무 사흗날은 조왕신(竈王神)에게 제사지내는 날로 부엌 벽의 신상 앞에 맥아당(麥芽糖)을 바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조왕신이 이것을 먹은 후 하늘이 계시를 내릴 때에 이 집의 주인을 위하여 좋은 말을 해주고 행운을 내려준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과거에 항상 말하던 '하늘이 좋은 일을 말하면, 집에 돌아와서 상서러운 일을 내려준다(上天言好事, 回宮降吉祥)'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미신적인 방법이라 하여 이미 사라졌다.

아침 식사를 매우 중시하는 중국인은 새해 첫날인 음력 1월 1일 '설날(春节, 음력 1월 1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 물만두인 수이자오즈(교자,水饺子)를 만들면서 새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눈다. 이 수이자오즈를 '녠예판'이라고도 한다. 이 물만두는 '자오'(饺)라는 글자가 '교대한다'는 '교' 자와 발음이 같아서 묵은해와 새해가 바뀐다는 의미로 우리의 떡국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한 살 먹는다는 의미가 있다. 수이자오즈를 빚을 때는 소에 동전을 넣어 새해에는 부자가 되라는 기원의 뜻을 담기도 한다. 너무 당연하게 즐기고, 먹던 음식의 유래와 의미를 되새겨보면 좀 더 뜻깊은 명절이 된다.

또한 춘절 연휴기간인 열흘 동안에는 전 중국인이 폭죽을 터뜨릴 정도로 폭죽놀이는 국민적인 행사다. 드넓은 중국 땅의 밤하늘이 온통 벌겋게 타오를 정도로 폭죽을 많이 터뜨리다 보니 다음 날 아침에는 거리 곳곳이 온통 폭죽 껍질로 뒤덮일 정도다. '폭죽 문화'는 화약이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전설에 따르면, '년(年: 니앤)'이라는 괴상한 짐승이 살고 있었는데, 길쭉한 머리에 뾰족한 뿔을 한 이 짐승은 성질이 매우 흉악하였다. 이 짐승은 평소에는 깊은 바닷속에 살다가 섣달 그믐날만 되면 육지로 올라와 가축을 잡아먹고 사람을 헤치곤 하였다.

따라서 섣달 그믐날만 되면 '년'이라는 놈을 피해서 온 마을 사람들은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야만 했다. 어느해 그믐날 사람들이 다시 짐을 꾸려서 산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동쪽에서 한 백발노인이 찾아와 한 노파에게 자기를 하룻밤만 묵게 해주면 그 '년'이라는 놈을 쫓아 버리겠다고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그 노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노파도 그 노인에게 빨리 산으로 숨기를 권했다. 그러나 노인은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마을에 그대로 남아있겠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하는 수없이 노인을 그대로 남겨둔 채 급히 산속으로 숨었다.

드디어 '년'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사납게 마을을 덮치려고 할 때, 백발노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년'을 향해 폭죽을 터뜨렸다. 갑자기 터진 폭죽소리에 깜짝 놀란 '년'은 온몸을 부

■ 춘절을 맞아 새해 복을 기원하고 액땜을 하기 위한 다양한 붉은 장식물을 고르는 시민들

들부들 떨면서 더 이상 앞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알고 보니 '년'이라는 놈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붉은색과 불빛, 폭죽소리였던 것이다. 이때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붉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것을 본 '년'은 혼비백산하여 줄행랑을 쳤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조용했으며, 그 노인도 보이지 않았

■ 춘절 기간 중국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홍등

다. 그제서야 마을사람들은 그 백발노인이 자기들을 위해 '년'을 쫓아주러 온 신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사람들은 그 백발노인이 '년'이라는 놈을 쫓을 때 사용했던 세 가지 보물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매년 섣달 그믐날이면 집집마다 붉은 대련(對聯: 댓구로 된 글귀)을 붙이고, 폭죽을 터뜨리며, 밤새 등불을 환히 밝혀놓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폭죽놀이'로 변화한 것이다. 폭죽놀이는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섣달 그믐날 밤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계속된다. 특히 그믐날부터 설날 아침까지는 마치 전 중국인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폭죽놀이가 펼쳐진다. 전 세계 폭죽 생산량의 90%가 중국에서 소비될 정도다. 신년이 되면 가족이 함께 폭죽을 사서 터뜨리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중국인들은 빨간색을 유난히 좋아한다. 우리의 설날과 같은 중국 춘절에는 가게마다 새빨간 속옷이 가득하다. 거리마다 화려하고 붉은 글씨체로 새해 인사가 걸리고, 쇼윈도마다 온통 붉은 옷으로 디스플레이된 모습은 신기하다. 동양에서 빨간색은 귀신을 쫓는 상징적인 색이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도깨비를 쫓기 위해 붉은 팥을 대문 밖에 뿌렸고 중국은 악귀를 쫓아낸다는 의미로 현관에 닭의 피를 발랐다. 특히 '빨간색 속옷'은 '길(吉)함'을 상징해 그 해 띠(本命年)에 해당되는 사람은 액운을 막기 위해 붉은색 속옷이나 내복, 양말, 허리띠 등을 착용하고 새해를 맞는다. 한 해를 무탈하게 보내게 해달라는 중국인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중국에도 '세뱃돈(홍빠오)'이 있다. 붉은 봉투에 용돈을 넣어 주는 풍습인데, 중국에서는 결혼식 축의금이나 상갓집 조의금도 꼭 붉은색 봉투에 넣는다. 또 재미난 풍속은 '복(福)'자를 거꾸로 붙인다. 그 이유는 '거꾸로'라는 뜻의 중국어 '도(倒)'와 '오다, 도착하다'는 뜻의 중국어 '도(到)'의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자를 거꾸로 붙이면, 그것은 중국어 발음상에서 바로 '복이 들어온다(福到了)'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중국의 또다른 문화로 온 가족이 즐기는 새해 종이 '福神(복신)' 접기도 있다. 중국인들은 종이 '복신'을 접으며 새해 소망을 기원한다. 새해 가장 큰 소망은 뭘까? 가족들의 한해 건강 외에 아무래도 '돈 걱정 않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 아닐까? 재물 운을 안겨준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 재물신. 음력 1월 5일은 중국에서 재물의 신이 태어난 날이다. 재물신 뿐만 아니라 학업을 관장하는 문창군, 연애를 관장하는 월하노인, 성공과 출세를 관장하는 복덕정신 등도 있다.

한국의 설날처럼 중국도 가족의 건강과 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것은 매한 가지다. 춘절이 가까워지면 외지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가족들을 찾아 기차나 장거리 버스로 10시간 이상 달려 고향집으로 향하는 진한 풍경도 아직까지 중국에서 볼 수 있다.

괴테와 글룩의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 (3)

■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낭만주의의 합창음악은 먼저 합창이 큰 구성 속의 한 부분으로 쓰인 작품과 합창작곡 자체가 흥미의 초점이 되는 작품으로 구별된다. 전자에는 오페라 속의 장대한 합창과 교향곡이나 관현악곡의 합창부분의 일부가 속한다. 하지만 합창은 전형적인 낭만주의적인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관현악보다 다소 부적합하였기 때문에 작곡가들은 합창을 주로 회화적인 필치와 보조적인 색체를 더하기 위한 관현악의 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큰 작품의 일부분으로 쓰이지 않았던 낭만주의 시대의 합창음악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최상성부에 선율이 놓이는 화성양식의 앙상블 형태인 파트송 또는 세속적인 가사에 무반주나 피아노 또는 오르간으로 반주되는 짧은 합창소품, 피아노나 오르간을 반주로 하는 소규모의 합창, 의전 가사에 의한 음악 혹은 교회의 예배를 위한 합창, 극적인 이야기나 성격을 가지며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음악회용 대규모 합창곡 등이다. 전통적인 합창 형식들인 칸타타, 오라토리오, 미사, 레퀴엠 등도 작품에 따라 세속적인 요소가 많이 삽입되었고 음악의 규모도 다양하였다. 특별히 낭만시대에는 다양한 세속 합창음악이 대두되었다. 오페라에 삽입된 합창이나 국가적 행사를 위한 합창, 유희적 기능의 합창 등이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브람스(1833~1897)는 젊은 시절부터 작곡해오던 관현악 작품들과는 달리 말년에 이르러서야 성악 작품들을 쓰기 시작했다. 독실한 종교인이었던 만큼 그의 성악곡들은 종교음악이 대부분이었으며 세속적인 노래들은 슈만의 영향을 받아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합창곡에 있어서도 브람스는 종교적인 합창곡과 세속적인 합창곡을 모두 썼으며 구성에 있어서도 반주가 붙은 합창과 무반주 합창 그리고 다양한 앙상블을 위한 합창곡을 작곡하였다. 중요한 작품으로는 괴테의 시에 붙인 유일한 칸타타 〈리날도〉가 있고, 기존의 레퀴엠과 달리 산 자를 위로하고 희망을 주려는 의도에서 작곡된 작품인

■ 메트로폴리탄오페라단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

바리톤과 소프라노 독창을 포함한 혼성 4부합창의 〈독일 레퀴엠〉, 콘트랄토와 여성 합창 그리고 관현악을 위한 〈알토 랩소디〉, 혼성4부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운명의 노래〉, 요한계시록 19장에 의거한 바리톤과 8성부합창 그리고 관현악을 위한 〈승리의 노래〉, 실러의 시를 4성부합창과 관현악으로 옮긴 〈비가〉, 6성부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운명의 여신의 노래〉가 있다.

■ 안젤름 포이어바흐 作 '이피게니아'

이 중 브람스의 대표적인 합창음악은 바로 〈독일 레퀴엠〉이다. 존경하던 슈만과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이 동기가 되어 작곡한 이 작품은 원래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가톨릭교회에서 라틴어 기도문으로 작곡되던 것이었으나, 독실한 루터파 신자였던 브람스는 독일어로 번역된 신구약성서의 구절을 따서 순수한 독일적인 것을 만들었다. 내용은 대체로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북독일인 브람스다운 엄숙하면서도 다정한 작품이다. 〈독일 레퀴엠〉과 함께 브람스의 합창음악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운명의 노래〉는 휠더린의 시에서 가사를 따왔다. 브람스의 음악 중 가장 인간적인 곡으로써 처음엔 평화롭고 깨끗한 세계와 영원한 신의 세계를 보여준 뒤, 지상 인간들의 고뇌, 괴로움, 불안, 절망이 제시되며 이윽고 곡은 바뀌어 가면서 위로와 희망의 종결부가 나타난다.

〈운명의 여신의 노래〉는 브람스의 관현악을 동반한 최후의 합창곡으로 마흔아홉 살에 피서지 이슈르에서 작곡되었다. 괴테의 희곡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에〉에서 가사를 가져왔는데, 그 전에 브람스는 빈에서 동명의 연극을 보고 감동하였으며 특히 여주인공의 표정이 풍부한 연기에 매료된 것이 이 곡의 작곡동기이다. 한편, 친구인 베토벤 연구에 매진했던 음악학자 노테봄이 당시 병으로 쇠약해지자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이 곡을 작곡했다는 설도 있다. 괴테의 희곡 제4막에 나오는 이 노래는 그리스 장군의 딸 이피게니에가 고향을 떠나 유배를 당한 타우리스 섬에서 부르는 모놀로그이며,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신의 무자비함을 노래한다. 여기서 운명의 여신은 파르젠(Parzen)이라는 독일어이고 복수인데 그리스신화에서 나오는 세 명의 운명의 여신에서 아이디어를 빌리고 있다.

단일악장으로 된 이 곡은 격렬하고 위압적인 관현악으로 시작하며 이내 부드러워지는데 저음에서는 베토벤의 '운명의 동기'를 닮은 단편이 반복된다. 이어서 남성 3부와 여성 3부가 '인간이여 신을 두려워하라'고 노래한다. 다시 관현악이 격렬하게 등장하면 이에 맞서 혼성합창이 응답하고 이 둘은 이제 교대로 연주하는데, 합창은 보다 더 힘차고 화성적으로 음악을 전개한다. 신의 위압적인 음악과 인간의 무력함을 나타내는 듯한 조용한 음악이 두 번 반복된 후 첫 부분을 자유롭게 재현한 뒤 음악은 잔잔해져서 다음 부분을 준비한다. 박자가 바뀌면 매끄러운 흐름으로 "지배자들은 이전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조상들이 사랑한 안정된 모습을 찾으려하지 않는다"고 체념한 듯이 노래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관현악은 금관악기와 타악기를 배제한 채 조용히 연주하고 "이렇게 운명의 여신은 노래한다"는 내용의 합창이 꺼져가듯이 사라지며 인류가 업은 고뇌를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가르쳐준다.

브람스의 성악음악은 오케스트라 작품과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북독일 특유의 엄숙하고 근엄한 면모에 스며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가곡은 그의 순수하고 로맨틱한 매력이 엿보이고, 합창곡은 그의 독실한 종교심과 운명에 순응하는 다정함을 느낄 수 있다. 늦가을 브람스의 인간적인 매력에 푹 빠지고 싶을 때 들을만한 곡이다.

■ 브람스

문화국 독일의 간판 VII

– 신비로운 근저의 황금울림 : 바그너의 작곡기법과 악기 –

■ 임채흥
바이로이트대학교
음악학 박사

바그너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출생지인 라이프치히 市가 '바그너는 라이프치히 사람'이라는 모토 하에 기획한 기념행사들 가운데서 바이로이트에서 상연한 바그너의 초기작품 3편 '요정들', '연애금지', '리엔치'와 바그너 악기전시회가 두드러진다. 전자는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과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Gewandhausorchester) 합작으로 7월에 실내체육관에서 상연했으며, 바이로이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후자는 오늘의 주제가 되겠다. 이 전시회는 라이프치히대학교 소속 그라씨 박물관(Grassi Museum)이 기획했으며, '신비로운 근저의 황금울림-바그너의 악기들'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 5월 17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지속된다(http://mfm.uni-leipzig.de /dt/20121120_Wagnerausst.php). 이 전시회의 실무 총책임자인 비르키트 하이제(Birgit Heise)박사는 8월의 한 휴일에 한국의 KBS FM-클래식라디오 취재팀을 위해 특별시간을 마련하여 안내와 설명을 한 바 있다.

바그너는 일생토록 새로운 음악적 효과 및 보다 큰 음역과 울림이 풍부한 새 악기 발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개발된 수많은 악기들을 오페라에 실제로 적용했다. 오늘날 그것은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의 오케스트라 비트를 일컫는 이른바 '신비로운 근저'로부터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음향과 효과음들을 통해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지휘자는 새로운 음악과 음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어느 곳에서보다 많이 갖게 된다. 주작 '니벨룽의 반지'를 작곡하는 동안 바그너는 자신의 작곡현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 여기에는 자기비판과 풍자적 시대비판이 함께 담겨있다.

'내가 어떤 서툰 인간인지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조를 전혀 할 줄 모른다. 내게서는 작곡이란 것이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상황이며, 환상에 빠질 때엔 내게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 때에야 비로소 나는 기록을 하게 되는데, 온갖 신체적 투입이 시작된다. '그게 어땠지?' 그러니까 '어떤가?' 또는 '어떠해야 하는가?'가 아니고 '그게 어땠지?'이다. 그러면 나는 그걸 다시 발견할 때까지 찾아내야 한다. 만약 멘델스존이, 내가 작곡하는 걸 본다면, 두 손을 머리위로 포개놓고 말거야.'

이처럼 바그너는 새 작품을 창작할 때, 그 작품에만 해당하는 고유한 음악언어를 찾아내고자 했다. 그래서 그에게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작곡이었고, 음악적 표현의 진실이었다. 오케스트라가 무한한 가

■ 바이로이트의 슈타인그래버가 제작한 오리지널 그랄-글록켄클라비어 또는 파르지팔-글록켄

■ 야경꾼호른

능성을 갖게끔 하기 위해 바그너는 음악가들 및 악기제작자들과 집중적으로 의논하고 연구했으며, 수없이 악기제작을 위탁했다.

가령 '라인의 황금'에서 니벨룽족 알베리히가 라인강에서 훔친 황금을 가공하는 장면에는 암보스(Amboss, Anvil)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대장간용 모루다. 유명한 '바그너 튜바'는 깊은 소리를 내는 호른(바그너는 '호른튜바', '테너튜바', '베이스튜바' 등으로 명명)으로서 '바리톤', '유폰'(Euphon), '코르논'(Cornon) 등으로도 불린다. 금관악기류의 창안에서 바그너는 색소폰 발명자인 파리의 아돌프 작스(A. Sax)의 제품목록에서 아이디어를 얻지만, 작스와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마이스터징어'에 나오는 '베크메써 하프'는 고지식한 가수 베크메써의 성격을 대변하는 우스꽝스런 류트음향을 위해 바그너가 직접 고안한 소형의 철현(鐵弦) 하프이며, 같은 작품에 나오는 '야경꾼호른'은 진짜 황소 뿔에 금속제 마우스피스와 음향확대판이 부착된 거칠고 둔탁한 음향의 악기였다. 또 그의 착안에 따라 제작된 '옛 오보에'는 깊고 구슬픈 소리를 내는 잉글리시호른으로, 궁형으로 제작되어, 1850년 리스트의 지휘로 바이마르에서 초연된 '로엔그린'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1875년에 바이로이트의 악기제작자 슈텡엘(Stengel)에게 클라리넷 모양의, 끝이 오목하지 않은 '옛 오보에'를 만들게 한다. 이 악기와 유사한 '트리스탄-샬마이'(Tristan-Schalmei)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목동의 윤무'(Hirtenreigen)에 사용되는데, 나중에 '헥켈폰'('파곳'의 일종)을 발명한 헥켈이 제작한다. 뮌헨에서의 초연을 위해 헥켈이 제작한 악기는 민속악기인 '알프스호른'에 코르넷 마우스피스가 부착된 것이다. 다음으로 '파르지팔'에 등장하는 유명한 '그랄-글록켄클라비어'(Gralsglockenklavier) 또는 '파르지팔-글록켄'이 있다. 이 악기는 '파르지팔' 초연을 위해 바이로이트에의 피아노회사 '슈타인그래버'(Steingraeber)가 특별 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미(E1)·솔(G1)·라(A1)·도(C)의 네 음을 내는 피아노로서, 각 음에 여섯 개의 굵은 현이 설치되어 있다. 부활절의 종소리를 재현하는 이 음향은 오묘한 종교적 축제의 장면을 연출한다.

■ 바그너 악기들 : 탐탐, 트라이앵글, 바그너튜바, 종지-글록켄슈필, 심벌즈

개별 '심벌즈'도 바그너의 아이디어로 제작되었는데, 팀파니 스틱으로 연주되어 '니벨룽의 반지'에서 번쩍이는 황금과 깜박이는 불빛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지그프리트호른'은 엉덩이 높이에 차고 다니는 모조품이며, 가늘고 은색이 나는 뿔이다. '발퀴레'에 나오는 사냥꾼 '훈딩호른' 역시 황소의 뿔 모조품이며, 실제음향을 위해 바그너는 오보에주자로 하여금 튜바로 '도'를 불게 했는데, 여기서는 비전문 연주자가 내는 거친 음을 원했기 때문이다.

'리엔치'에서는 뱀 모양의 '세르팡'이 사용되는데, 원래 철제악기지만 바그너는 목재로 제작하도록 주문한다. 그 외에도 '베이스트럼펫'과 '로엔그린트럼펫', '오피클라이데'(Ophikleïde), '클라리넷과 베이스클라리넷', '콘트라베이스 트롬본', '바그너-저음 파곳', '천둥소리기계 및 바람소리기계', '보헤미아 플루트', '탄호이저 하프', '마이스터징어 하프', '기사용 비올라', '5현 콘트라베이스', '글록켄슈필', '소 방울', '공', '탐탐', '팀파니', '큰북' 등 타악기 류, 특수피아노와 건반악기류 등에서 바그너가 개량한 악기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의도는 단순히 새로운 음향효과의 추구라기보다는 자기 오페라의 극적인 묘사에 적합한 음색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문화국 통일의 간판 바그너〉편은 이번호로 끝을 맺습니다.-

자고로 말조심을 하라 했거늘…
신언인도(愼言人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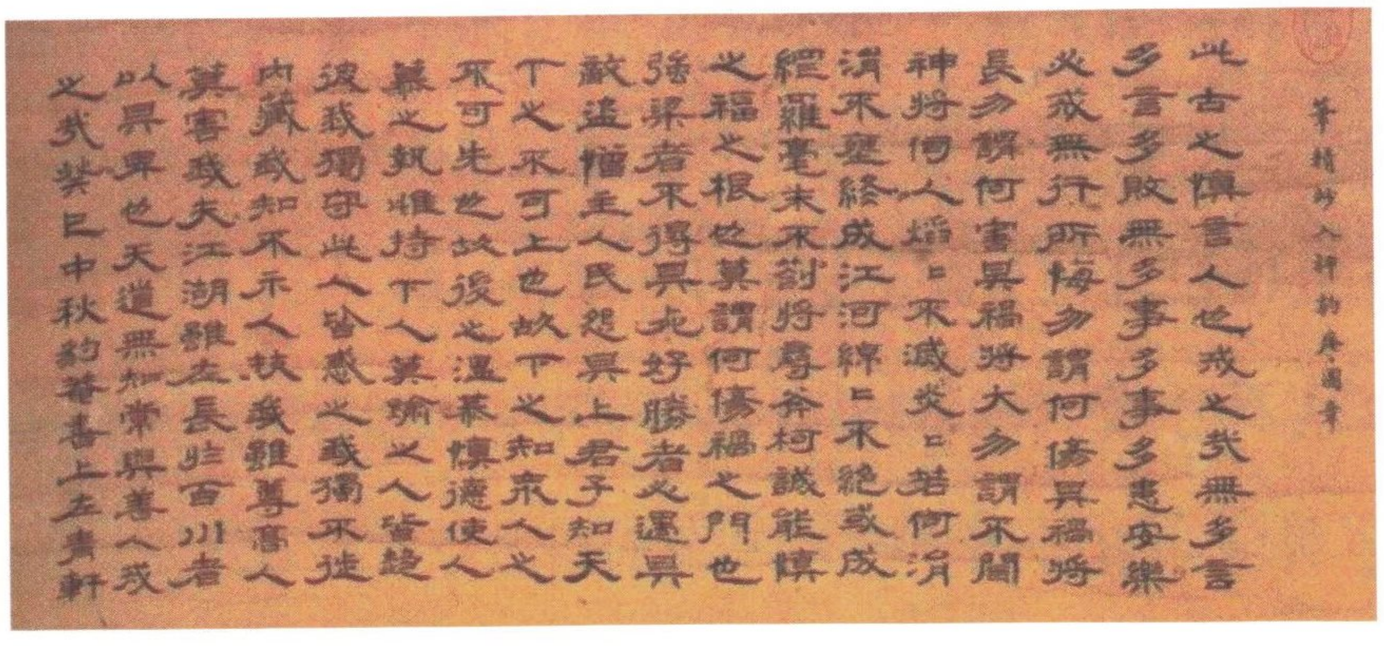
■ 변광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흔히 "말 많은 집은 장 맛도 쓰다"는 말이 있다. 입으로만 그럴 듯하게 말하고 실상은 좋지 못하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실없다 내지 믿음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예부터 선조들은 말을 삼가도록 가르쳐 왔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말을 적게 하고 겸손한 군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소개하는 작품은 김홍도의 〈신언인도(愼言人圖), 종이수묵, 114.8×57.6cm, 국립중앙박물관〉이다. '신언인'은 말을 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주로 중국의 역사나 전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재로 한 고사인물화 유형의 하나다. 그가 1773년(29세)에 그렸으니 지금까지 알려진 단원의 작품 중에서 최초의 기년작(紀年作)이라 하겠다. 단원은 간혹 양반사대부의 주문에 의해 그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작품이 그러한 예이다. 주인공이 소매 안으로 두손을 모은채 매우 절제된 표정으로 대좌 위에 단아하게 서있다. 한창 젊은 나이에 그려서인지 얼굴과 몸이 약간 긴장된 듯 붓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화법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느낌을 준다. 입을 다물고 있는 얼굴에는 은은한 내면적 인내가 숨어있는 듯 하며, 도포의 주름인 의습선(衣褶線)이 붓선으로 강조되어 인물의 차분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은 약간의 시각적 효과다. 그렇지만 이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는 강렬한데, 왜냐하면 그가 바로 어릴 적에 배웠던 스승 표암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화제(畵題)가 있어서 무게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화제는 단아한 예서체(隸書體)로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 중요 문구를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옛날에 말조심을 하던 사람이다. 경계하여 많은 말을 하지 말지어다. 말이 많으면 실패가 많다. 일을 많이 벌리지 말라. 일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 안락할 땐 반드시 경계하라. 후회할 일 하지마라. (중략) 힘으로 밀어붙이는 자는 온전하게 죽지 못한다. 이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적수를 만난다. 도적은 주인을 미워하고, 백성은 그 윗사람을 원망하며, 군자는 천하가 위로 올라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뭇사람이 자신보다 앞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뒤쪽에 자리한다. (중략) 무릇 강호가 비록



■신언인도(愼言人圖) 화제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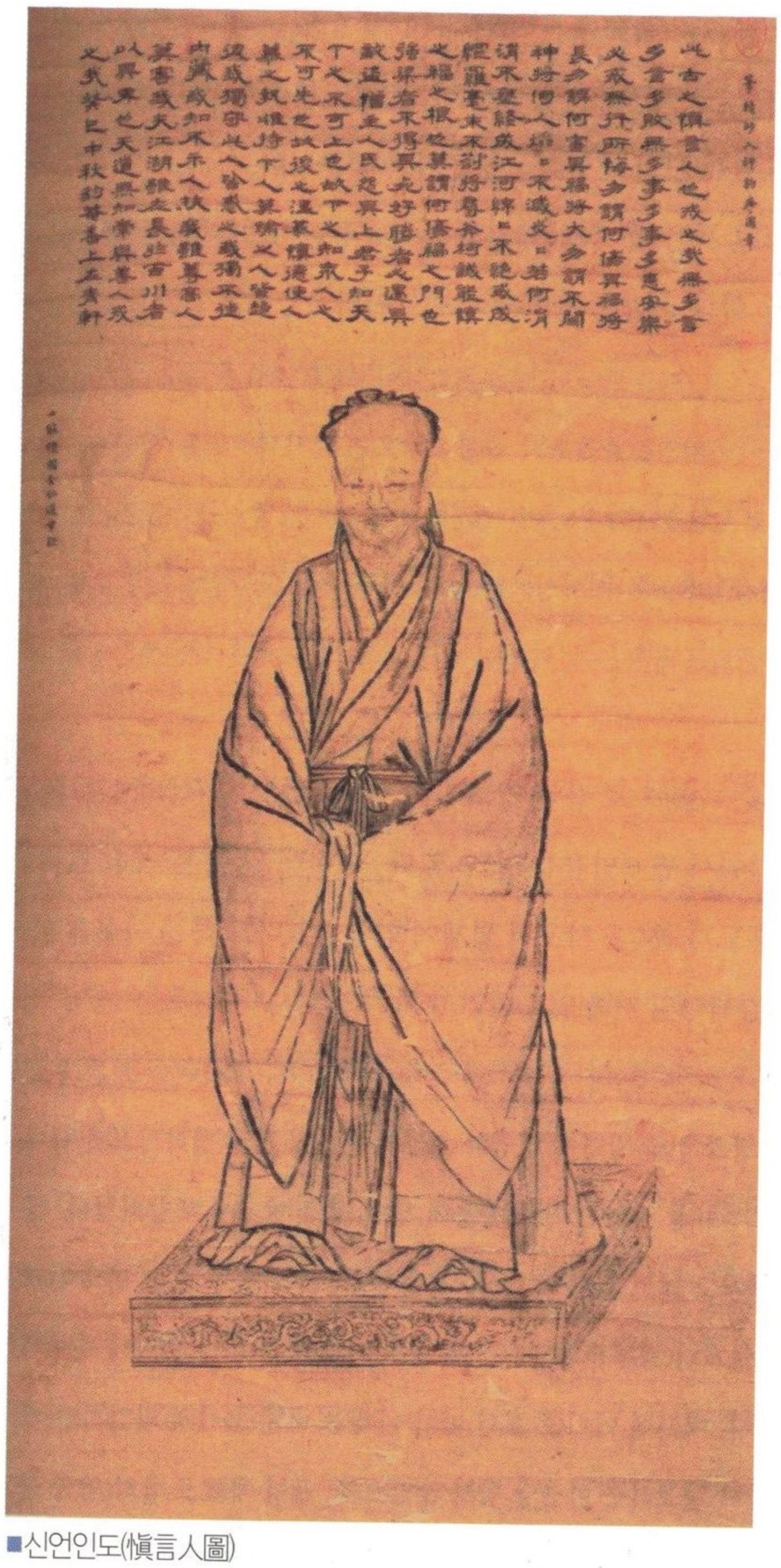
모든 하천보다 긴 것은 그것이 낮기 때문이다. 하늘의 이치는 알지 못하나 늘 착한 사람과 함께 하는 법이다. 경계할 지어다. 계사(1773) 중추(8월) 표암(豹菴)이 써서 좌청헌(左靑軒)에게 드린다.〉

이 내용은 〈공자가어(孔子家語)〉(관주(觀周)에서 유래한 말이다. 공자가 주나라 태묘(太廟)에 갔을 적에 입을 세 겹으로 봉한(三緘其口) 금인(金人; 구리로 만든 동상)을 보았는데, 그 등 뒤에 새긴 기록이 그 내용이었다고 한다.

표암은 그림 속의 주인공이 주는 신중한 이미지의 분위기에 맞게 매사에 말과 행동을 삼가도록 경계하는 잠언을 자세히 썼다. 장문의 화제 오른쪽에 긴 원형의 붉은 글씨 도장이 보이고 '필정묘입신 표암도장(筆精妙入神豹菴圖章)'이라 쓰여 있다. 이어 화제의 맨 끝 아래쪽에 '사능단원김홍도자관(士能檀園金弘道字款)'이라 쓰여져 있다.

정범조(丁範祖; 1723~1801, 호는 海左 또는 左靑軒)는 조선후기 문신으로서 시한(時翰)의 현손이자 정약용의 집안 어른(族父)이다. 특히 그는 주위로부터 문장의 재주를 인정받아 왔는데, 그를 알아본 우의정 원인손(元仁孫; 1721~1774)의 천거로 수찬이 되었다가 동부승지로 발탁되었다. 곧 영조의 왕명에 따라 〈건공가(建功歌)〉〈백운고시(百韻古詩)〉를 지어 바친 이후로 조정과 시중에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 정약용의 〈다산시문집〉(제13권, 서)에 의하면 정범조의 노령을 축하하면서, "영조 때에 독서당에 뽑혀 들어가 잠깐 사이에 천 마디 말을 지어내는데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진중(陣中)에 내닫는 말처럼 웅건하여 일세에 독보적인 존재였으니 그의 문장을 알 만하다"고 축하했다. 이어 정조연간에 와서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직을 거치고는 국왕이 문체반정(文體反正)에 주력할 때 당대 문학의 1인자로서 측근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정조 말년까지 팔순을 눈앞에둔 나이가 되도록 조정에 머물며 홍문관·예문관의 제학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문사(文詞)의 임무를 다했던 대단한 인물이었다. 정조가 죽자 행장(行狀)을 짓는 당상이 되어 만장을 썼고 이어 실록청에서 〈정종실록(正宗實錄)〉(한말 고종때 정종을 정조로 추존하였음)을 편찬할 때에도 참여했다.

비록 벼슬살이는 늦깍이였지만 인생 선배였던 표암 강세황이 제자 김홍도에게 부탁한 그림에다가 제화를 써서 직접 좌청헌 정범조에게 준 것이었다. 그러면 표암과 좌청헌은 어떤 관계였을까. 표암 자신이 영조 말년에 왕명에 의해 어진을 그리는데 참여했고, 여기에 젊은 단원도 함께 했다. 이 무렵 좌청헌(해좌노인)도 왕명으로 문장을 지었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은 함께 왕명을 받들어 한 쪽은 그림을 그리고, 다른 한 쪽은 문장을 짓는 사이였다. 좌청헌이 홍문관 제학에 임명된 것을 주위에서 칭찬하자, 그는 "우리 집은 본디 겸손하였는데 내가 받는 대우가 과분하다" 하였다. 이에 집안의 조카뻘인 정약용은 〈주역〉(건괘)의 말을 빌려 "지극히 높은 지위는 후회가 생긴다"고 하며, 공은 겸



■신언인도(愼言人圖)

손함이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까닭이라 했다. 그래서 "겸손한 군자는 낮은 데에 스스로 임한다"고 했다. 하루는 다산이 부친의 산소에 성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안 어른 해좌노인을 방문했다. 새로 지은 초당에는 복사꽃·오얏꽃·소나무·괴석들이 널려 있고, 공은 검은 두건을 쓰고 흰 옷을 입고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선인이나 처사와 같다고 했다. 공이 나(다산)에게 말하기를, "나는 맑은 세상에 초야에서 늙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 뜻이니 너는 알아 두어라"하였다.〈다산시문집〉(제14권, 청시야초당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공공의 책임은 의식하지 않고 정치적 기만설을 내뱉는 현실을 자주 목도한다. 관직을 물러나면 깨끗이 초야에서 사는 법도 알아야 하고, 말조심 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사회를 맑게 하는 풀이다.

프로젝트! 꿈지

폐교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

감만창의문화촌

남구 감만동의 한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바로 지난 11월 20일 개관한 감만창의문화촌이 바로 그곳.

옛 동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감만창의문화촌은 현재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과 공동작업장,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장, 단체 워크샵 및 각종 행사, 공연을 위한 다목적홀, 북카페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감만창의문화촌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현재 부산문화재단과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이 입주해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감만동 일대에 새로운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감만창의문화촌 본관 1층에는 갤러리를 겸한 북까페, 2층에는 멀티미디어실과 부산문학관 창작도서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문화예술교육장과 커뮤니티홀은 3층에, 작가들의 창작산실이 될 창작공간은 4층과 5층에 자리하고 있다. 개관에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1기 입주작가 공모에서는 25개 팀(개인 21, 단체 4)이 지원, 심의를 거쳐 총 15개의 팀(개인 13, 단체 2)이 선정되어 현재 29명의 대표작가와 170명의 협력 작가들이 창작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입주작가들은 시각예술을 비롯해 연극, 음악, 문학, 무용,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로, 개인 창작활동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감만창의문화촌은 우선 지역주민들과 예술가들의 소통을 통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 교육환경을 조성해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예술가들간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입주작가들의 창작공간을 개방해 예술가와 지역주민들간의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해 입주작가 중 우수작가에게는 입주기간 중 제작된 예술작품을 전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난 11월 6일에는 감만창의문화촌으로 이전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이전 후 첫 행사로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단체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축제를 펼쳤다.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지역문화예술축제 '문화예술교육 Days'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워크샵과 우수문화예술 교육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다큐멘터리 극장, 문화예술교육 라운지, 체험교실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었다. 이어서 9일과 10일 이틀간 개최된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발표회 '여기가 @꿈지(地)'에서는 올 한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수행한 문화단체와 참가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합창, 뮤지컬, 농악, K-pop 댄스, 닥종이인형, 봉제인형, 도자기 제작 등 지난 한해 진행되었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에서 익혔던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지난 11월 20일 열린 개관식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개관식이 열린 야외 운동장에는 중고 컨테이너를 이용해 부산노리단이 제작한 길이 11m, 높이 13m의 대형 에코뮤직쉽을 설치, 참석한 주민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해보기도 했다. 또, 북카페 갤러리에서는 개관전으로 동천초등학교 학생들과 부산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스탬프를 이용한 판화작품전 '동천초등학교 나'가 전시되고 있다. 전시된 작품은 지금의 감만창의문화촌이 자리한 옛 동천초등학교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인 동천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40여 명이 참여한 판화작품으로, 지난 10월 학교 미술수업 시간에 제작된 것이다.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 문의/감만창의문화촌(745-7272, gamman.busanartspace.or.kr)

■감만창의문화촌 전경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문화예술교육장

■작가들의 창작산실이 될 창작공간

'Bravo Bravo My Life' 아버지들의 열정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귀가길을 서두르던 지난 11월 18일, 초읍에 자리한 '르 보야즈 아트홀'에 들어서자 20여명의 합창단 단원들이 뿜어내는 음악적 열기가 가득하다. 매주 월요일은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 오늘도 한주간의 스트레스를 합창으로 풀어내기 위해 먼길을 달려온 단원들의 목소리에 신명이 넘쳐난다.

지난 7월 창단한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은 현재 합창단 지도를 맡고 있는 지휘자 이성훈 씨와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김정도 단장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합창단이다. 대부분 단원들이 창단 이전부터 다른 합창단 활동을 통해 오랫동안 이성훈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온 터라 창단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실력에서만큼은 자신감이 넘친다.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은 종교, 직업, 나이를 떠나 결성된 아버지 합창단으로서는 부산에서 유일하다.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과 직업을 초월해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쳤다. 단원들 대부분이 아마추어이지만, 전문 성악인들이 각 파트 트레이너를 맡아 단원들의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결성의 숨은 공로자는 바로 지휘자 이성훈 씨이다.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합창지도 교수, 한국합창연구학회 연구회원,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부산가톨릭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훈 씨는 바쁜 와중에도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활동에 열심이다. 합창단 연습공간인 '르 보야즈 아트홀' 역시 이성훈 지휘자의 개인 작업실이다.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단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연습시간 만큼은 절대 엄수할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연령, 직장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서로간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했죠."

그래서일까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은 매번 90% 이상의 출석율을 자랑한다. 오직 노래로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술잔이 오고가는 뒷풀이 모임이 없는 것도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만의 특징이다.

이제 창단한 지 6개월이 좀 넘었지만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은 7월 창단 직후부터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지난 8월 '르 보야즈 아트홀'에서 열린 '주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시작으로 환우를 위한 음악회(초읍치과), 열린음악회(어린이대공원 야외극장), 동래구 옥샘합창단 초청연주회 등 매월 한차례 이상 무대에 서오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부산지역 최고의 합창축제인 '부산합창제'에 참가, 그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오는 12월 12일에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부산MBC와 (사)문화도시네트워크가 주최하는 MBC목요음악회 무대를 겸해 열리는 무대라 공연을 앞두고 제대로 된 실력발휘를 위해 맹연습중이다.

동래구 옥샘합창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부인의 권유로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김정갑 단원.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취미생활, 관심분야가 같아져 부부관계도 돈독해졌다는 그는 퇴근 후 서로가 노래를 들려주며 함께 노래연습을 한다. "나이가 들어 무대에 못 서더라도 객석에 앉아 박수쳐줄 수 있는 단원으로 남고싶다"는 김정갑 회원. 그의 열정 만큼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이 전국에서도 노래잘하기로 이름난 합창단이 되고싶다.

몇차례 무대에 서다보니 초등학생인 딸이 자신을 성악가로 여긴다며 환한 웃음을 짓는 안재현 씨. 1년 정도를 고민하다 입단을 결심했다는 그는 요즘 왜 좀 더 빨리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까 후회할 정도로 합창단 생활이 즐겁기만 하다. 성악가를 꿈꾸었던 이찬호 씨에게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은 노래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그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무대이다. 합창단 이름인 '브라보'는 그의 작품. 첫 모임때 연습한 가요 'Bravo my life'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그는 'Bravo my life'야말로 우리시대 아버지들의 심경을 대변하는 가사라고 생각한다.

"행복한 가정의 출발은 행복한 아버지에게서 부터 출발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은 오늘도 행복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단장으로 단원들을 이끌고 있는 김정도 씨. 매주 월요일 최선을 다해 참석해 노래할 수 있는, 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될 남성이라면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 문의/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010-3954-0362,
cafe.daum.net/Bravofatherchoir)

가거라!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를 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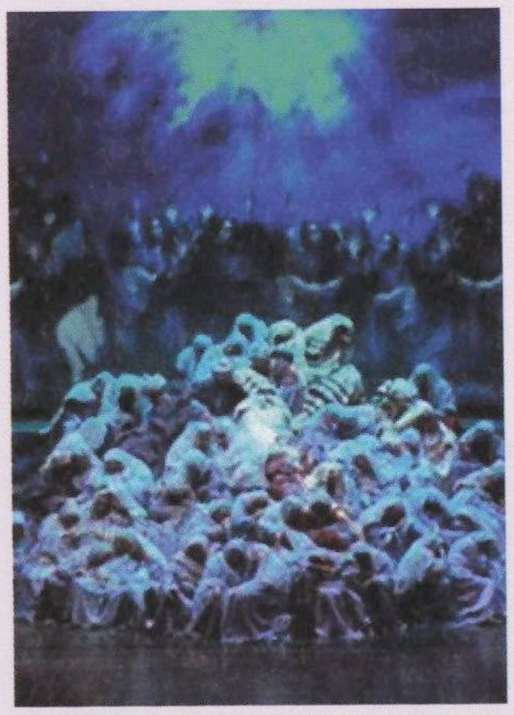
■ 하순봉_작곡가

"나의 악보와 단둘이 있노라면 내 가슴은 뛰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베르디-

솔 오페라단 주최 베르디의 나부코가 지난 11월 8일~10일 3일동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그리고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도 15일~16일 양일간 공연되었다. 올해는 베르디와 바그너 탄생 200주년이라 전 지구촌에서 이 두 작곡가의 작품이 공연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작품이 엔 솔 오페라단이 비바 베르디 기획시리즈 Ⅳ로서 이탈리아 모데나의 루치아노 파바로티 시립극장 오페라단의 주역들을 초청하여 공동으로 제작한 오페라라서 더욱 그 기대치가 높았다.

나부코는 느부갓넷살(나부코)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히브리민족을 노예로 끌고 갔으며 딸 아비가일레와 권력투쟁을 하다가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경을 내용으로 한 오페라이다. 배신, 증오, 신앙, 교만, 사랑, 질투 인간내면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오페라는 베르디의 최초의 출세작이자 이태리 국민들에겐 애국심을 일깨운 작품이기도 하다.



■ 오페라 '나부코'

베르디 오페라의 특징은 인간 내면을 깊이 추구하고 또 장엄하다. 그래서 합창이 중시되고 바리톤이나 베이스 등을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가 많다. 나부코, 리골레토, 돈 카를로 등이 그러하다. 나도 나부코의 실연은 처음이어서 정말 큰 기대를 한 공연이었다. 서곡의 조용한 금관의 시작부터 나는 왠지 숙연해 졌고 1막이 한창 진행되었을 땐 이미 나는 베르디를 만나고 있었다. 이 객석 어딘가에 당시 초연을 지켜보았을 베르디가 앉아 있는 것만 같았다. 처자식을 잃고 나락에 빠져있던 베르디가 재기한 오페라가 바로 이 나부코이다. 공연을 들으며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베르디가 눈에 선연하다. 난 걸작들을 감상할 때는 늘 작곡가가 옆에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이 날도 베르디는 내 옆에 있었고 나도 베르디의 마음이 되어 두 시간여를 감동으로 보냈다.

먼저 오케스트라가 훌륭했다. 음악 전체를 안정되게 끌고 갔다. 반주의 불안함은 사실 그간의 공연에서 자주 봐왔던 것이지만 이 날 관현악은 흠 잡을 데가 없었다. 합창도 처음 출발엔 남성이 조금 불안했는데 점점 좋아졌고 특히 주역들은 감동적이었다. 나부코에 파올로 코니, 박대용, 아비가일레에 에바 골래미, 안젤라 니콜리, 김유섬, 자카리아에 크리스티안 파라벨리, 유형광, 이스마엘에 김지호 등 무엇보다 우리 부산의 성악가들이 대등한 실력으로 전혀 치우치지 않은 무대를 보여준 점이 고무적이었다. 특히 김유섬은 오페라 전체를 압도하는 연기력과 노래로 단연 존재감이 돋보였다. 한마디로 이 날의 공연은 감동적이었고 완성도가 높은 최상의 공연이었다. 솔오페라단은 이번 공연에서 제대로 된 상품은 결코 관객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정통적인 공략법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런 섭외력과 기획력에 다시 번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젠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페라단으로서 세계로 나아가는 오페라단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꽃보다 할배, 세대간 소통의 상징

■ 남인용_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tvN의 배낭여행프로젝트 '꽃보다 할배'는 70세 이상의 할배인 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이 짐꾼 이서진과 함께 유럽과 대만을 여행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1박 2일의 나영석 PD가 제작을 맡아 제작과정에서부터 기대를 한껏 모으더니 정규 편성 12회에다 삭제되었던 촬영장면을 활용한 디렉터스 컷으로 2회를 더해서 총 14부작으로 방송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9월 13일 방송된 11부는 6.5%의 시청률을 기록, 웬만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능가했다.

'꽃보다 할배'는 간접광고(PPL)의 효과도 입증했다. '꽃보다 할배'에서 햇반은 필수 식품으로 등장했고, 꽃할배들과 이서진은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이용해서 여행 내내 온갖 성능을 실연했다. 중앙북스에서 발행된 '프렌즈 타이완', 시공사에서 발행된 '저스트 고 프랑스'는 간접광고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프랑스나 스위스, 타이완의 여행 명소들도 간접광고 또는 장소마케팅의 성과를 거뒀다. 프로그램 중간에 간접광고로 나왔던 아이시스 8.0은 프로그램 말미의 협찬 메시지에서 반복 활용되었다.

꽃할배들은 광고모델로도 성공했다. 꽃할배들은 경동보일러 광고와 엘지 유플러스 광고에 단체로 등장해서 성공을 보여주었고, 소셜 커머스 업체 위메트의 코믹 광고에 이서진과 이승기가 출연해서 '싸다'를 외치며 관심을 끌었다. 유명인들이 광고에 함께 등장할 경우 광고모델들 사이의 연계성이 중요해지는데, 할배들은 '꽃보다 할배'에서와 같은 이미지로 등장해서 광고효과를 높였으며, 이서진과 이승기는 짐꾼으로서의 공통된 이미지가 있기에 동반 출연이 가능했다. 이승기는 후속편 '꽃보다 누나'에서 '꽃보다 할배'에서 이서진이 맡았던 짐꾼 역할을 맡았다. 꽃보다 할배의 성공으로 후속편으로 기획된 '꽃보다 누나'는 윤여정, 김자옥, 김희애, 이미연이 이승기와 함께 동유럽의 크로아티아를 여행했다.

■ tvN '꽃보다 할배'

'꽃보다 할배'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기성 세대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꽃보다 할배'에 나오는 네 명의 할배는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 할배들은 왜 서로 대화하지 않을까? 나이에 따른 서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상명하복만 있을 뿐 자유로운 대화는 상상할 수 없으며, 우리의 할배들은 그렇게 8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꽃할배들은 나이에 따라 명확한 서열 구조를 갖고 맏이 이순재의 리더십, 둘째 신구의 유순함, 셋째 박근형의 자기 주장, 막내 백일섭의 어리광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 할배들은 딸 또는 손녀같은 존재, 소녀시대의 써니가 등장하자 말문이 트이고 행복해 했다. 써니에 가려 존재감이 흐려지기는 했지만 이서진도 각 할배들과 소통하며 여행 전반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대화없는 할배들은 이서진과 써니의 윤활유 역할을 통해서 공감대를 넓혀갔다. 세상살이의 경험은 경우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도 경험의 중요성이 달라진다.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경험이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난생 처음 하는 일이 기회일 수도 있다. 신구의 조화가 관건이다. '꽃보다 할배'가 상징하듯, 세대간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사회 갈등의 치유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선비들의 기상이 넘치는

지리산 청정골 산청

■ 성철스님 생가에 자리한 사찰 겁외사

입동(立冬)을 하루 넘긴 지난 11월 8일,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와는 다르게 포근한 날씨 속에 92번째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1월 테마여행지는 선비들의 기상이 넘치는 지리산 청정골 산청. 마침 한반도를 울긋불긋 수놓은 단풍도 막바지라 늦가을 정취 속으로 떠나는 여행에 정기회원 가족들의 설렘도 더욱 커졌다. 이번 산청 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정진희, 김태훈 씨가 동행했다.

2시간 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삼우당 문익점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목화를 재배한 목면시배유지(木棉始培遺址). 고려 공민왕 때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붓대에 목화씨를 숨기고 들어왔던 문익점 선생은 그의 고향인 이 곳 단성면 사월리에서 그의 장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 재배에 성공, 우리나라 의복 역사상 일대 혁명이라는 목면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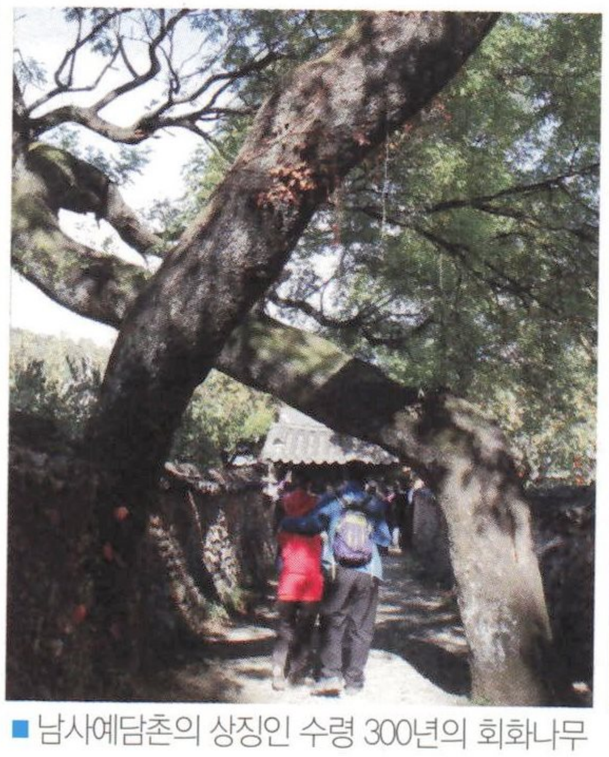
"방직기 개발로 첫 사업을 시작했던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 도요타자동차의 출발점 역시 문익점 선생의 목화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부를 축적했던 도요타자동차 창업주와는 달리 문익점 선생은 백성들을 위해 조건없이 목화를 보급시키면서 사람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죠."

현재 이곳에는 면화의 재배과정을 알려주는 면화전시관과 면화시배사적비, 그리고 문익점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부민각과 선생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비각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전시관 주변에는 현재도 문익점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목화를 재배하고 있다. 철지난 계절에도 여기저기 하얀 솜을 두른 목화에 회원가족들의 셔터 누르는 손길이 분주하다.

이어 달려간 곳은 같은 단성면에 자리한 성철대종사 생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법어로 유명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승인 성철스님이 출가 전 살았던 생가를 복원한 곳으로, 유품전시관과 함께 사찰 겁외사(劫外寺)가 들어서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이라는 의미의 겁외사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성철스님의 수행자적 의지가 담긴 이름이다. 석가모니 부처와 성철대종사의 진영이 걸린 대웅전 외벽에는 성철스님의 출가에서부터 수행, 설법, 다비식까지 스님의 일생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어 철저한 수행과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성철스님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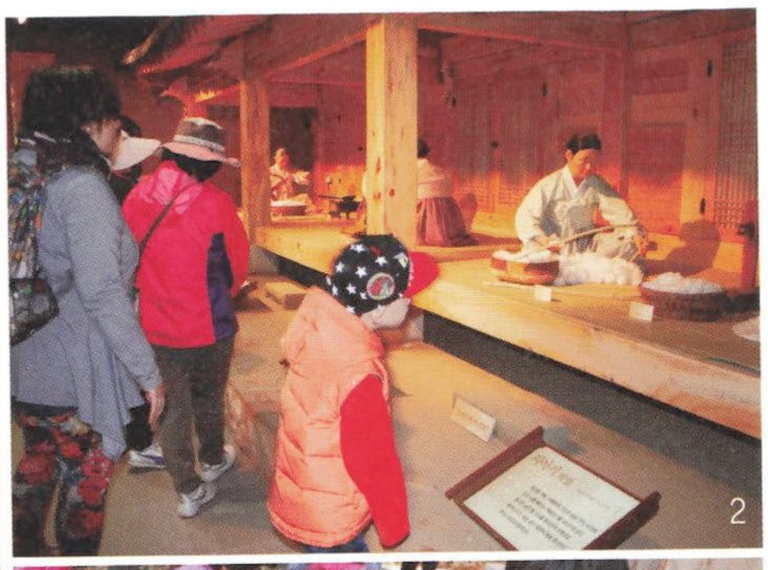
산청의 별미로 이름난 추어탕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회원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안동 하회마을과 더불어 경상도의 대표적인 전통한옥마을로 유명한 남사예담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씨, 이씨, 정씨, 최씨, 하씨, 강씨 등이 집성촌을 이룬 남사예담촌은 수많은 선비들이 가문을 빛



■ 남사예담촌의 상징인 수령 300년의 회화나무

■ 아름다운 돌담길을 따라 고택과 고목들이 자리하고 있는 남사예담촌



■ 1.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정진희 씨와 함께한 우리춤 체조
2. 면화의 재배과정을 알려주는 면화전시관
3. 회화나무 씨앗을 이용한 염색체험

1월에는 고령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테마여행게시판
마감 12월 16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 11월 당첨자

● 엽서신청자

고정화(연제구 연산동)
김경희(부산진구 연지동)
김미영(서구 아미동)
김민수(동래구 명륜동)
박동희(연제구 거제1동)
박현정(연제구 고분로)
이은정(부국 덕천1동)
정기모(기장군 기장읍)
최지은(동래구 명륜동)
황선희(사하구 당리동)

● 신규가입자

김말자(연제구 연산9동)
김윤미(금정구 남산동)
김태현(해운대구 우1동)
박정수(북구 만덕3동)
유진희(남구 용호동)
윤다은(남구 대연동)
전명희(사상구 괘법동)
정두영(금정구 구서2동)
진성현(북구 만덕동)
황지현(연제구 연산6동)

내던 학문의 고장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강의 지명을 공자의 고향인 곽부의 니구산(尼丘山)과 사수(泗水)로 명명할 만큼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하는 마을로 유명하다. 옛 지명이 반달 모양 모래 벌판 마을이라는 이름의 사월(沙月)이라 불렸으며, 강의 남쪽에 위치해 남사월이라 불려지다가 남사(南沙)라는 이름이 부쳐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선정된 '남사예담촌'은 3.2㎞에 이르는 아름다운 돌담길을 따라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고택과 고목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연일 정씨 문중 고가인 사양정사를 시작으로 복을 기원하는 한쌍의 거북이 형상의 대문 시건장치가 인상적인 최씨고가, 그리고 남사예담촌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인 이씨고가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오래된 마을의 역사처럼 이곳에서는 나무도 하나의 역사다. 서양정사 앞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가 아직도 관람객을 맞고 있다. 특히 이씨고가 앞에는 남사예담촌의 상징이 되어버린 수령 300년의 회화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이 나무는 'X'자로 마치 부부가 껴안은 형상이라 '부부 나무'라고도 불리는데, 부부가 이 나무 아래로 손잡고 통과하면 백년해로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부부끼리 혹은 모녀끼리, 또는 친구끼리 너도나도 손을 잡고 나무 아래를 통과하는 회원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만발하다. 이씨고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입구 왼편에 또 한 그루의 회화 나무가 서 있다. 수령 400여 년의 이 나무는 '삼신 할머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 중앙에 뚫린 구멍에 손을 넣으면 소원하는 아이가 생긴다고 한다. 권권숙 해설사가 풀어내는 고택에 얽힌 재미나는 해설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이어지는 순서는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의 만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인 정진희 씨의 지도로 우리 전통춤의 춤사위를 응용한 우리춤 체조를 배웠다. 어색하기만 하던 동작도 몇 번 반복하자 어느새 춤사위에 흥이 묻어나온다.

이번 테마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회화나무 씨앗을 이용한 염색체험과 곶감만들기 체험. 처마 밑 대청마루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감깎기에 나선 회원가족들은 인심좋은 집주인이 내놓은 달콤한 홍시에 감 깎느랴 홍시 먹느랴 손길이 분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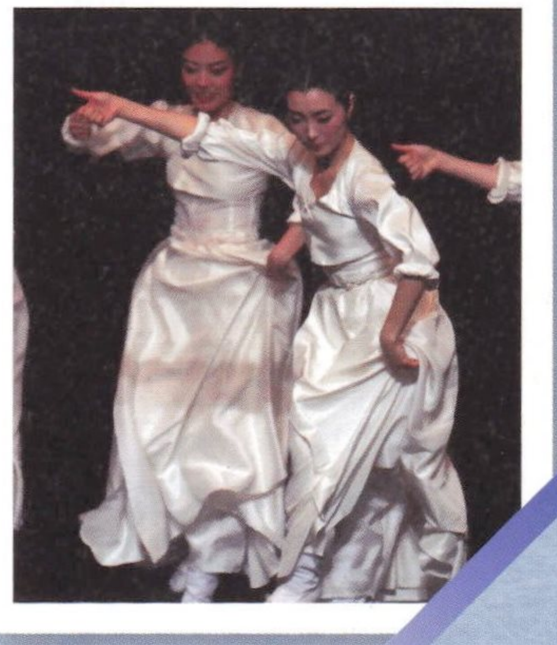
아쉬움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역사, 문화와 함께 했던 산청 테마여행은 늦가을 아름다운 단풍만큼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Culture Life

38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46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58 New Music
59 New Book
60 Special Movi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12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단장 박강우(010-2553-0737)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부산닥터스클라리넷 앙상블의 제8회 정기연주회.
부산닥터스클라리넷 앙상블은 2007년 10월 창단 이래 매주 1회 합주 모임을 가지면서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병원 입원 환우,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음악회 등을 열어왔다.

▶프로그램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레미제라블 모음곡, 성조기여 영원하라, 스텐 바이 미 등 수곡
· 지휘/김태훈
· 특별출연/바이올린 김운원(해운대 백병원 외과 교수)
메디코러스(부산시의사회 합창단)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31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12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UKO(626-8084, 010-5540-1538)

금난새 문주연 Evgeny Izotov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고 있는 민간 자선오케스트라 UKO(United Korean Orchestra)가 선사하는 '사랑 나눔 음악회'.
순수한 음악활동을 통해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온 UKO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약 160명의 어린이를 위하여 음악회 수익금 약 3억 9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금난새가 지휘하고 깊이있는 해석과 견고한 음색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문주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2012년 해외파견 콩쿠르 2위에 입상한 실력파 색소포니스트 송동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신라대학교 교수 예브게니 이조토프가 사랑의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로시니/'세미라미데' 서곡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모리코네/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피아졸라/리베르탱고(김지영 편곡)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 18
하차투리안/'가면 무도회' 모음곡
· 지휘/금난새
· 바이올린/문주연 · 색소폰/송동건
· 피아노/예브게니 이조토프

부산YWCA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12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여진경(010-5628-8232)
장명순(010-4618-1637)

1973년 못골합창단으로 출발,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YWCA합창단의 제14회 정기연주회.
제2회 부산세계합창올림픽 본선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는 부산YWCA합창단은 그동안 일본 KBC 방송국 초청 후쿠오카 공연, 뉴욕 한인 YWCA 초청연주회, 미국 복음방송 초청연주회, 일본 오사카 YWCA 초청연주회, 결혼 이민 여성과 함께하는 Sing Sing 아리랑 가을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Opening/Harmony Song
이현철/시편 145편
이국현/놀라운 주의 솜씨
이수인/그리움
황철익/새 몽금포 타령
캐롤송/Silver Bells, O Holy Night 등 수곡
· 지휘/김성규(경성대학교 교수)
· 찬조출연/테너 조윤환
· 초청 연주/부산YWCA브라스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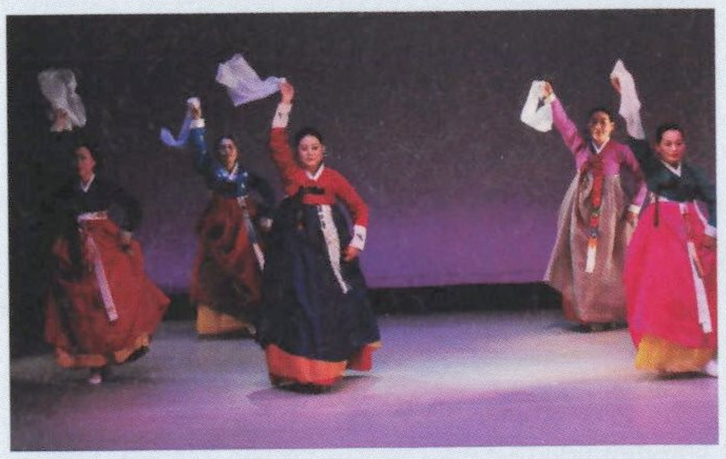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제35회 합창정기연주회
오라토리오의 향연

12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고신대학교(990-2231)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재학생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하이든 천지창조, 멘델스존 엘리야, 헨델 메시아를 들려준다.
· 지휘/김정일
· 소프라노/김나영, 우선애
· 메조소프라노/이미경
· 테너/조윤환, 조동훈, 송승민
· 바리톤/허종영 · 베이스 바리톤/양재원

부산시립무용단 2013 풍류(風流) 8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12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전통무용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준 풍류(風流) 8기 수강생들과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
일주일간의 시민무용교실 강습 수료 이후 15주간 주 2회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풍류'는 그동안 150여명의 시민 전문 무용인들을 배출했다.
이번 '풍류(風流)' 8기는 9월부터 3개월간 수련한 생살풀이와 진도북춤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생살풀이(출연/류혜숙, 이경선, 하순연)
진도북춤(출연/이명희, 이채영, 최현숙)

생살풀이(출연/김기련, 박진숙, 조여진)
부채산조(특별출연/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수잔)
생살풀이(출연/김진선, 박길선, 신영숙, 전성숙)
진도북춤(출연/박순희, 임연금, 조공심)
생살풀이(출연/감성희)
장고춤(특별출연/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양해인)
· 예술감독/홍경희(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무용지도/김주령, 오수연

세계의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Concerto Festival 11

몰도바 국립 방송교향악단 부산연주회

12월 4일 수요일, 8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주)프로아트(02-585-2934~6, www.pro-art.co.kr)

프로아트에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세계의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Concerto Festival'의 열 한번째 '몰도바 국립 방송교향악단' 부산연주회.
1989년 창단된 몰도바 국립 방송교향악단 단원들은 몰도바의 수도인 Chisinau의 예술대학교 'G.Musicescu'와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콘서바토리,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림스키-코르사코프 콘서바토리, 오데사와 르보프의 콘서바토리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Music University of Oradea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유럽 최고의 지휘자 로메오 림부(Romeo Rimbu)의 통찰력 있는 리더십과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으로 몰다비안 특유의 서정성 짙은 연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브람스/헝가리안 댄스 제1번, 5번
마스카니/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3번 다단조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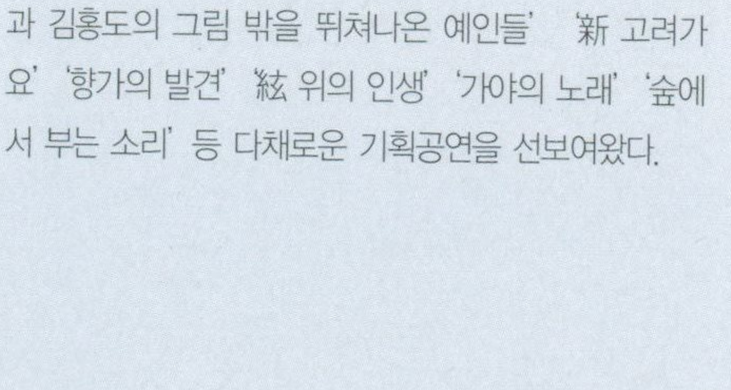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설립 30주년 기념공연

12월 5일-6일 목-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대학교 무용학과(517-0906)

1983년 부산지역의 우수한 무용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대학교 무용학과의 설립 30주년 기념공연 특별 무대.
5일에는 부산대학교 무용학과가 배출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우수 무용인들의 창작 무대, 6일에는 무용학과장 주수광 교수를 비롯해 한국무용 이윤자 교수, 강미리 교수, 발레 민병수 교수, 현대무용 정귀인 교수, 박은화 교수의 작품들이 무대에 오른다.

젊은 국악 프로젝트 '아! 부산이여'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창작국악단 젊은풍류(010-6708-8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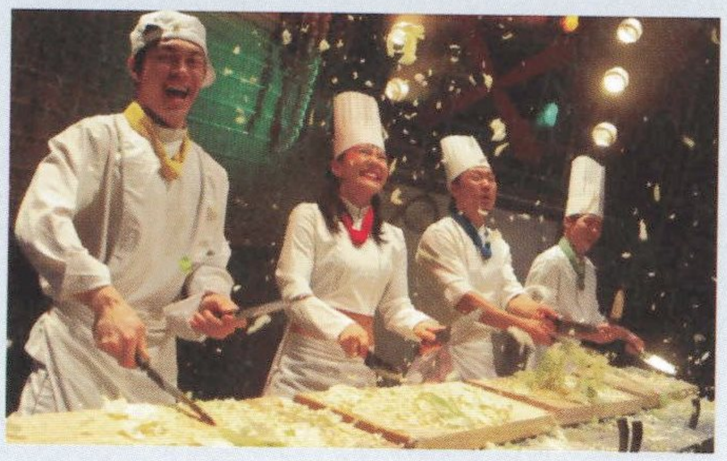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예술활동 및 국악교육 활동을 펼쳐온 창작국악단 젊은풍류의 젊은 국악 프로젝트 '아! 부산이여'.
전통음악, 서양음악, 춤 등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가들이 부산의 전설과 설화를 모티브로 음악과 춤, 노래로 각색한 '아! 부산이여'는 금정산 고모당 설화, 영도 장사바위 전설, 태종대 망부석 설화, 개금동 가야금 신선이야기, 만덕사지 유배된 왕자이야기, 정과정곡 등 흥미로운 부산의 이야기를 젊은 감성으로 재구성한 무대이다.
2008년 창단된 창작국악단 젊은풍류는 그동안 '신윤복과 김홍도의 그림 밖을 뛰쳐나온 예인들' '新 고려가요' '향가의 발견' '絃 위의 인생' '가야의 노래' '숲에서 부는 소리' 등 다채로운 기획공연을 선보여왔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넌버벌 퍼포먼스 오리지널 〈난타〉 부산공연

12월 7일-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주)오늘커뮤니케이션(1599-8879)



세계가 인정한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 난타 오리지널 공연 부산무대.
1997년 10월 초연 후, 매 공연마다 매진행렬을 계속하고 있는 난타는 현재까지 한국 공연 사상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수립한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서울의 전용관에서 연중 상설공연 중이다. 1999년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으며 해외 무대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난타는 2004년 2월, 아시아공연물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성공적으로 진출, 한국 공연계의 큰 획을 그었다.

인코리안아카데믹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12월 7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인코리안 아카데믹오케스트라 (010-4842-6688)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육과 운영을 맡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인코리안아카데믹오케스트라는 2001년 부산아마추어스트링스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출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라
발트토이펠/스케이트 왈츠
베토벤/제7번 교향곡 등 수곡
· 지휘/김용문

소프라노 윤지영 독창회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윤지영(010-5165-3744)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Biennio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윤지영 독창회.
윤지영은 유학 중 이태리 국제콩쿠르 'Giovani Talenti' 1위 'Porana Lirica' 1위 'Luisi Stramesi' 1위, 'Gian Battista Viotti' 특별상 'Lignano Sabbiadoro' 3위에 입상하고 오페라 '투란도트' '박쥐' '아이다' '카르멘' '라보엠' '까발레리아 루스띠까나' '돈 죠반니 등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했다.

▶프로그램

스카를라티/태양은 이미 갠지스 강물위에
드볼작/집시의 노래
비제/목가, 스페인 세레나데
베토벤/오페라 '피델리오' 중 '잔혹한 이여, 당신은 어디로 서둘러 가느냐?' 등 수곡

극단 하늘개인날 정기공연 '미운 남자'

12월 10일-12일 화-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하늘개인날(010-9495-4730)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2회 수상의 영광을 안은 바 있는 극단 하늘개인날 정기공연 '미운 남자'.
실직 5년차 남편 달석과 중학교 과학교사인 아내 희정의 알콩 달콩 결혼 생활을 그린 '미운남자'는 해바라기 같은 사랑을 하며 결혼에 성공했지만 차츰 소원해지는 달석과 희정이 여행을 통해 이해와 믿음이라는 큰 교훈을 배워가는 보통 부부의 모습을 재미있게 풀어낸다.

· 작/김광탁
· 연출/곽종필(극단 하늘개인날 대표)
· 예술감독/이정허
· 기획/조용황. 손명윤
· 출연/아내 김지영, 남편 박상규, 남자 다역 김광민

2013 부산문화 송년 콘서트
그리움을 아는자 만이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7천원 · S석 6만6천원
A석 5만5천원 · B석 4만4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화 예매시 1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1600-1803)

클래식 전문기획사로 1년간 다양한 무대를 열어온 부산문화가 선사하는 2013 송년 콘서트.
잃어버린 우산의 주인공 우순실, 가요계의 음유시인 정태춘, 박은옥, 7080의 호소력 있는 가창력의 소유자 유가화, 동행, 해후, 남남, 풀잎사랑의 가수 최성수 등이 출연, 2013년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송년 무대를 열어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5회 정기연주회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I
부산MBC 창사 54주년 기념
2013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12월 12일-13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13년 고전음악의 교과서 베토벤의 웅장한 교향곡의 세계를 재조명해본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마지막 무대로 마련하는 2013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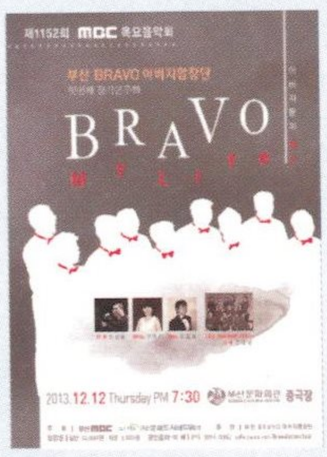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 샨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큐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합동연주, 부산시립합창단, 경산시립합창단의 웅장한 하모니로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합창 전곡을 들려준다.
베토벤(1770~1827)이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무렵인 1824년 완성된 '합창'은 교향곡으로는 처음으로 성악을 기악과 같은 비중으로 도입한 곡이다.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9번 '합창'
· 지휘/리 신차오
· 소프라노/오미선 · 메조소프라노/강희영
· 테너/하석배 · 베이스/함석헌
· 오케스트라/부산시립교향악단, 샨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큐슈 심포니 오케스트라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경산시립합창단

제1152회 MBC목요음악회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첫 번째 정기연주회
Bravo my life 아버지들의 열정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010-3954-0362,
cafe.daum.net/Bravofatherchoir)



2013년 나이와 직업, 종교가 모두 다른 보통 아버지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의 첫 번째 정기연주회.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즐거운 합창을 통해서 치유하고 있는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은 세계 유명가곡과 오페라 합창, 우리 가곡과 민요, 가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함께 노래 부르며 어둡고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며 음악을 통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이탈리아 Novara 국립음악원, Academia

Europea(합창지휘 Diploma)를 졸업하고 국립합창단 부 지휘자를 역임한 이성훈이 지휘한다.

▶프로그램

함께 하는 기쁨/손을 잡고 걸어요, 산촌 뱃노래
L&S Handbell Choir/Memory, 크리스마스 장난감 상자
꿈꾸는 노래/입영전야, 뚱보새(곡중 solo 정희석)
신명난 아버지/한계령, 중화반점, 미남이다 등 수곡

· 지휘/이성훈 · 피아노/구화진
· 특별출연/베이스 강호성, L&S Handbell cho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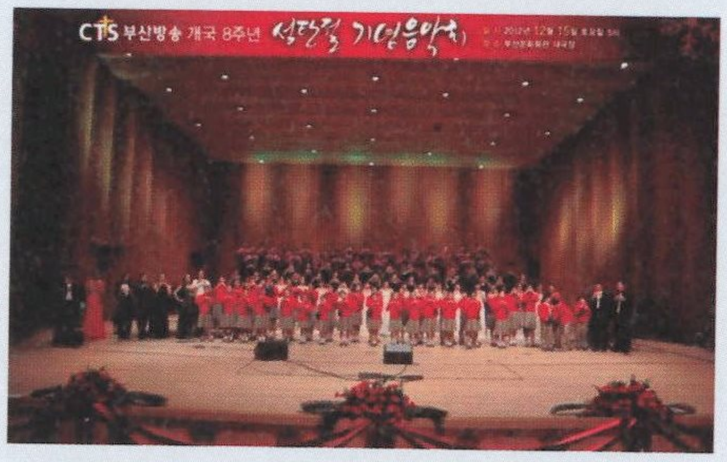
노엘합창단 제3회 한국청소년합창축제
우리 반이 최고야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숭인문화재단(010-8496-0691)

학급별 경연대회를 치르는 전국 유일의 학생합창축제 숭인문화재단의 한국청소년합창축제 '우리 반이 최고야'. 2011년 노엘합창단의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첫 해 축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의 부산여상 해연합창단을 비롯한 전국 5개 중고등학교 합창단을 초청해서 축제를 열었으며, 지난 해부터는 부산지역의 중고등학교 학급대항 합창경연대회로 '우리 반이 최고야'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남구의 해연중(3-6)을 비롯한 부산의 총 15개 학급이 참여하여, 즐거운 합창축제를 펼친다.

CTS부산방송 개국9주년 기념 성탄음악회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CTS부산방송(784-9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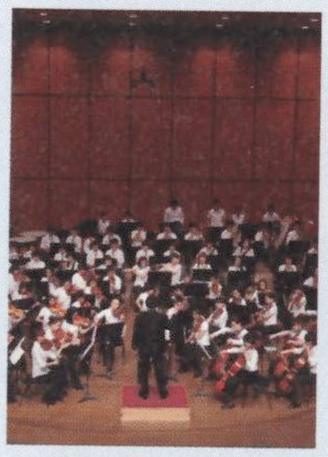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부산지역에 건강한 기독 문화공연의 폭을 넓히고자 진행되는 이번 성탄음악회는 지난해 창단된 CTS부산방송 4개 합창단인 소년소녀합창단(지휘/나준영), 남성합창단(지휘/최형태), 권사합창단(지휘/나준영), 여성합창단(지휘/김철수)이 메인게스트로 출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사랑의 왕' 등 10여곡의 성가를 들려준다.

· 특별출연/색소포니스트 강진홍, 해피앙상블
· 진행/CTS부산방송 김지숙 아나운서

UKYO(United Korean Youth Orchestra)
제8회 정기연주회
밝은 미래, 나눔을 함께하는 음악회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UKYO(010-5540-1538)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2010년 8월에 창단된 순수 민간 청소년 자선 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Youth Orchestra의 정기연주회.
부산, 경남지역에 재학중인 초 · 중 · 고 · 대학생이 매년 2~3회의 자선음악회에 참가, 음악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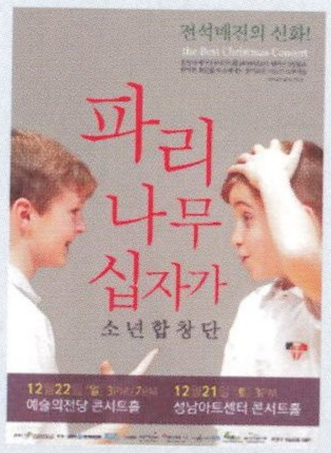
▶프로그램

모차르트/'마술피리' 서곡 작품 620
조지 거슈윈/'파리의 아메리카인' 모음곡
슈타미츠/플루트 협주곡
뢰베/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메들리
레스피기/교향시 '로마의 소나무' 작품 141 중 제4악장
'아피아 가도의 소나무' 등 수곡

· 지휘/이재복(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
· 플루트/김승윤(동성초2년)
· 팀파니/전영수(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2013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특별초청공연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7천원 · S석 6만6천원
A석 5만5천원
문 의 |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보이 소프라노의 진수!' '천상의 하모니! 천사들이 전하는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소년 아카펠라 합창단인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의 부산연주회.
2011년 새로 부임한 지휘자 끌로띨드 세베르(Clotilde Sebert)의 지휘 아래 더욱 매력적인 앙상블을 선사하고 있는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1907년 창단 이래, 완벽한 화음으로 세계최고의 명성을 이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보이 소프라노의 진수를 보여주는 모차르트 '자장가 (Berceuse de Mozart)', 독일시인 괴테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슈베르트 '붉은 장미 (La Rose rouge)', 파우스트로 유명한 샤를 구노 '아베마리아 (Ave Maria)' 등 클래식 명곡과 대중의 사랑을 받는 '넬라 판타지아 (Nella Fantasia)', 크리스마스 캐럴, 뮤지컬 영화 OST 등으로 천상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박현정 클래스 연주회 '에꼴 송년음악회'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현정(010-3861-8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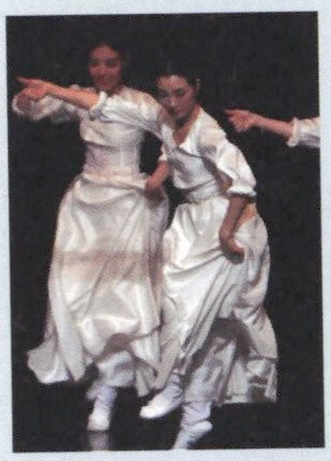
파리 에꼴노르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경성대, 동의대 외래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박현정과 한국 예종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이기묘의 연주, 에꼴 음

악학원생들의 솔로 및 듀오연주, 캐롤송 등 우리 귀에 익은 영화음악, 캐롤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 출연/박현정, 이기묘, 외 클래스 학생들(성원정, 박준영, 김민재, 윤서윤, 이민서, 이준희 외 다수)

춤패 배김새 제22회 정기공연
춤패 배김새 대마도 조선통신사 교류 20주년 '물길'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춤패 배김새(010-2445-9839)



대마도와 조선통신사 교류 20주년을 맞은 춤패 배김새가 지난 20년간 교류 발자취를 되새겨 보는 대마도 조선통신사 교류 20주년 '물길'. 언젠가부터 열렸던 그 소통의 물길을 따라 또 다른 오늘의 물길로 소통하는 의미를 담은 작품 '물길'과 20년간의 교류 역사와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니이 타카오 작가의 사진전이 함께 열린다.

· 안무/하연화(춤패 배김새 대표), 손미란(춤패 배김새 총무)
· 지도훈련/한수정
· 출연/정미숙, 하연화, 손미란, 김정원, 정현주, 이규화, 김지선, 김민지a, 서수정, 김민지b, 심소민, 장서윤, 김가영, 최송이, 박예술
· 특별출연/쇼노 신쥬로, 니이 하루코
· 사진/니이 타카오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제18회 정기연주회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태훈(010-7543-0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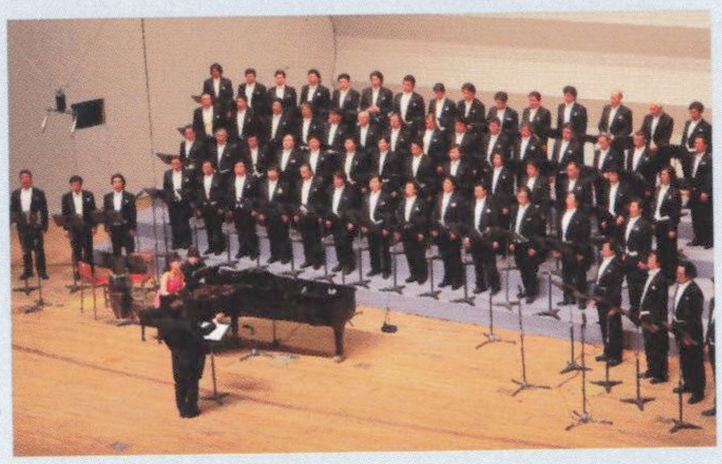
실내악의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6년 '엘랑 클라리넷 사중주단(Elan Clarinet Quartet)'으로 출발한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제18회 정기연주회.
그동안 200여회의 정기, 특별연주를 가져온 부산클라리넷콰르텟은 2012년 미국 앨라바마 주립 트로이대학 초청연주회를 가진데 이어 헝가리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수석인 세계적인 클라리넷연주자 Varga Gabor과의 협연으로 갈채를 받기도 했다.

▶프로그램
피아졸라/Four for Tango
할러웨이/Varitions on Colonel Bogey
단찌/Concert Piece No.2 등 수곡

· 출연/리더 김태훈, 2nd Clarinet 권병옥, 3rd Clarinet 강경한, Bass Clarinet 이성관
· 특별출연/송호섭(전, 충남교향악단 수석)

2013 부산솔리스트앙상블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부산일보 문화사업국(461-4436~8)



부산과 경남의 성악계를 대표하는 정상급 남성 성악가 70여명이 매년 12월 1년에 단 한 번, 한 무대에 서는 대규모 합창 공연 부산솔리스트 앙상블 2013년 무대.
부산솔리스트앙상블 회장 함도관(동의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해 테너 김동국, 강학윤, 김지호, 김동윤, 김철수, 김정호, 노주하, 김화정 등 36명, 베이스 강재석, 강재권, 고영호, 권영기, 고정현, 권영준, 김길수, 김경학 등 36명, 총 73명의 남성성악가들이 출연, 가곡, 오페라합창곡, 성가, 민요 등의 레퍼토리를 남성특유의 웅장한 하모니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성가곡 및 가곡/Gloria in Excelsis Deo, You raise me up, 그대 곁으로, 얼굴, 동심초
오페라/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수곡

· 지휘/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김철호 김혜란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 해를 맞이하는 송년의 길목, 흥겨운 우리 문화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수석지휘자 김철호의 지휘로 우리 음악의 참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다이나믹하고 생동감 넘치는 명인, 명창들과 함께 송년의 아쉬움을 나누는 흥겹고 신명나는 무대를 펼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후보 김혜란 명창과 경기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김보연,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8호 재담소리 이수자 김혜영, 전주대사습놀이 장원 수상자 강해림 등 (사)우리음악연구회 회원들과 가야금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파가야금연주단(단장/장혜숙)이 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이준호/우리비나리
일파가야금합주단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편곡/백규진)/노팅힐, 태양은 가득히, 해를 품은 달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민요와 캐롤/춤추는 춘향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코
흥겨운 민요 한마당/노랫가락, 사랑타령
강봉천/국악관현악을 위한 타악협주곡 '회오리'(2013년 위촉곡) 등 수곡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김혜란, 김보연, 김혜영, 강해림, 유은지, 유현지, 일파가야금연주단(장경미, 박은영, 최수종, 하주현, 김명선, 김지우, 채미경, 김경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제10회 글로리콰이어 가족음악회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글로리콰이어(010-8544-4702)

1982년 6월 창단 이래 풍부한 음색과 음향, 변화무쌍한 리듬을 자유자재로 구사해온 글로리콰이어가 청소년 범죄예방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우리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열어온 가족음악회 열 번째 무대.

이번 무대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로 나의 아들과 딸,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가족, 친구, 연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와 추억으로 구성한 음악회로 진행하고 공연수익금은 불우이웃들에게 기탁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및 제140회 정기연주회 'Happy Christmas'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전상철 배정행

창단 40주년을 맞아 2013년 한해 동안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창단 40주년 기념 제140회 정기연주회 'Happy Christmas'.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출신 OB합창단과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가 특별 출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호흡을 맞춘다. OB합창단은 2대 수석지휘자로 활동한 배정행이 지휘자로, 소년소녀합창단 반주자로 활동했던 경성대학교 최윤희 교수가 반주자로 참여해 창단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연말 연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비롯해 흥겨운 금관5중주곡, 박봉렬, 신진수 등 부산작곡가들 창작동요, 흥부전을 각색한 박수경 편곡의 흥부와 놀부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박지훈/Merry Christmas in Love-Merry Christmas in Love, 징글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사랑의 밤, 썰매타기
박봉렬/오륙도
신진수/마음이 이슬처럼
슈만/유랑의 무리
박수경(편곡)/흥부와 놀부-흥부와 놀부, 신세 한탄, 흥부 박타령, 놀부 랩소디, 놀부 박타령, 놀부의 뉘우침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 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특별출연/북구소년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철수, 피아노/고지혜), 부산시립소년소녀 OB합창단(지휘/배정행, 피아노/최윤희),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부산시립극단 2013 특별기획공연 '격정천리'

12월 21일-25일 평일,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공휴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단체 20명이상 20% 할인, 학생 단체 5천원, 국가유공자 및 60세 이상 무료)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

2013년 '어메 게사니' '언챙이곡마단'으로 우리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해온 부산시립극단이 2013년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특별기획공연 퓨전 스토리콘서트 '격정천리'.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컨셉으로 기획된 '격정천리'는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별, 힘든 피난살이를 지탱해 주는 가족의 힘,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예기치 않은 사고와 그로 인한 또 다른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전쟁의 참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 예술감독, 연출/문석봉
· 극본, 연출/오리라

출연

이돈희, 정행심, 이현주, 김은희, 염지선, 이혁우, 황창기,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주은실, 전지은, 이수아, 김보경, 김성열, 신승우, 이재찬, 이효심, 임신효, 정인옥

부산멜로스 오케스트라 첼로앙상블 연주회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멜로스오케스트라(010-6432-0821)

음악전공자와 비전공자로 결성된 부산멜로스 오케스트라의 첼로단원 5명으로 구성된 멜로스오케스트라 첼로앙상블(리더 한학수)의 첫 연주회로 바로크와 고전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하이든/신포니아 제49번
파헬벨/케논 변주곡
비발디/합주협주곡 작품3 제11번

국제신문 송년특별음악회 오늘같은 밤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 의 | 국제신문 문화사업국(500-5222)

박완규 장미여관

최근 가요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부산출신 밴드 '장미여관'과 중저음에서 초고음 음역대를 넘나드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락커 박완규의 특별한 만남 오늘같은 밤.

2011년 EP 앨범 '너 그러다 장가 못간다'를 발표하며 대중들과 만나온 장미여관은 강준우(기타, 보컬), 육중

완(기타, 보컬), 임경섭(드럼), 윤장현(베이스), 배상재(일렉기타)가 호흡을 맞추고 있다. 박완규는 그룹 부활의 보컬로 활동하면서 5집에서 'Lonly Night'을 불렀던 주인공으로 폭넓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3 7080 콘서트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다양한 공연들이 쏟아지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7080 세대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 '7080 콘서트'.
부모님 세대들을 위한 맞춤 공연으로 기획된 이번 무대는 1980년대, 90년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7080 세대 대표가수 해바라기, 민해경, 박강성과 젊은 층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안치환이 그들의 대표 히트곡들로 부산의 7080 세대들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무대를 선사한다.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3 송년음악회

2013 발레 음악 시리즈 V 호두까기 인형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이동신

강남길

노은지

201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발레 음악을 선보여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들려주는 2013년 마지막 무대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발레음악의 최고봉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통해 발레 음악의 정수와 송년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이번 무대에서는 메인곡 '호두까기 인형'외 피아니스트 강남길의 협연으로 피아노를 위한 교향곡이라 일컬어지는 브람스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 노은지의 협연으로 화려한 기교와 감미로운 양식을 특징으로 한 베리오 '발레의 정경'을 함께 들려준다.

▶프로그램
브람스/피아노 협주곡 제2번
베리오/ '발레의 정경'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작품 71 중 발췌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노은지(바이올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 동아대 4학년), 강남길(피아노, 경성대, 고신대, 부산예고 출강)

●●●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을 위한

아지무스오페라단 송년음악회 '겨울연가'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8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아지무스오페라단(338-4649)

전문예술법인 사회적기업 아지무스오페라단이 2013년을 보내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을 위해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겨울연가'.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성악가 소프라노 구민영, 윤선기, 권미현, 테너 서명보, 조윤환, 바리톤 조성빈, 베이스 최현욱과 뮤지컬 가수 윤효섭 등을 초청, 'Ah forse lui' 'Nessun Dorma' 'Je veux vivre' '사랑하는 딸들아' 등의 오페라 아리아와 'Time to say goodbye', 'Lippen Schuweigen', 'La ci darem la mano' 등의 2중창, 'Maria' 'Tonight' '지금 이 순간' '나 가거든' 'All I ask of you' 등 유명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준다.

●●●

김명수 가야금 현's tory 세 번째 이야기

여우를 꿈꾸는 곰

12월 27일 금요일 저녁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명수(010-3130-1353)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이수자 감명수가 들려주는 가야금 '현's tory' 세 번째 이야기- 여우를 꿈꾸는 곰.
현's tory는 여우인 것처럼, 혹은 여우처럼 보이기 위해 달려온 나와 당신에게 보내는 위안과 희망을 담은 음악이야기로, '현(絃)악기'의 특색(tory), 그리고 모든 '현(絃)악기의 음악이야기(story)'라는 의미를 담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갈 다양한 마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강태홍의 '봉장취'
김성겸/ACHROMATIC COLOR, PUZZLE, NOW!!
이진호(편곡)/TAKE F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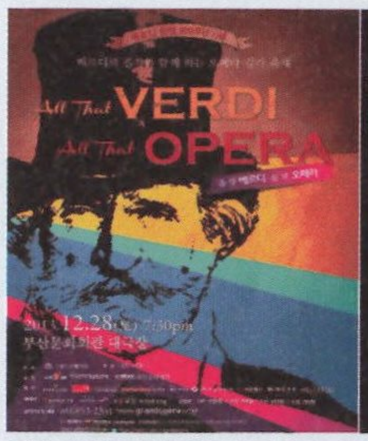
●●●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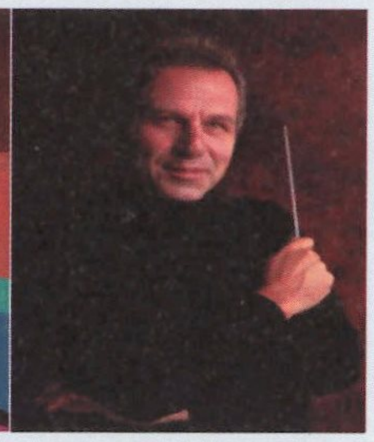
'올댓 베르디, 올댓 오페라' 갈라 공연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12만원 · R석 7만원, ·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 의 | 그랜드오페라단(853-2341)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보내며 그랜드오페라단이 유럽 오페라계의 살아있는 거장 마르코 발데리를 초청,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송년 오페라 콘서트 '올댓 베르디, 올댓 오페라' 갈라 공연.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의 오페라를 음악중심



올댓 베르디 올댓 오페라 포스터



지휘 마르코 발데리

의 주제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한 이번 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자선연주단체인 유나이티드코리안 오케스트라의 연주, 40명으로 구성된 스칼라오페라합창단의 절묘한 앙상블로 최고의 베르디 음악을 선사한다.

베르디의 탄생과 그의 가족을 모두 잃는 좌절과 고통 속에서 태어난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막을 여는 1부 '올댓 베르디'에서는 오페라 '아틸라' 중 1막 초연무대를 비롯 베르디가 남긴 명작들 중 사랑과 우정, 배신 등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틱한 작품들의 하이라이트를, 2부 '올댓 오페라'에서는 베르디의 탄생을 축하하러 모인 관객 모두와 공연에 참가한 연주자들이 함께 기쁨과 뜨거운 감동을 나누는 장이다.

· 총예술감독/안지환(신라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교수, 그랜드오페라단 단장)
· 지휘/마르코 발데리
· 오케스트라/유나이티드코리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합창단/스칼라오페라합창단(지휘/임병욱)
· 출연/소프라노 박현정, 오희진, 왕기헌,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김지호, 허동권, 바리톤 김승철, 베이스 서정수

소프라노 박현정 귀국 독창회

12월 29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현정(010-6735-1366)

부산대학교 재학 중 이태리로 유학, 이태리 파르마 A.Boito 국립음악원, 밀라노 아카데미, 베르첼리 비오티 아카데미, 밀라노 Corsico 시립음악원 등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박현정 귀국 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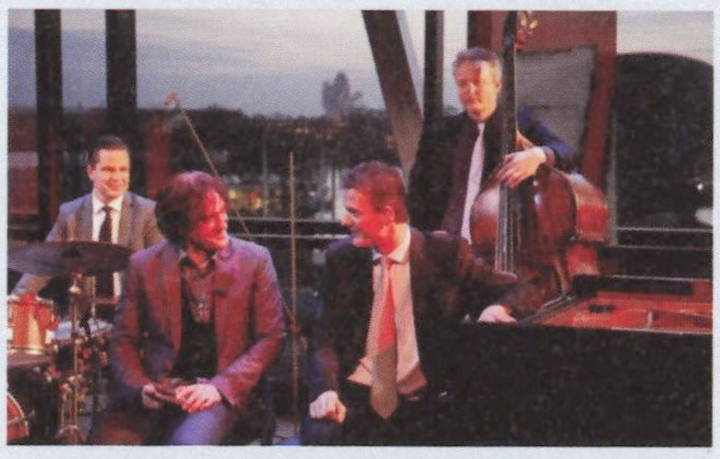
맑고 청아한 음색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주목받은 박현정은 Jupiter 국제콩쿠르(1위), P.Tebaldini 국제콩쿠르(1위), G.Cobelli 국제가곡콩쿠르(2위), Bell' Arte 국제콩쿠르(3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 입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헨델/참 기쁨
드뷔시/'잊혀진 노래들' 중 '번민스런 황홀' '나무그늘에서' '만돌린'
베르디/그리운 그 이름
오브라더스/스페인 고전가곡 중 '사랑으로' '나의 어머니, 사랑으로' '당신의 부드럽게 땋은 머리' '작은 신부' 등 수곡
· 피아노/안준희

피터 베이츠 내한공연

12월 29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6만원 · A석 5만원
문 의 | 한국-네덜란드 음악교류협회 (010-3016-5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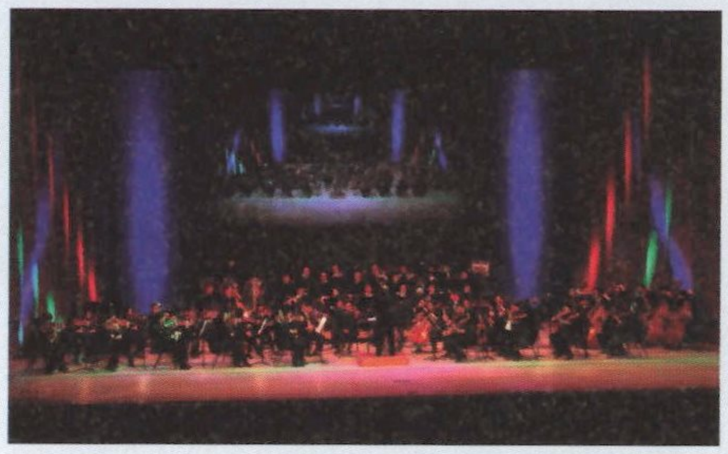
뉴욕과 유럽을 잇는 경이적인 월드 클래스 재즈 피아니스트 피터 베이츠 내한공연.

2007년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재즈피아니스트인 오스카 피터슨을 기리기 위해 피터 베이츠가 올해 발매한 헌정앨범을 중심으로 꾸며지는 이번 내한공연은 아름다운 멜로디의 영가와 경쾌한 블루스를 자유롭게 넘다드는 재즈연주곡과 연말 분위기에 맞는 캐롤곡을 함께 들려준다.

유럽을 넘어 세계적인 재즈 피아노의 거장으로 명성을 쌓고 있는 피터 베이츠는 1999년 The concours de Solistes de Jazz in Monaco에서의 우승과 이후 2001년 New York Trio를 Criss Cross 레이블을 통해 발표해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2013 제야음악회'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0: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음악과 함께 한해를 마감하고 특별한 새해의 희망을 그려보기 위한 부산문화회관 2013 제야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이동신 부지휘자의 지휘로 1부는 소프라노와 테너의 감미로운 이중창과 아름답고 서정적인 발레와 함께 가는 해의 아쉬움을, 2부는 밝고 경쾌한 축전 선율과 열정적인 바이올린 음색으로 오는 해의 희망을 노래한다.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로비콘서트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와 현악4중주 앙상블과 함께 하는 품격 높은 휴식과 2014년 자신에게 쓰는 소망 엽서 쓰기 이벤트 등으로 2013년을 마무리 한다.

▶프로그램

슈트라우스 2세/박쥐 서곡
푸치니/'나비 부인' 중 '날 사랑해주세요'
차이코프스키/'백조의 호수' 중 '왈츠' '정경'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 중 '꽃의 왈츠' '그랑파드되'
쇼스타코비치/축전 서곡 가장조 작품 96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가르델/영화 '여인의 향기' 중 '탱고'(간발의 차) 등
· 지휘/이동신
· 소프라노/김은주(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
· 테너/이현(영남대학교 교수, 천마아트센터 관장)
· 발레/이영진(이원국발레단 수석무용수), 이원국(이원국발레단 단장)
· 바이올린/김현아(연세대학교 교수)
· 사회/지성훈
· 로비콘서트/부산시향 금관5중주 & 현악4중주

Music

배장흠 초청 기타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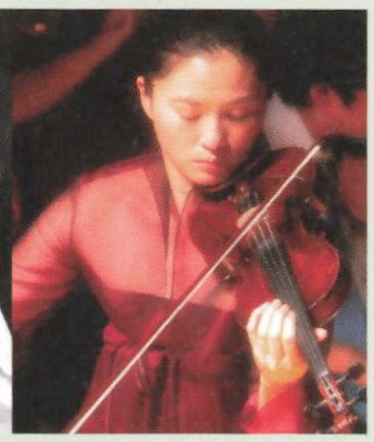
12월 1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서승완(010-5198-0074)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제기타페스티벌 예술감독, 아르뜨 아카데미아 초청교수, 멀티앙상블 '뮤' 음악감독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타리스트 배장흠 초청 독주회.
배장흠은 지난 2011년 한국기타협회로부터 대한민국기타음악상을 수상했다.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피아노 듀오 이장호 & 백현경

12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이장호



백현경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대, 독일 트로싱겐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장호와 스위스 바젤 국립음대에서 교육학, 연주학 박사를 획득한 바이올리니스트 백현경이 함께 하는 듀오무대.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4일 김문희 독주회 '유럽에서 온 편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뮌헨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오스트리아 린츠주립음대 석사, 독일 만하임국립음대 실내악과정을 졸업하고 다수 무대에서 활동해온 플루티스트 김문희 독주회.

▶11일 비르투오조앙상블 연주회

지난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피아노 트리오에서 출발, 그동안 일본 사가현 연주, 가람화요음악회 100회 초청연주, 부산비엔날레 초청연주, 오주영 초청 비르투오조의 밤, 중국 심양국제교류음악회 초청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비르투오조 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베토벤/현악4중주 작품 18 제2번
브람스/피아노5중주 작품 34

· 연주/리더 백재진(바이올린), 김도경(바이올린), 김은진(비올라), 정준수(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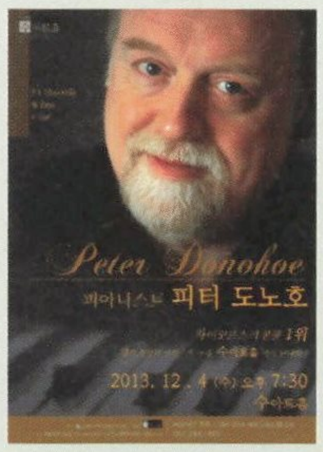
▶18일 전장수 독주회 '기타와 비발디의 만남'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미국 예일대학원, 오스트리아 비엔나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기타리스트로서는 최초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가진 클래식기타리스트 전장수 독주회.

· 특별출연/클래식기타리스트 곽승웅, 배윤진, 남동우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1위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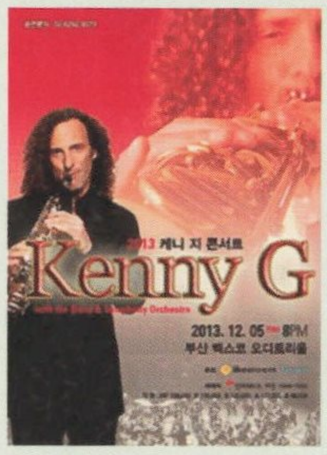
12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수아트홀
입장료 | 균일 5만원
문 의 | 수아트홀(744-1415)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1위 수상에 빛나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 초청연주회.
피터 도노호는 그동안 영국과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세계무대를 통해 '음악적 표현을 위한 느낌을 완벽하고 비상하게 해석해 자신의 일부로 표현하는 피아니스트'라는 호평을 받아왔다.

2013 케니 지 콘서트

12월 5일 목요일 오후 8:0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 19만 8천원 · R석 17만 6천원
S석 14만 3천원 · A석 12만 1천원
B석 9만 9천원
문 의 | lavoce(02-6292-9370)



기악연주자로서 세계 최고의 음반판매 기록을 보유한 색소포니스트 케니 지 부산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서희태가 이끄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의 반주로, 더욱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선율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YWCA 전통문화연구회 옛소리 22주년 정기공연

12월 5일 목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옛소리(010-7515-4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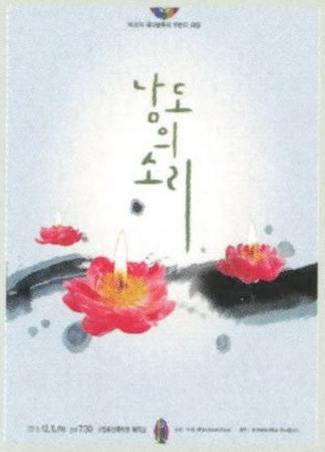
지난 1991년 창단 후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신명나게 달려온 부산YWCA 전통문화연구회 옛소리의 22주년 정기공연.

· 구성안무/정은면
· 풍물지도/박종환
· 출연/배혜영, 김영희, 최양숙, 류금숙, 박난숙, 김분옥, 강화숙, 표근영, 최금희, 오명숙, 김현숙, 김정민, 김홍택

제2회 박성희 제자 발표회 남도의 소리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성희판소리연구소(010-3878-63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국악전문단체 '타로' 공동대표로 있으며 탄탄한 실력과 완벽한 무대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창 박성희 제자 발표회 두 번째 무대. '남도의 소리'라는 주제로 남도 전통민요에서부터 신민요까지 다양한 남도민요를 들려준다.

· 해설/정영진(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
· 특별출연/박성희, 국악전문단체 타로

●●●

을숙도문화회관 '금요 해피콘서트'
김혜진 바이올린 리사이틀

12월 6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신포니에타 단원, 현악사중주 클레다 리더로 활동하면서 지난 2012년 부산신인음악회 최우수 연주자로 선정된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의 무대로 마련되는 을숙도문화회관 금요 해피콘서트.

· 피아노/표세구

●●●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00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대강당
입장료 | S석 1만 2천원 · A석 8천원 · B석 5천원
문 의 |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366-8120)

사물놀이의 창시자 (사)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 김덕수 예술감독이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위해 창안한 전통문화예술 체험공연으로, 사물놀이에서부터 민요, 탈춤, 판굿 등 우리 전통예술을 관람하고 직접 배워볼 수 있다.

바리톤 조성빈 독창회

12월 7일 토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지무스오페라단(338-4649)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귀국 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바리톤 조성빈 독창회.

▶프로그램
토스티/이상
장일남/비목
뮤지컬 '레 미제라블' 중 '별' 등 수곡

· 피아노/민강은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와 함께 하는
무지크바움 송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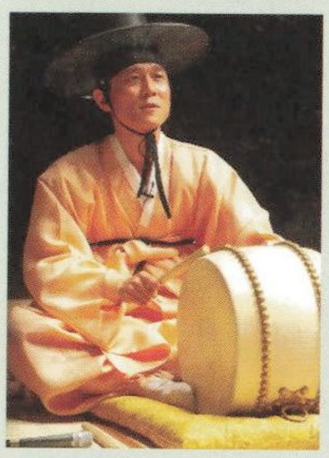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국립음대 모짜르테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피아니스트 권준의 무대로 마련하는 무지크바움 송년음악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8번과 29번 '함머클라비어' 전곡을 들려준다.

신문범 고법연주회 Part.4 흥보가

12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신문범 타악연구소(583-795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장, 국악전문단체 '타로' 공동대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전수자,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있는 신문범 독주회.

판소리 고법만의 특색을 알리고 부산지역 판소리 고법의 저변확대를 위해 판소리 고법만으로 무대를 마련한다.

· 해설/정영진(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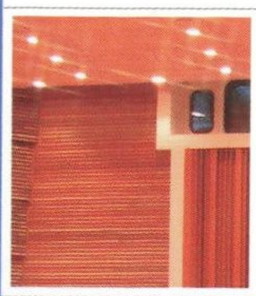
문주원 귀국 첼로 리사이틀

12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서울대학교 현악과 실기수석, 미국 이스트만음대 석사, 메릴랜드 주립대학 박사과정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그동안 한국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무대에서 활동해온 첼리스트 문주원 귀국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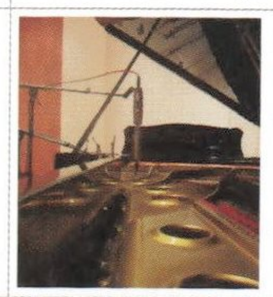
| 국제 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녹음홀 | 글로빌아트홀
www.glovil.org 051 505 5995 / 070 8880 5995

대 관
독창회/독주회/실내악/세미나/행사



연주자에게는 편안함을
관객에게는 감동을 주는
글로빌아트홀
-부양구조와 음향확산공법에 의한 최적의 어쿠스틱 연주홀
-객석 어느곳에서든지 고른 음향 전달

녹 음
음반녹음/유학, 콩쿨 제출용/영화음악/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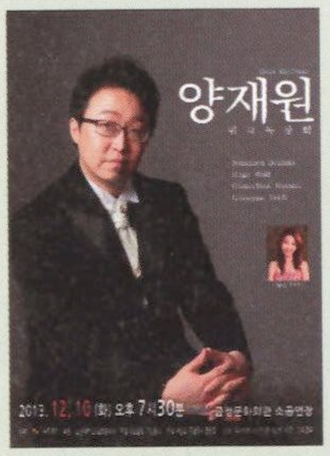


실제 공간울림을 들으며
녹음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어쿠스틱 음향홀
-영국 BBC 방송사와 동일한 녹음장비 보유
-클래식 녹음 전용 마이크 다수 보유
-음악전공 전문엔지니어에 의한 녹음 및 Editing, Mastering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빌아트홀

베이스 바리톤 양재원 귀국독창회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우리아트(010-5555-3825)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오페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독일 크레펠트 뮌헨글라트바흐 시립극장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 바리톤 양재원 귀국 독창회.

· 피아노/김현경

●●●

을숙도문화회관 렉쳐콘서트 명화와 함께 춤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명화와 클래식의 아름다운 만남' 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2013년 렉쳐콘서트 마지막 무대로, 대표적인 클래식 무곡과 마티스, 드가, 르누아르 등 '춤'을 소재로 한 명화를 함께 감상한다.

· 연주/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

소프라노 박현진 귀국 독창회
박현진과 함께하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박현진(010-9182-9811)

부산대학교와 독일 바이마르 Franz Liszt 국립음대 디플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독일 에이전씨 ZAV, Herwald 소속가수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박현진 독창회.

· 피아노/송영민

조은주 귀국 독주회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조은주(010-2992-3960)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함부르크 시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함부르크 브람스 합창단 반주자로 활동한 바 있는 피아니스트 조은주 귀국 독주회.

●●●

스페이스 움 목요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5일 공연없음) 스페이스 움
입장료 | 균일 1만원(12일 공연 무료)
문 의 | 스페이스 움(557-3369)

차 한잔의 여유와 작은 음악회로 누리는 만원의 행복 스페이스 움 목요음악회 '차가 있는 음악회' 12월 무대.

▶12일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콘서트

(사)메소드 문화예술사업단이 주관하는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콘서트'.

· 사회, 해설/이정필(전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

▶19일 따뜻한 크리스마스 음악회

대중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며 클래식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예람무산클래식문화예술팀과 핸드벨 음악의 매력을 선사하고 있는 L&S 핸드벨콰이어가 마련하는 크리스마스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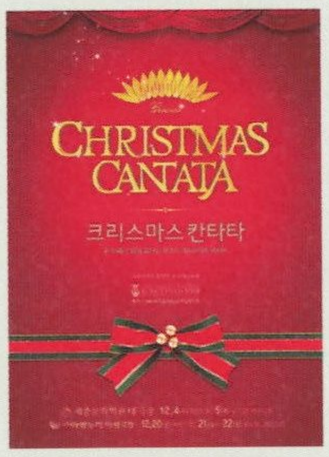
▶26일 재즈포인트 콘서트

2011년 '자라섬 국제 재즈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재즈보컬 이주미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재즈포인트의 무대.

· 연주/이주미(보컬), 강덕호(색소폰), 심미정(피아노), 변재감(베이스), 김정윤(드럼)

크리스마스 칸타타 2013-부산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14일 토요일 오후 3:30, 7:0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 10만원 · R석 8만원
S석 6만원 · A석 4만원
문 의 | 코코넛컴퍼니 부산지부(627-0859)



지난 2000년 창단 이후 깨끗한 음색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음악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그라시아합창단& 오케스트라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마련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부산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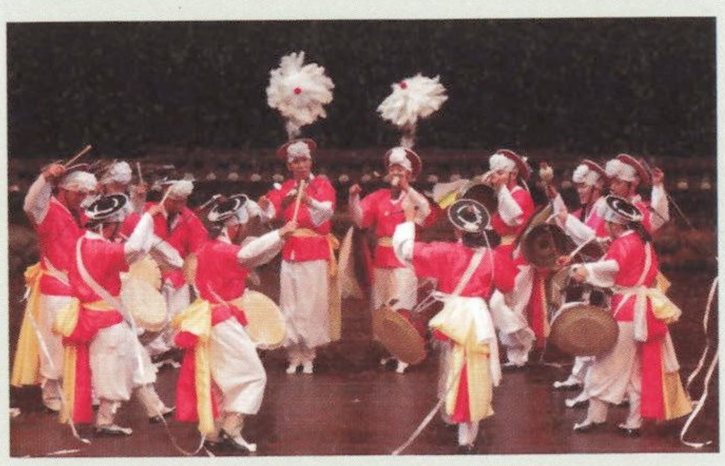
1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오페라를, 2막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가족뮤지컬을, 3막에서는 헨델의 명곡 '칸타타'의 주요곡들을 들려준다.

· 지휘/보리스 아발랸(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

●●●

2013 풍류전통예술원 정기공연 '높새바람'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풍류전통예술원(010-2781-3888)



1999년 3월 창단한 후 동해안별신굿의 무속음악과 경상도 지역의 토속적인 풍물의 원형과 맛을 구현해온 풍류전통예술원 2013년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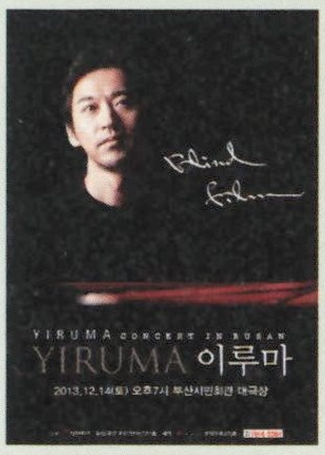
동해안 무속음악에 사물을 접목시킨 새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부정굿, 골메기굿, 초망자 중 이별의 노래, 무속사물놀이, 우도선반설장구, 판굿

이루마 8집 발매 콘서트 'Blind Film'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 8천원 · S석 7만 7천원
A석 6만 6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섬세한 감성과 깊은 울림으로 '공연계의 감성 아이콘'으로 사랑받고 있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부산 콘서트.
8집 앨범 'Blind Film' 발매를 기념, 그만의 서정적인 음악세계를 선보인다.

●●●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피아노 듀오 장윤정 & 류상경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장윤정

류상경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장윤정과 독일 다름슈타트 시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류상경의 듀오 무대로 포레, 슈만, 라흐마노프, 라벨, 생상의 연주곡을 들려준다.

●●●

트라움앙상블 연주회
'소박한 꿈(traum)으로의 초대'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글로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황희경(010-8593-3045)

의사, 교사, 사업가 등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구성된 트라움 앙상블의 무대.
'트라움(traum)'은 독일어로 '꿈'이라는 뜻으로, 음악에 대한 꿈을 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비발디/화성에의 영감 제8번 가단조
바흐/피아노협주곡 제3번 라장조
코렐리/크리스마스 콘첼토 등 수곡
· 협연/정성흡(피아노), 이리나(바이올린)

●●●

유니세프 아동 기금 음악회
제4회 with FRIENDS 겨울음악회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곽민정(010-3069-9777)

부산예술중학교 재학생들이 매년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 생명들을 돕기 위해 마련하는 유니세프 아동기금 모금을 위한 'with FRIENDS 겨울음악회'.
· 연주/박상현(피아노, 2년), 김민지(피아노, 2년), 김보영(플루트, 1년), 김정민(플루트, 1년)
· 찬조출연/박기훈(성악, 서울대재학), 백민정(성악, 2년), 최태영(성악, 2년), 손안지(성악, 1년), 김효원(1년), 김시온(그림찬조, 2년), 송하영(첼로, 1년), 김주연(바이올린, 2년), 김소민(판소리, 1년), 엄예진(가야금병창, 2년), 부산예술중학교 어머니합창단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문 의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오케스트라의 수준높은 연주와 성악가, 연기자들의 익살스런 연기, 노래로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 지휘/윤상운 · 연출/안주은
· 소프라노/장은영, 고예정
· 테너/이해성 · 바리톤/강경원
· 연주/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팝피아니스트 윤한 'THE PIANO'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5)

영국 버클리 음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한 후 미국 보스턴과 뉴욕을 중심으로 음악감독과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주목받은 피아니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윤한의 로맨틱한 무대로 마련되는 금정문화회관 브런치 콘서트.

▶프로그램
Kiss, 그대를 그리다, 드라마 ost 메들리, 카푸치노, 즉흥연주, Paris, Cinema Paradiso, Autumn leaves

YAMAHA·KAWAI·STEINWAY
PIANO D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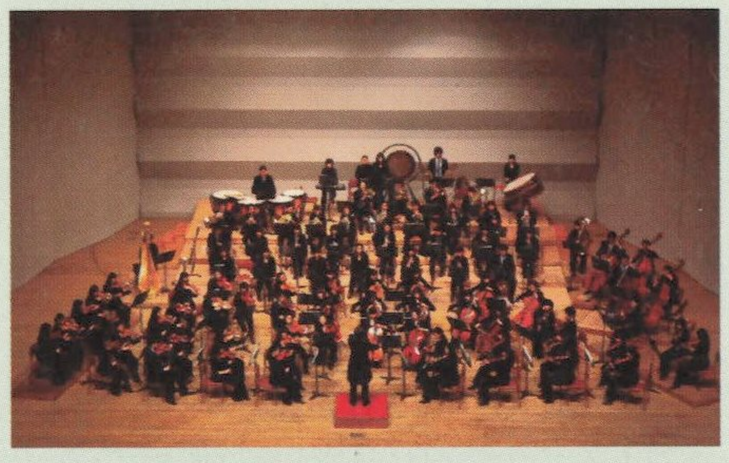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자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 051-753-8963
H.P. 010-9003-8963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제84회 한낮의 유U; 콘서트
겨울…그리고 클래식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국제신문(500-5222)



이탈리아 베르디국립음악원 박사과정에 있는 소프라노 김현주, 메트로폴리탄오페라단, 뉴아시아오페라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리톤 윤오건, 부산신포니에타 수석인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 국악인 조아라가 함께하는 한낮의 유U; 콘서트 송년무대.

· 연주/KPO(지휘/박성완)

●●●

제5회 백현주 작곡발표회 〈노래 I〉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백현주(010-4585-2052)

창작합창곡을 중심으로 마련되는 작곡가 백현주의 5번째 작곡발표회.
초청 시인과 함께 시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 지휘/최정일 · 반주/신희정
· 합창/C's Choir · 어쿠스틱 기타/박진모
· 베이스 기타/송봉근
· 타악기/송희철, 양진일, 김영민

●●●

을숙도문화회관 힐링콘서트 '대(竹) 바람의 벗'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대금앙상블의 아름다운 선율로 마련되는 을숙도문화회관 힐링콘서트 12월 무대.

· 사회/박환영(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 연주/최재호(대금), 이중희(대금), 송다솔(거문고), 김지우(가야금), 최정욱(장구), 부산대학교 대금전공자

●●●

국악밴드 AVIO 다섯 번째 콘서트 'AVIOLIC'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국악밴드 아비오(902-4380, 010-4553-5202)

새로운 월드뮤직의 탄생을 꿈꾸는 국악밴드 아비오의 다섯 번째 콘서트로 1집 음반 발매를 기념해, '감성'을 테마로 희노애락을 담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찬조출연/팝페라 듀오 '휴[HUE]'

●●●

여수연의 전통음악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여수연(010-8999-1324)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석, 박사)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금주자 여수연의 무대.
전통음악인 정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음반 작업과 더불어 연주를 병행해오고 있는 여수연은 이번 무대에서 관악합주곡 '표정만방지곡' 전곡과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들려준다.

· 장구/권성택(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예술감독)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메리크리스마스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해운대문화회관 누림회원 1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지휘자 백진현이 지휘하는 코리아윈드필하모니 브라스와 피아니스트 안영희, 첼리스트 정학선, 소프라노 구민영의 무대로 마련되는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

배현정 피아노 클래스 '우리들의 하모니'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글로빌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배현정(503-213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중인 피아니스트 배현정 제자음악회.
현재 대학입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들과 더불어 대학생 제자들의 무대도 감상할 수 있다.

●●●

제9회 부산예술중학교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7:00 글로빌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곽민정(010-3069-9777)

부산예술중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부산예술중학교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부산예술중학교 어머니합창단은 그동안 유니세프 아동기금을 위한 제3회 위드 프랜즈 여름음악회, 장애인 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 지휘/채범석 · 반주/진영석
· 찬조출연/박상현(피아노), 성서영(바이올린), 백민정(성악), 윤승주(피아노), 김주영(바이올린), 김시온(그림찬조), 부산예중중창단

제27회 을숙도명품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보스턴의 향기'

12월 26일 목요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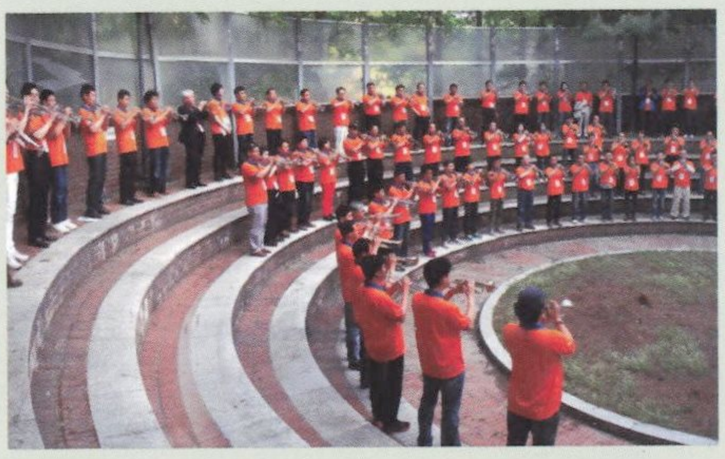
2010년 파가니니국제콩쿠르 1위 없는 2위, 2012년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제27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프로그램
백승태/을숙도
시벨리우스/바이올린협주곡 작품 47 등
· 지휘/이효상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

●●●

트럼펫터 부산지부 제2회 정기연주회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경진(010-2953-0867)



트럼펫 애호가들로 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트럼펫 전문 커뮤니티인 트럼펫터 부산지부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싱싱싱, 아랑훼즈, 태극기 휘날리며 OST 등 평소 잘 접할 수 없는 트럼펫 앙상블의 매력을 들려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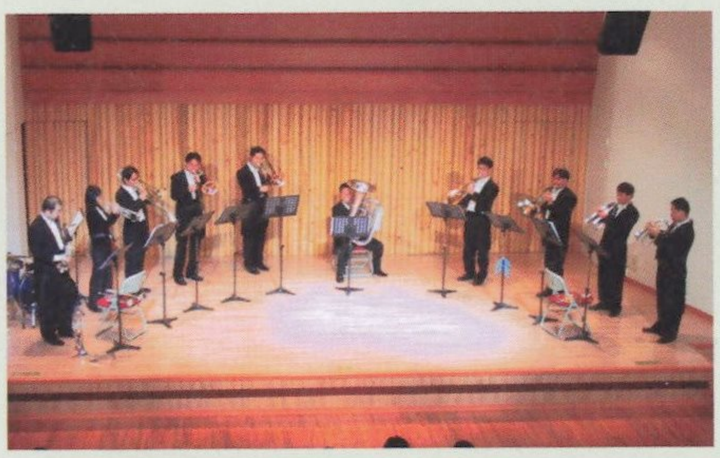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 힐링콘서트 2013 풍류크리스마스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현대적인 감각의 창작국악 개발로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퓨전국악그룹 '소리팔레트'와 화려한 정통재즈에서부터 팝과 대중가요까지 친근한 사운드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재즈펑크밴드 '크로스노트'가 크리스마스와 송년에 어울리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주는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 힐링콘서트.

●●●

제72회 글로빌 행복음악회

12월 29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 기금 마련)
문 의 | 글로빌아트홀(505-5995)

글로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 시민들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Play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1월 1일(일)-12월 31일(화) 화요일, 목-금요일 오후 8:00, 수요일 오후 3: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WSM(1566-5490)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

콘서트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9월 26일(목)-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휴관)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문화락(1600-1602)

뭐든 참견해야 직성이 풀리는 수다남에서부터 사연많은 탈옥수 배철수, 사사건건 잘난 척하는 수상한 여자 김봉자, 무대공포증에 걸린 소심한 가수 김우연까지 한 까페에서 만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섯 남녀의 유쾌한 해프닝을 그린 창작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 작/함유진 · 작, 편곡/CLAY
· 연출/김재근

부산악기사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
복원(수리), 조율, 감정, 대여
부산문화회관전속 조율사 / 김해문화의전당 전속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0-4556-9410
TEL 051)758-5445 / 5450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10월 9일(수)–12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문화락(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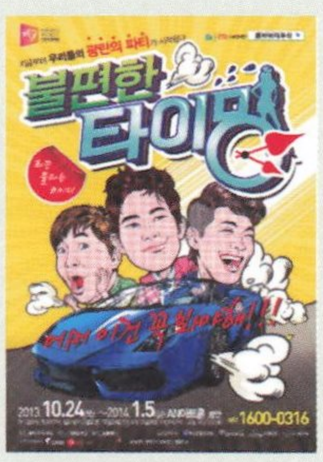
1980년대 대중가요로 지금까지도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있는 가수 송창식의 동명의 가요를 창작 뮤지컬로 제작한 '담배가게 아가씨'.

담배가게 아가씨 유나의 마음을 잡기위한 동네 청년들의 고군분투기가 유쾌한 웃음속에 펼쳐진다.

· 작/김지환 · 작곡/지현수 · 연출/손남목

불타는 코미디연극 '불편한 타이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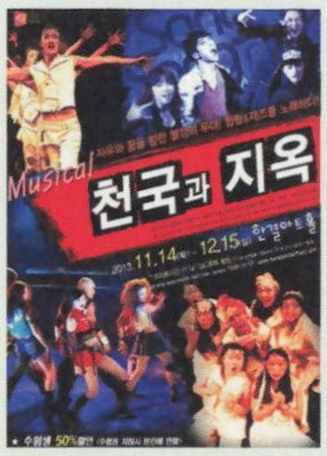
2013년 10월 24일(목)–2014년 1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12/25일 오후 2:00,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영화 '행오버'를 한국적 상황으로 각색한 연극 '불편한 타이밍'은 오랜만에 만난 세 친구가 광란의 파티를 벌인 후 벌어지는 황당한 상황과 사라진 친구를 찾아가는 과정을 코믹한 웃음으로 풀어낸 창작 코믹극이다.

뮤지컬 '천국과 지옥'

11월 14일–12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대학생 2만원
초중고생 1만 5천원
문 의 | 한결아트홀(1588-9155)



오페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으로 간 오르페오'를 원곡으로, 대학 새내기들의 사랑과 질투, 우정을 클래식과 힙합, 재즈, 발레 등 다양한 장르로 풀어낸 창작뮤지컬.

· 재구성/이윤택
· 연출/김하영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 '미지치 않고서야'

11월 15일(금)–12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레몬트리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팻브릿지(626-3703)

연극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생존의 법칙'으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젊은 연출가 김민우의 작품으로,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내기 위한 어머니 박정봉의 고군분투기가 유쾌한 웃음과 짠한 감동으로 펼쳐진다.

소극장 무대공감 개관공연
론더풀 투나잇(부제: 혼자 가기 좋은 술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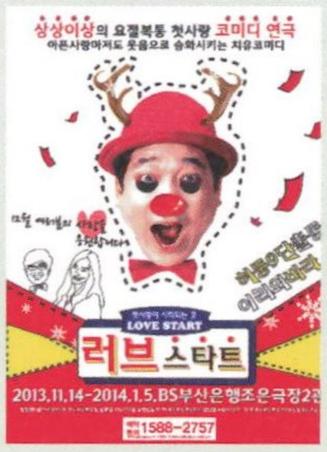
11월 15일(금)–12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무대공감
입장료 | 일반 3만 5천원 ·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간판 하나 없는 허름한 동네 어귀 술집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따뜻한 감동과 재미로 풀어낸 창작극.

· 작/김영민
· 연출/구현욱

연극 '러브스타트'

2013년 11월 14일(목)–2014년 1월 5일(일) 평일 오후 5:00,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8:00, 일요일 오후 4:00, 7:00(12/24일, 12/31일 오후 4:00, 6:00, 8:00, 10:00, 12/25일 오후 4:00, 7:00, 9:00, 1/1일 오후 4:00, 7: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첫사랑의 가슴터질 듯한 설렘과 첫사랑의 실패로 가슴 찢어지는 슬픔까지 아픈 첫사랑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본격 치유 코미디극 '러브스타트'.

· 연출/허동환, 최성우
· 안무/김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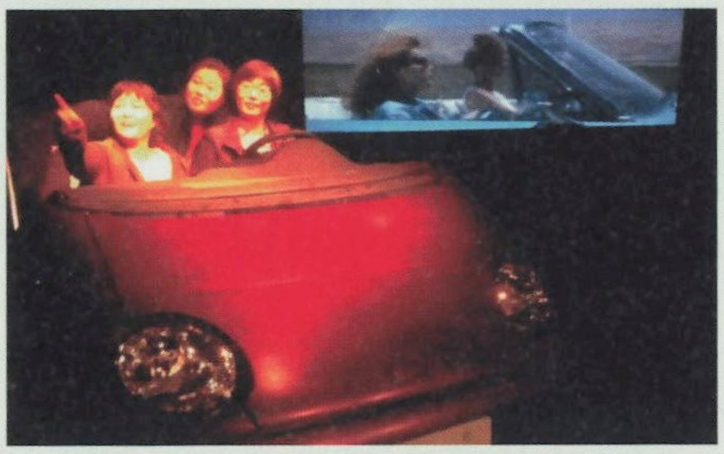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2013년 11월 14일(목)–2014년 1월 12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5:00,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12/24, 12/31 오후 3:00, 6:00, 9:00, 12/25 오후 2:00,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비너스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사회에서 터부시 되는 '자살'을 소재로 죽음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자살사이트 회장과 자살하기 위해 이 곳을 찾은 두남녀를 통해 타인의 죽음에 무관심한 현 세태를 풍자한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창작극 '우리는 안드로메다에서 왔다'

11월 27일(수)–12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자유바다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극단 새벽(245-5919)



고교시절 가출여행의 행선지를 찾아 떠나는 세친구의 추억여행을 통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치유와 성장을 따뜻하게 그려낸 여성 심리극.

●●●

연극 '행복'

2013년 11월 28일(목)–2014년 2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12/25일 오후 2:00,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문 의 | (주)문화락(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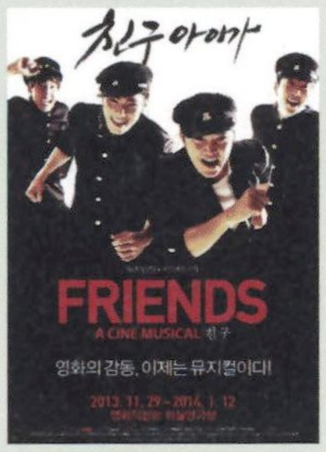
운동 후유증으로 치매에 걸린 전직 복서출신의 남편과 심하게 웃거나 울면 죽을 수 있는 코넬리아 디란지 증후군에 걸린 아내, 삶의 끝에 서 있어도 서로가 있어 행복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연극 '행복'.

●●●

시네 뮤지컬 '친구'

2013년 11월 29일(금)–2014년 1월 12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3:00,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6만원
문 의 | 영화의전당(780-6000)

영화의전당과 비오엠코리아가 제작한 부산 최초의 시네뮤지컬 '친구'.
지난 2001년 부산을 배경으로 개봉 당시 818만명을 동원했던 곽경택 감독의 흥행작을 뮤지컬로 제작한 '친구'는 원작인 영화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준석과 동수의 대립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선보인다.



주인공 '동수' 역에는 안정감 있는 연기로 믿음직한 연기를 선보이는 부산출신의 연기자 안재모와 뮤지컬 배우 조형균이 맡아 색깔있는 연기를 선보인다.

●●●

뮤지컬 '루나틱'

12월 2일(월)–4일(수), 9일(월)–11일(수) 오전 9:00, 11:00(12/3일 오후 7:30 추가상연)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2/11일 소극장)
입장료 | 고3수험생 단체관람 1만원
(12/3일 오후 7:30 문화회식용 2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630-5228)

고3수험생을 위한 건강 힐링 프로젝트 뮤지컬 '루나틱'. 닐 사이먼의 '굿 닥터'에서 모티브를 얻어 우리의 정서에 맞게 각색한 창작뮤지컬로, 루나틱 정신병원의 행복한 의사 굿 닥터와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환자들이 펼치는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드립니다'

2013년 12월 3일(화)–2014년 1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12/24-25일 오후 3:00, 5:00, 7:00, 12/31일 오후 5:00, 7:00, 9:00, 1/1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같은 회사 여직원을 좋아하는 소심한 성격의 노총각 진성에게 그가 원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으로든 변할 수 있는 마법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7가지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주인공의 고군분투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로맨틱 뮤지컬.

넌센스 로맨틱 코믹극 '도둑과 연인'

2013년 12월 3일(화)–2014년 2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1/30일–31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611-8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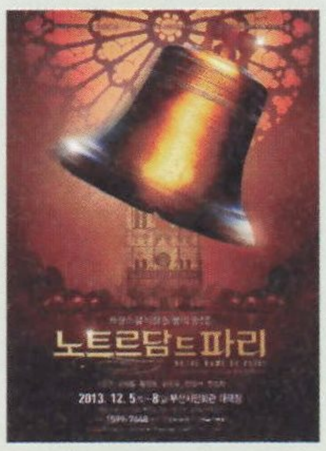
학습지 교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려가는 혜교와 그녀에게 빌붙어 사는 남자친구 성민,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에 우연히 도둑질하러 들어온 도둑, 이들 세명이 펼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믹극.

· 작, 연출/전상배
· 출연/이수정, 박현민, 신민호, 김정환, 박유진

●●●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12월 5일–6일 목–금요일 오후 7:30,
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8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3만원 · R석 11만원
S석 9만원 · A석 6만원
문 의 |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지난 2005년과 2006년, 2011년 세차례 오리지널 내한공연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던 프랑스 대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한국어 무대.
15세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집시여인을 사랑한 곱추 콰지모도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노트르담 대성당을 상징하는 대형 무대세트와 화려한 무대미술, 1,200만장의 경이적인 판매를 기록한 주옥같은 넘버로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홍광호, 윤형렬, 윤공주, 정동하, 전동석, 마이클리, 최민철, 민영기, 조휘, 문종원, 김성민, 박은석, 이정화, 안솔지

마술산타와 호두까기 인형

12월 5일목)–8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12월 19일(목)–20일(금) 평일 오전 10:30, 11:4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2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만 2천원)
문 의 | 라일락향기(624–0825)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호두까기 인형'을 흥겨운 춤과 노래가 있는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마술산타와 호두까기 인형'.
마술을 하는 산타가가 공연을 이끌어가는 이야기꾼으로 등장해 보다 재미있는 볼거리를 선사해준다.

루돌프의 크리스마스 대소동

12월 5일(목)–8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12월 12일(목)–15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12월 20일(금)–22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만 2천원)
문 의 | 라일락향기(624–0825)

흥겨운 캐롤과 신나는 율동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표하는 가족뮤지컬 '루돌프의 크리스마스 대소동'.
특수장치를 이용한 아름다운 종이 눈송이와 수많은 조명으로 장식된 화려한 무대가 볼거리를 더해준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12월 6일 금요일 오후 8:00, 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8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시어터 롯데카드홀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 S석 6만 6천원
문 의 | (주)아이스타미디어(1644–4146)

어렸을 때부터 잘나고 똑똑했던 딸과 그 잘난 딸에게 한 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만 같아 항상 마음 아팠던 엄마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그린 연극.
· 작/고혜정 · 연출/구태환
· 출연/강부자, 전미선, 이서림, 유정기, 이요성, 서자영, 김찬훈, 이보배

매직 & 버블쇼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8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버블아티스의 환상적인 버블쇼와 비둘기 마술, 링 마술, 공중부양 마술 등 신기한 매직쇼가 함께 펼쳐지는 매직 & 버블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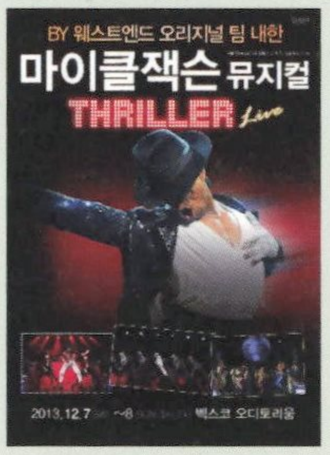
뮤지컬 '드립걸즈'

12월 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6만원 · S석 5만원
문 의 | (주)문화CONG(1688–8998)

'개그맨들도 포복절도하게 하는 개그쇼'라는 찬사를 받으며 큰 화제를 모았던 개그와 노래, 퍼포먼스가 합쳐진 신개념 멀티쇼 '드립걸즈'.
개그우먼 안영미, 강유정, 정경미, 김경아가 출연, 거침없는 화끈한 입담과 다채로운 쇼로 숨돌릴 틈 없는 재미를 선사한다.
· 작/백성운 · 연출/오미영

마이클잭슨의 뮤지컬 '스릴러' 내한공연

12월 7일–8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 13만 2천원 · R석 11만원
S석 8만 8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WSM(1566–5490)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생과 음악세계, 화려한 무대를 담은 콘서트 뮤지컬.
'잭슨 파이브' 시절의 어린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I'll be There'부터 마지막 곡에 이르기까지 총 32곡의 노래와 연주를 5명의 마이클 잭슨과 40여 명의 크루가 라이브로 완벽하게 재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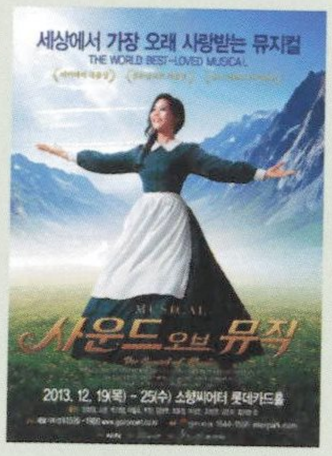
명랑뮤지컬 '율도블루스'

12월 9일(월)–2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고전 '홍길동전'을 원작으로 한 명랑 창작음악극 '율도블루스'.
허름한 달동네에 자리한 카페 율도를 무대로, 소소한 일상 속 희망을 가진 우리 이웃들의 삶을 진솔하게 풀어낸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12월 19일(목)–25일(수)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12/24일 오후 3:00, 7:00, 12/25일 오후 2: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입장료 | VIP 9만 9천원 ·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 A석 5만 5천원
문 의 | (주)예술기획 성우(1599–1980)



뮤지컬에서 영화로, 영화에서 뮤지컬로 재탄생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역경을 넘어선 희망과 사랑의 드라마, '에델바이스' '도레미송' 등 주옥같은 명곡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전해준다.

●●●

뮤지컬 '프리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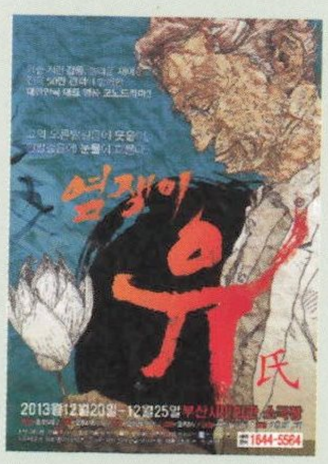
2013년 12월 19일(목)–2014년 2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주)문화락(1600–1602)

컬투가 만든 화제의 코믹 뮤지컬 '프리즌'.
가수가 되고 싶은 탈옥범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콘서트와 퍼포먼스, 마술, 개그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재미를 더해준다.

●●●

연극 '염쟁이 유씨'

12월 20일(금)–25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지난 2006년 초연된 이후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끊임없는 호평을 받으며 1인극 모노드라마의 신화를 써오고 있는 연극 '염쟁이 유씨'.
가업을 이어받아 한평생 염을 하며 살아온 염쟁이 유씨의 마지막 염을 통해 삶과 죽음을 고민해보는 무대이다.
· 작/김인경 · 연출/위성신
· 출연/유순웅, 임형택, 신현종

콘서트뮤지컬 '더 스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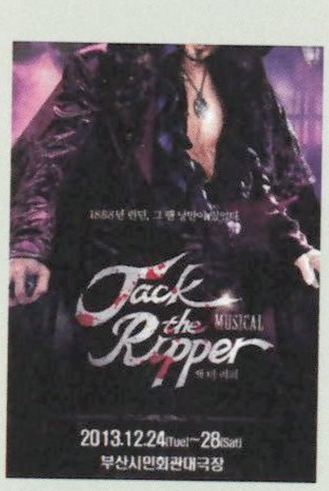
12월 20일(금)–25일(수) 금요일, 월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화요일 오후 5:00, 8:00, 수요일 오후 2:00, 5:00, 8: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균일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20대 청춘들의 사랑과 좌절, 열정을 락밴드 이야기에 담은 뮤지컬로, 젊음이 폭발하는 라이브 연주 속에 배우와 관객이 함께 뛰고 호흡하는 열정의 무대가 펼쳐진다.
· 작, 연출/박계훈
· 음악감독/한필수

●●●

뮤지컬 '잭 더 리퍼'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5:00, 9:00, 25일 수요일 오후 2:00, 6:00, 26일–27일 목–금요일 오후 8:00, 2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2만원 · R석 10만원
S석 8만원 · A석 6만원
문 의 | (주)WSM(1566–5490)



1888년 런던을 공포로 몰아넣은 정체불명의 살인마 '잭'을 소재로 한 스릴러 뮤지컬. 치밀한 스토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 런던 화이트채플 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중 회전무대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출연/안재욱, 김다현, 박진우, 신성우, 조순창, 이건명 외

●●●

이은결의 MAGIC & ILLUSION 크리스마스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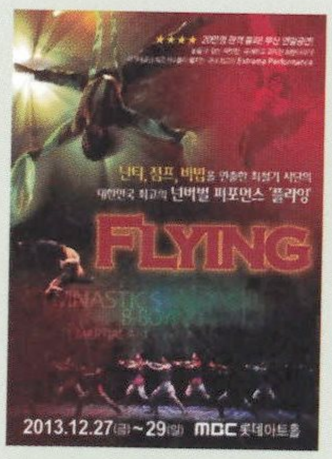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6:00, 오후 10:00, 25일 수요일 오후 2:00,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8만 8천원 · S석 6만 6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WSM(1566–5490)

'한국의 데이비드 카퍼필드'로 불리는 마술사 이은결의 크리스마스 매직 콘서트.
그동안 이은결이 선보였던 무대 중 관객들이 뽑은 최고의 장면들을 선정해 스펙터클하면서도 화려한 마술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

넌버벌 퍼포먼스 '플라잉(Flying)'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2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9일 일요일 오후 3: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5만 5천원 · S석 4만 4천원
문 의 | (주)문화CONG(1688–8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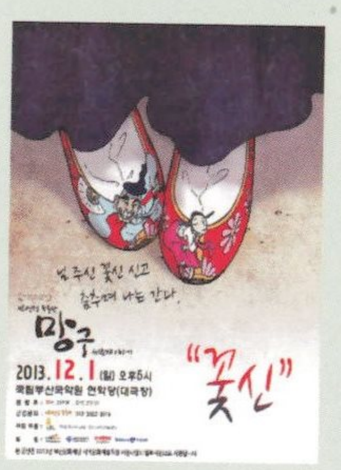


리듬체조, 기계체조, 태권도, 비보이 등 각 분야 국가대표급 배우들이 펼치는 최고의 넌버벌 퍼포먼스 '플라잉(Flying)'.
역사 속 화랑과 도깨비가 시간의 문을 통해 21세기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펼쳐진다.

Dance

박연정무용단 망구 세 번째 이야기 꽃신

12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 의 | 박연정무용단(070–4400–3814, 010–3532–3815)



봉산탈춤 제7과정 '미얄춤'에 등장하는 미얄할미를 새롭게 각색해 탄생시킨 '망구'는 본래의 억척스럽고 악살스러운 모습이 아닌, '미얄'을 평범한 여자이자 한 남자의 아내, 한아이의 엄마로 그려낸 박연정 무용단의 망구시리즈 세 번째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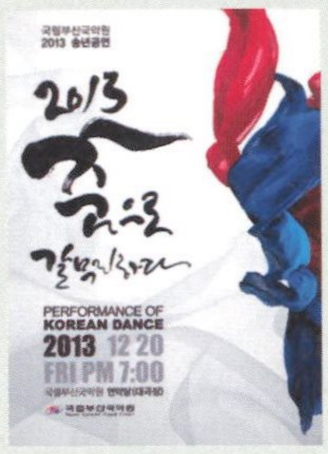
김정순유니온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21일 토요일 오후 3:00, 7:3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 7만원 · R석 5만원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 의 | 김정순유니온발레단(636-8800)

신라대학교 김정순 교수가 이끄는 김정순유니온발레단이 선사하는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발레 '호두까기 인형'.
슬로베니아 국립발레단 주역 무용수 김혜민을 비롯 Lucas Jerkander, 세계발레콩쿠르 최상위 입상자인 김희선, 하지석, 이주호, 배우 변우민 등이 출연,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환상의 무대로 이끈다.

국립부산국악원 2013 송년공연
춤으로 갈무리하다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사)부산무용협회,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사)부산민속보존협회,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국립부산국악원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무용 및 민속예술 단체간의 교류와 상생의 만남 '춤으로 갈무리하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 2층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5)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는 발레의 고전 '호두까기 인형'.
마리우스 프티파 버전을 토대로 이원국발레단의 이원국 단장이 새롭게 연출,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담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인다.

- 원작/에른스트 호프만
- 대본/마리우스 프티파
- 음악/차이코프스키
- 연출/이원국

댄싱9 갈라쇼 '끝나지 않은 춤의 전쟁'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8:00, 31일 화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 S석 8만 8천원
A석 7만 7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WSM(1566-5490)

국내 최초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댄싱9' 출연자들이 펼치는 댄스 갈라쇼 무대.

Concert

제21회 동래문화회관 숲속의 열린음악회
해조음이 그리는 세상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김세환, 정훈희, 윤형주 송년콘서트
우리들의 이야기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4만원 · 2층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5)

리더스폴 릴레이 콘서트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5:00 LIG아트홀 · 부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LIG아트홀(1544-3922)

프렐류드(20일), 써니 킴(21일), SAZA 최우준(22일) 등 2013년 재즈팬들이 직접 선정한 국내 최고의 재즈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슈퍼스타K5 TOP 10 CONCERT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벡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 R석 8만 8천원 · S석 7만 7천원
A석 6만 6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WSM(1566-5490)

2013 포맨 연말콘서트 '1일 동화(冬話)'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 S석 8만 8천원
A석 7만 7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WSM(1566-5490)

2013 박진영 전국투어 콘서트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8:00 벡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 SR석 13만 2천원 · R석 12만 1천원
S석 9만 9천원 · A석 7만 7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WSM(1566-5490)

2013 대학가요제-Forever 크리스마스 콘서트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6:00, 10:00 사직실내체육관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 S석 8만 8천원
A석 7만 7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WSM(1566-5490)

인디밴드ACT 콘서트 'ACT 2013 생존보고서'

12월 24일(화)-28일(토) 평일 오후 8:00,
토 · 공휴일 오후 5:00 자유바다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극단 새벽(245-5919)

올해도 일단은, DJ.DOC CONCERT

12월 25일 수요일 오후 5:00 벡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 지정석 R석 12만 1천원 · 지정석 S석 11만원
스탠딩 R석 9만 9천원 · 스탠딩 S석 8만 8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WSM(1566-5490)

●●●

해운대문화회관 목요미니콘서트 '끌림'

7080 토크! 세남자 이야기-하남석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재즈…와인에 빠지다 54번째 콘서트 남경윤 TRIO+1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 S석 2만 5천원
문 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

2013 YB+박정현 콘서트 '그해, 겨울'

12월 29일 일요일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 SR석 12만 1천원 · R석 11만원
S석 8만 8천원 · A석 7만 7천원
B석 6만 6천원
문 의 | (주)아이스타미디어(1644-4146)

●●●

웅산의 Winter Jazz Story 콘서트 부산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8: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 S석 6만원 · A석 4만원
문 의 | ㈜WSM(1566-5490)

Event

제82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음악회 '나의 애송시 낭송회'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010-6367-0149)

시울림 시낭송회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12월 4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예강(010-5516-1867)

· 초대시인/정경수, 이선형, 김영미, 고명자, 한보경, 이옥진, 배종대, 이사빈

Gallery

부산시립미술관 2013 인턴수료전

다시, 변용한 일상-박자용, 김철민, 진귀원, 그룹 쪽

11월 6일(수)-12월 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금련산갤러리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금련산갤러리(740-4273)

티엘갤러리 개관 기획초대전 방시

2013년 11월 13일(수)-2014년 2월 28일(금)
티엘갤러리
문 의 | 티엘갤러리(070-7882-3712)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NASA : Countdown to Infinity

2013년 11월 16일(토)-2014년 1월 26일(일)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744-3924)

오치균 '아트 앤 리빙(Art &Living)展'

2013년 11월 16일(토)-2014년 1월 15일(수)
도시갤러리
문 의 | 도시갤러리(756-3739)

현대가구의 시작

11월 20일(수)-12월 29일(일) 조현화랑 부산
문 의 | 조현화랑 부산(747-8853)

영도대교 특별전 '다시열리다'展

11월 21일(목)-12월 8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

배우리 개인전 '조금 느린 어른들'

12월 2일(월)-12월 14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557-3369)

한국화, 서양화 유명작고작가 작품전

12월 2일(월)-12월 21일(토)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464-3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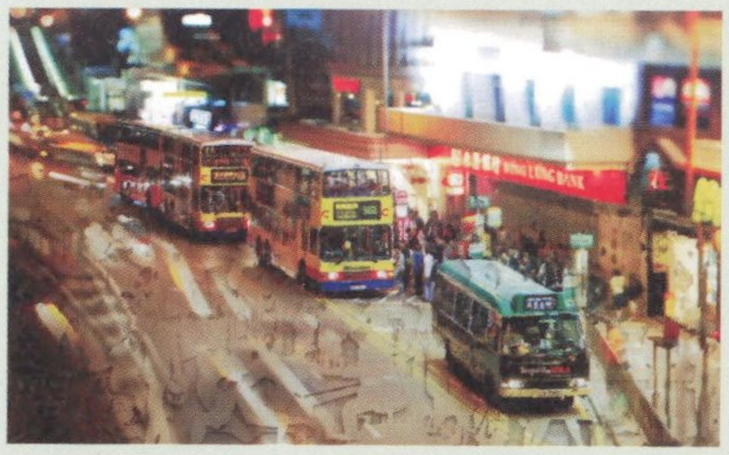
소울아트스페이스 8주년 개관기념

에바 알머슨 초대展

2013년 12월 2일(월)-2014년 1월 13일(월)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점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점(731-5872)

'부산-홍콩, 친구를 만나다' 전시회

2013년 12월 6일(금)-2014년 1월 5일(일)
영화의전당 더블콘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134)



해운대문화회관 기획전

예술의 땅,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예술展

2013년 12월 7일(토)-2014년 2월 27일(목)
해운대문화회관 1, 2전시실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703-7446)

안미선展 '고양이로소이다'

2013년 12월 10일(화)-2014년 1월 10일(금)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747-2612)

스페이스 움 기획전 DRAWING/DREAMING

2013년 12월 16일(월)-2014년 1월 4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557-3369)

서원경 도자 개인전

12월 17일(화)-12월 22일(일) 갤러리 예가
문 의 | 갤러리 예가(624-0933)

New Music

문희정_지엠뮤직

아바도가 지휘하는 브루크너 교향곡 1번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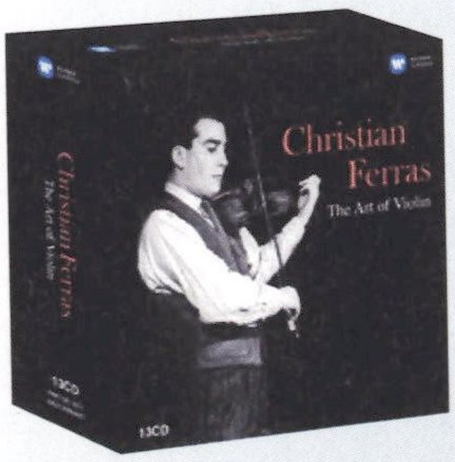
아바도가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브루크너 교향곡 1번의 루체른 실황

아바도가 지휘하는 브루크너 교향곡 1번! 눈이 번쩍 뜨일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바도는 특이하게도 브루크너의 다른 곡보다 1번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젊은 시절 Decca에서, 1990년대 중반 DG에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적이 있는데, 2012년 루체른 실황은 세 번째 녹음이 된다. 특히 첫 번째 버전 '린츠'가 아닌, 두 번째 버전 '빈'을 연주하여 더욱 음악적 완성도가 높다. 아바도는 익숙한 루체른 KKL홀에서 최상의 음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균형 잡힌 완급조절과 특색이 살아나는 장면 전환으로 탁월한 드라마를 만든다.

가디너 – 바흐 칸타타 순례 전집 [56CD+1CD-Rom] [전세계 3천세트 제작 한정반]

바흐의 칸타타 전곡을 교회력에 따라 분류하여 연주하는 야심찬 프로젝트

존 엘리엇 가디너와 그의 동료들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서거 250주기였던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50여 곳에 달하는 유럽의 명소들을 순례하면서 현존하는 200편 가까운 바흐의 칸타타 전곡을 교회력에 따라 분류하여 연주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인 '바흐 칸타타 순례(The Bach Cantata Pilgrimage)'를 완성하였다. 그 연주 실황들은 당시 그의 소속사였던 Archiv를 통해서 곧바로 CD로 발매되기 시작했지만, 침체일로를 걷고 있던 음반시장의 여파로 인해 Archiv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자신의 열정을 모두 쏟았던 이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가디너는 자신이 직접 SDG라는 레이블을 설립함으로써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내셔널지오그래피의 대표 사진작가인 스티브 맥커리의 사진을 커버아트로 사용한 고급스런 양장본 패키지로 차례로 발매되었던 이 시리즈가 드디어 전집 Box로 선보이게 되었다. SDG 발매분 외에도 초기 Archiv에서 발매되었던 4장의 CD(BWV 72, 73, 82, 83, 94, 105, 111, 113, 125, 156, 168, 179, 199, 200)도 모두 들어있으며, 2000년 당시에 연주 외적인 소음으로 인해 음반화가 되지 못했다가 2012년 5월 재녹음되어 발매되었던 SDG185(BWV 11, 37, 43, 128)도 포함되었다. 이번 Box는 56장의 CD 각각이 스티브 맥커리의 인물 사진(기존 개별 발매반의 커버 사진들 외에도 27개의 새로운 사진이 추가되었다)으로 장식된 종이 슬리브로 포장되어있으며, 개별 발매반들의 내지를 PDF파일로 수록한 1장의 CD-Rom이 함께 제공된다.



크리스티앙 페라스 – 바이올린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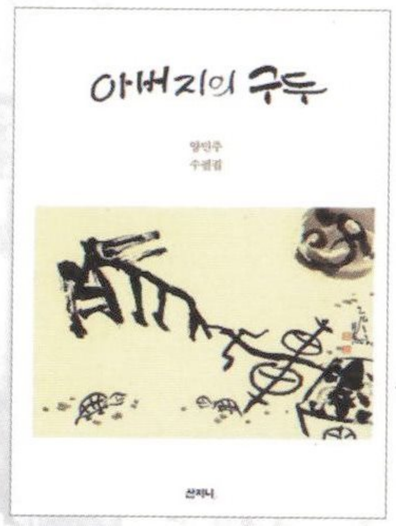
[세계 최초 발매 EMI 레코딩 선집 13CD 한정판 박스세트]

클래식 애호가를 사로잡은 EMI 시절 크리스티앙 페라스 예술의 기록!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다 마침내 부활한 전설의 명반 '에네스쿠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과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집' 그리고 프랑크, 포레, 드뷔시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비롯하여,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음 감각과 차가운 동시에 뜨거운 비브라토 주법이 눈부신 빛을 발하는 걸작 녹음' 베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차이코프스키, 멘델스존, 브루흐, 랄로, 바흐, 베토벤, 브람스 등 바이올린을 위한 위대한 협주곡에 이르기까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앙 페라스 예술의 진수를 담고 있는 EMI의 위대한 레코딩 선집이다.
20세기 중, 후반 이름을 떨쳤던 크리스티앙 페라스는 프랑스-벨기에 악파의 정통을 잇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지휘자 카라얀이 가장 아꼈던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협주곡 분야에서 호평을 받았고 프랑스 근대 작품 중 실내악과 소품연주에도 뛰어났다.

BOOK

New Book
박현주_북칼럼니스트



아버지의 구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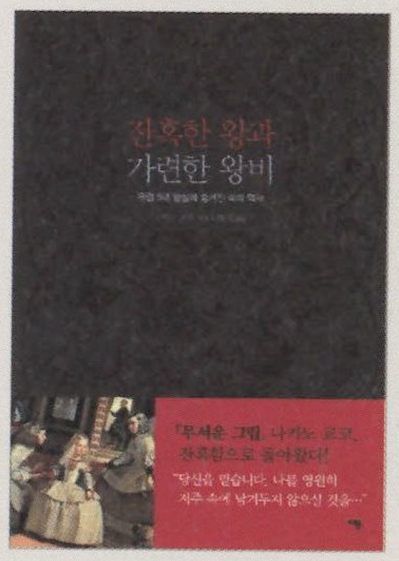
양민주 지음 / 산지니 / 239p /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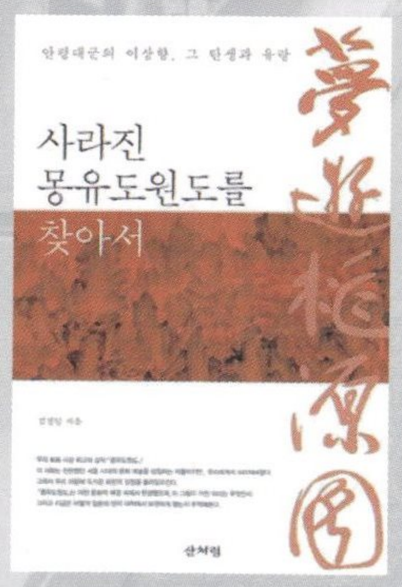
"아버지는 시골에서 어머니의 간호를 받으시며 새로 산 신발을 신어보지도 못한 채 한 달을 누워만 계시다 고이 눈을 감으셨다. 아버지의 삶을 기록할 수 없었던 새 구두는 아버지의 몸무게나 제대로 읽었을까?"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이 글만 읽어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새 구두에 얽힌 이야기가 짐작된다. 이 책을 쓴 저자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 곁을 떠나지 않을까. 2006년 〈시와 수필〉로 등단한 양민주 시인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틈틈이 써온 수필을 책으로 엮었다. 위의 글은 표제글 〈아버지의 구두〉 중 한 대목이다. 이 글 옆에는 묵화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다. 서예가인 범지 박정식의 그림이다. 댓돌 위에 놓여 진 구두 한 켤레가 글의 내용을 짐작하게 한다. 저자는 세 분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린 누나들을 만났을 때의 마음을 담은 글도 있다. "누나들이 이젠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으며 말씀도 얌전스럽다. 세월 앞에 순응해버린 누나는 이젠 누님으로 불러야겠다." 이 글에는 뽀글뽀글 퍼머머리의 누님 얼굴이 그려졌다.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따뜻한 책이다.

잔혹한 왕과 가련한 왕비

나카노 교코 지음, 이연식 옮김 / 이봄 / 240p / 1만 5천원

17세기 스페인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이자, 펠리페 4세의 궁정 화가였던 벨라스케스는 뛰어난 관찰력으로 정물화와 초상화를 주로 그렸다. 그의 대표작 '라스메니나스(시녀들)'는 스페인 궁정의 한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당대의 상징이자 걸작으로 꼽힌다. 이 그림의 중앙에는 다섯 살 난 마르가리타 왕녀가 있다. 합스부르크왕가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마르가리타 공주의 모습은 귀엽기만 하다. 그림으로 보는 유럽 5대왕실의 비극적인 역사를 담은 책이 나왔다. 〈무서운 그림〉 시리즈의 저자 나카노 교코가 유럽 5대 왕실의 이야기를 통해, 공포에 시달리는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행동인 '잔혹함'을 그림과 함께 들려준다.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1세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경쟁, '라스메니나스' 속 마르가리타 테레사의 짧은 생애, 아들을 때려죽인 러시아 이반 뇌제와 일곱 황비 이야기, 독일 선제후였다가 영국의 왕이 된 조지 1세가 자신의 왕비를 평생 유폐시킨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헨리 8세와 앤 불린 이야기 등 유럽 5대 왕실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독자로 하여금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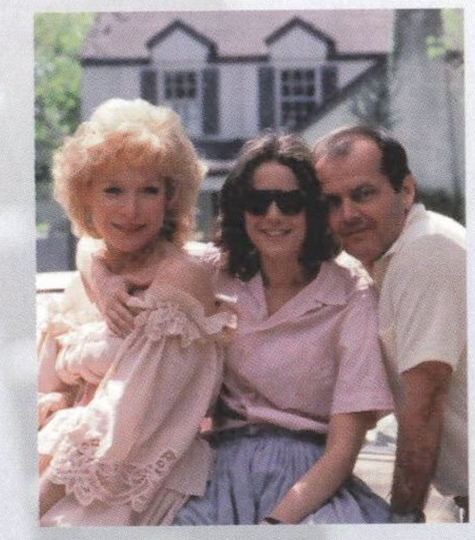




사라진 몽유도원도를 찾아서

김경임 지음 / 산처럼 / 416p / 2만 2천원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몽유도원도'는 1447년 정묘년에 화가 안견에 의해 3일 만에 완성됐다. '몽유도원도'는 우리 회화 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다. 1453년 계유정난 때 안평대군이 희생되면서, 그림도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다가 1893년 일본에 다시 등장한 이후, 1950년 덴리대학이 소장하게 되어 현재까지 일본에 있다. 이 책은 '몽유도원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탄생했으며, 어떻게 역사의 물결을 타고 유랑하게 됐는지 그 흔적을 찾아 나선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교관으로 일해 왔다.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을 역임하며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국제적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 당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제까지 '몽유도원도'는 화풍이나 그림의 내용 분석에만 치중하여 조명되어 온 것에 비해, 이 책은 '몽유도원도'의 시대적 · 사상적 · 문화적 탄생 배경까지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꿈의 주인인 안평대군의 삶과 문화적 이상을 추적하여 그림에 담긴 의도를 밝혀내고 있다. 처음으로 한국 연구자의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몽유도원도'를 조명한 책이다.



영화 '애정의 조건'

영화의전당 '오래된 극장 2013'

2013년 12월 6일~2014년 1월 5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 추억의 영화들을 되새겨보는 '오래된 극장'이 2013년 겨울, 관객들을 다시 찾아온다. 수영만 시절부터 시네마테크부산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오래된 극장'에서는 지나간 그리움으로 가슴 따뜻해지는 추억의 명화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올해 '오래된 극장'에서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스릴러 로맨스 '레베카'를 비롯해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스타덤에 오르게 한 불멸의 명작 '젊은이의 양지', 헤밍웨이의 대표적인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무기여 잘있거라', 1930년대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남녀 2인조 은행강도 사건을 영화화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 콤비의 활약이 돋보였던 서부극 '내일을 향해 쏴라',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한 한 남자의 여정을 그린 로드 무비 '파리 텍사스', 잭 니콜슨, 셜리 맥클레인, 데브라 윙거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 '애정의 조건', 여성들의 삶과 우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1990년대 최고의 코미디 영화로 손꼽히는 '사랑의 블랙홀', 반전영화의 최고라는 호평을 받은 '유주얼 서스펙트', 2003년 전미를 뒤집은 희대의 사기극을 스크린에 옮긴 '캐치 미 이프 유캔' 등 20여 편의 명작들이 상영된다.

왕가위, 3색 로맨스

11월 28일 개봉, 전국 롯데시네마 상영관

특유의 세련되면서도 감각적인 영상미를 선보여온 세계적인 감독 왕가위 감독의 걸작 3편을 만날 수 있는 특별상영전 '왕가위, 3색 로맨스'가 열린다. 그동안 선보인 다른 왕가위 감독의 기획전과는 달리, 늦가을에 어울리는 로맨스 장르만 엄선해 관객들과 만나는 이번 '왕가위, 3색 로맨스'에서는 시간의 로맨스 '동사서독 리덕스(2008년)', 금지된 로맨스 '화양연화(2000년)', 이별의 로맨스 '중경삼림(1994년)' 등 세가지 주제의 로맨스를 통해 세 편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이 중 '동사서독 리덕스'는 2008년 '제61회 칸국제영화제'에 이어 '제1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돼 화제를 모은 작품으로, 영화제 외에 일반 관객에게는 처음 공개된다. 1994년 '동사서독' 개봉 이후 왕가위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새롭게 탄생시킨 작품으로, 원작에 내레이션과 자막을 보강해 흘러간 시간에 대한 감흥을 극대화 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제목 그대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가장 슬프게 그려낸 '화양연화'는 지난 2000년 '제53회 칸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양조위에게 남우주연상을 선사한 작품이며, 왕가위 감독을 세계적인 거장으로 이름을 알리게 해준 '중경삼림'은 극중 뛰어난 영상미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안녕?! 오케스트라

11월 28일 개봉

지난 2012년 MBC TV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던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가 영화로 제작돼 관객들을 만난다. 2013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 공식 초청되어 숱한 화제를 나았던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는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24명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만나 1년의 시간을 음악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방송에서는 1년여에 걸친 이야기를 담은 만큼 방대한 이야기를 각 주제별로 자세하게 풀어 시청자들에게 다가갔던 반면 영화에서는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에피소드들을 등장시켜 인물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와 변화를 따라가면서 리처드 용재 오닐과 아이들과의 유대관계에 집중한다. '안녕?! 오케스트라'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리처드 용재 오닐의 상처에 대한 슬픔,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함께 하기에 나올 수 있는 웃음,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앙상블이 주는 감동을 통해 관객의 가슴을 울린다. 현재 '안녕?!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 단원도 24명에서 50명으로 늘었으며 현악기 외에도 목관악기와 금관악기가 더해졌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앞으로도 계속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Event

Special Event

신생인문학연구소 연속기획강좌
문학이란 무엇인가–부산 대표작가에게 묻는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 누구라서 명쾌하게 답할 것인가. 그럼에도 묻고 또 물어야 할 물음이다. 작가라면 물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 내야 할 숙명이다. 신생인문학연구소가 문학의 본질이기도 한 물음에 답을 구하는 연속기획강좌 '문학이란 무엇인가–부산 대표작가에게 묻는다'를 마련했다. 30~40년 이상 시와 소설을 써온 시인 강은교, 강영환, 소설가 김성종, 정형남 등 네 명의 작가에게 문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들어본다. 지난 11월 19일 '소설과 문학적 상상력'을 주제로 한 소설가 김성종에 이어, 26일에는 강은교 시인이 '사이의 시학–삼투시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12월 3일에는 소설가 정형남이 '원형의 모태, 생명의 숨결'을, 12월 10일에는 강영환 시인이 '시적 표현과 낯설게 하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강좌는 시란 무엇인가? 소설이란 무엇인가? 작가로서 인생의 대부분을 바치며 함께 해왔던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부산 대표 작가들의 본격적인 문학론, 시론, 소설론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강좌는 12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중구 중앙동 40계단 옆 신생인문학연구소에서 열린다. 각 강좌 당 수강료 2만원, 신청 및 문의는 신생인문학연구소 메일 sinsaeng2011@naver.com 로 접수.

백년어서원 바까데미아 水講
괴테, 중앙동에 나타나다

'박제된 지식을 넘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대학 바깥의 인문학 공간 '바까데미아'. 백년어서원이 운영하는 바까데미아 水講 2014년 첫 번째 강좌 '괴테, 중앙동에 나타나다'가 1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백년어서원에서 펼쳐진다. 혼신의 힘을 다해 세계문학과 세계문화를 섭렵했던 괴테. 연구와 창작에 몰두했던 괴테를 정치적 틀이라든지 문예사조의 흐름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어 놓고 보는 것은 답답하다. 이번 강좌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의 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개관해보며 그의 문학의 핵심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닿아있는가를 탐색해본다. 세계문학,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관용을 지향하는 그의 문학적 상상력이 근대이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면서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에 대한 진단임을 확인해보는 자리이다. 강좌는 1월 8일 '괴테문학 개관 I'을 시작으로 1월 15일 '괴테문학 개관 II', 1월 22일 '파우스트, 영혼을 저당잡힌 사내의 세계편력기', 1월 29일 '색채론, 생태적 상상력의 보고', 2월 5일 '서동시집과 세계시민주의의 모색', 2월 12일 '괴테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총 6강좌가 펼쳐진다. 강의자인 동의대학교 독문과 장희창 교수는 그동안 독일고전문학 번역과 고전연구에 힘써왔으며 독서평론집으로 '춘향이는 그래도 운이 좋았다', 번역서로 괴테 '색채론' '괴테와의 대화', 귄터 그라스 '양철북' '게걸음으로 가다',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을 발간했다. 수강료는 100,000원, 신청 및 문의는 백년어서원 465-1915, cafe.daum.net/100f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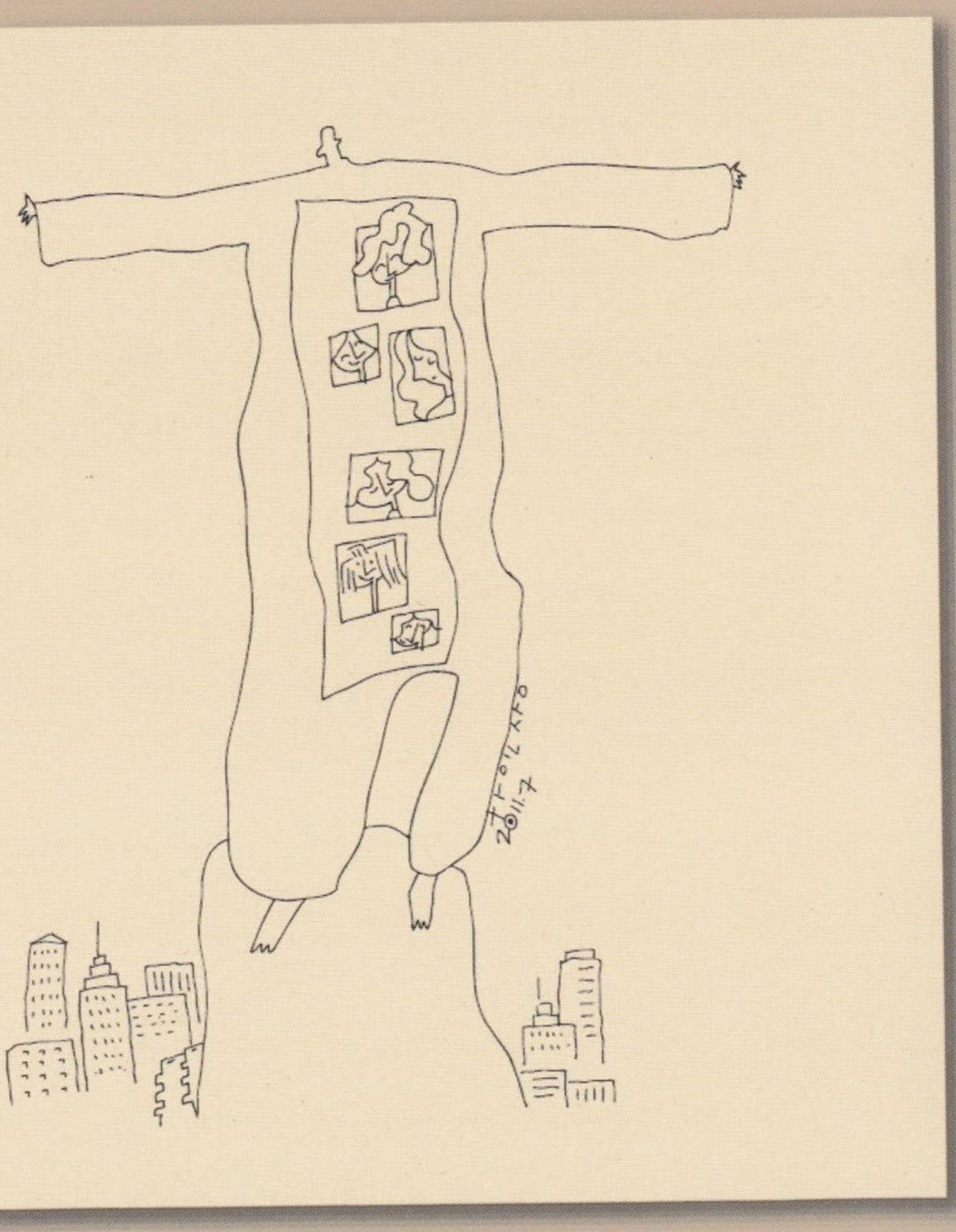
시청자미디어센터 겨울방학 미디어체험
방가 방가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방가방가'를 올해도 시행한다. 자녀들이 어떻게 겨울방학을 보내야 될지 고민하는 학부모들과 무료하게 시간을 허비할까 걱정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미디어체험 '방가방가'는 TV속에서 보기만 했던 뉴스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라디오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설해 보다 다양한 미디어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체험기간은 내년 1월 13일부터 25일까지이며 매일 2시에는 뉴스, 4시에는 라디오체험이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이상으로, 체험 종료일 7일 전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com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1인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같은 날 뉴스와 라디오체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체험을 하는 동안 동석한 학부모들에게는 센터견학이 이루어진다. 체험비는 무료. 자세한 문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749-9518.

하인상의 생각그림
Metaphortoon

남심(男心)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진정 남자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직 하나뿐인 사랑만 하리오.

메타포투니스트 · 시인



지난호정답

호	두	까	기	인	형		오	스	카
세				사		누		트	
카	라	얀		동		아		라	
레			써		카	르	페	디	엠
라	흐	마	니	노	프			바	
스		이			카		오	리	온
		웨	일	스			광		
살	풀	이		키		일	대	종	사
로			사		피	지		주	
메	이	저	리	그		매	난	국	죽

11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남하윤(서구 서대신동3가)
유강석(동래구 온천1동)
윤옥화(북구 덕천로)
정지인(수영구 남천동)
조광진(서구 아미동2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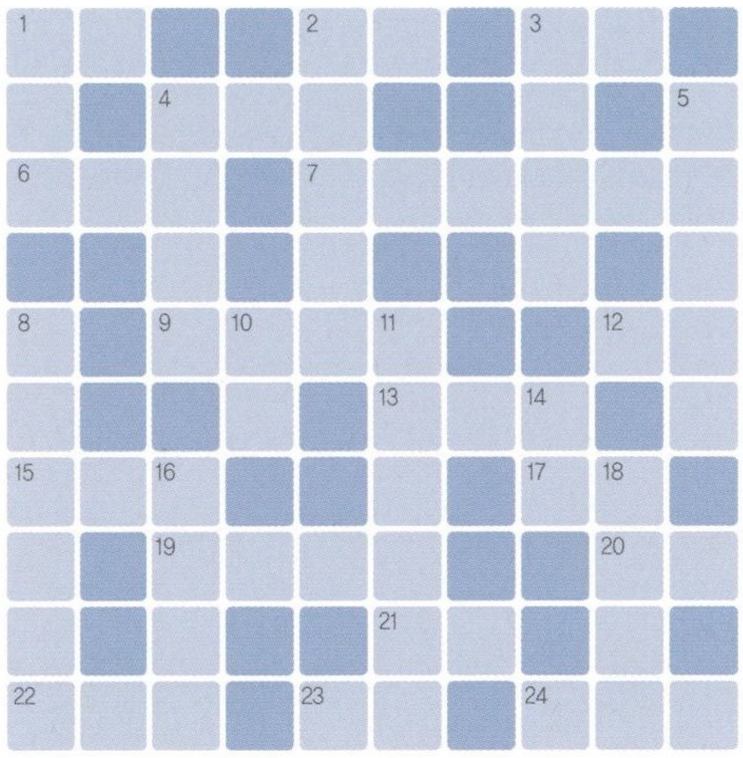
조은극장 초대권
곽은영(남구 대연1동)
장민영(양산시 물금읍)
정대섭(북구 만덕3동)
하옥근(서구 토성동)
황민희(사하구 다대동)

큰집 식사권
박선자(사상구 주례2동)
박현정(연제구 고분로)
윤여환(사상구 엄궁동)
윤정현(사하구 괴정3동)
이순재(사상구 학감대로)

도서 감각의 미술관
권유진(동구 좌천동)
김재은(동래구 온천3동)
박미정(금정구 장전동)
이동림(남구 우암1동)
허작량(북구 화명신도시)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잔혹한 왕고 가련한 왕비
나카노 교코 지음 이연식 옮김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3년 12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가로열쇠]

❶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합창 형식을 도입한 첫 교향곡. 오는 12월 12일과 13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❷ 아동성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의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이준익 감독, 설경구, 엄지원 주연의 영화.
❸ 작곡가 금수현이 경남여고에 재직중이던 지난 1946년, 그의 장모인 김말봉이 작사한 노랫말에 곡을 부친 가곡. '세모시 옥색치마~'.
❹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의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한 말로,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에 걸쳐 유럽에서 유행한 예술양식을 일컫는다. 본래는 극적인 공간 표현, 축선(軸線)의 강조, 풍부한 장식 따위를 특색으로 하는 건축을 이르던 말로, 격심한 정서 표현을 가진 동시대의 미술, 문학, 음악의 경향까지 이른다.
❻ '다시 돌아서 들어간다'는 뜻으로, 보통 빠르기의 6박 1장단으로 구성된 국악장단의 하나. 또는 그 장단에 맞추어 만든 악곡이나 춤.
❼ 사교계 여성과 평범한 청년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그린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
❾ 영국 기네스 맥주회사에서 발행하는, 진기한 세계 기록을 모은 책.
⓬ 24절기 가운데 17번째 절기로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의 절기.
⓭ 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 장군이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에 설치한 진(鎭). 장보고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상권을 쥐고 중국의 해적을 소탕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계 무역 요충지로 만들었다.
⓯ 고조선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가요. 백수광부(白首狂夫)가 험한 강물을 건너다가 익사하자, 그를 만류하지 못한 그의 아내가 공후(箜篌)를 타면서 이 노래를 지은 후 남편의 뒤를 쫓아 강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곽리자고(藿里子高)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 여옥(麗玉)에게 목격담을 이야기하자, 여옥이 공후를 타면서 그것을 노래로 옮겨 불렀다고 전해진다.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⓱ 민속음악에 속하는 기악 독주곡 형태의 하나.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아쟁 산조의 순으로 발생했으며 반드시 장구 반주가 따른다.
⓳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주인공이 우주여행을 온 어린왕자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프랑스 작가 생 텍쥐페리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
⓴ 브라질에서 발생한 사분의 이박자 리듬의 빠르고 정열적인 음악. 또는 그 춤.
㉑ 작자, 창작연대 미상의 판소리계 고전소설인 '흥부전'에 등장하는 흥부의 형.
㉒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수이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인 김정은의 부인.
㉓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거문고의 명인 백아가 자기의 소리를 잘 이해해 준 벗 종자기가 죽자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여 거문고 줄을 끊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㉔ 역사적 사실이나 신화, 전설, 영웅 이야기를 쓴 시. 서정시, 극시와 함께 시의 3대 부문 가운데 하나로, 서양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우리나라 이규보의 '동명왕편', 김동환의 '국경의 밤' 등이 있다.

[세로열쇠]

❶ 맨손이나 단도, 검, 창, 봉(棒) 등을 써서 하는 호신술. 공격보다는 수비를 위주로 하며, 관절 지르기와 급소 지르기를 특기로 한다.
❷ 서구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문답(問答)을 통하여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의 무지(無知)를 깨닫고 참다운 지식을 탐구하도록 했다. 그의 사상은 제자 플라톤의 '대화편(對話篇)'에 전해진다.
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우주조난 상황을 그린 알폰소 쿠아론 감독, 산드라 블록, 조지 클루니 주연의 영화.
❹ 지노귀굿에서 죽은 이의 넋을 저승으로 보낼 때 무당이 부르는 노래. 부모에게 버림 받았던 막내딸 바리공주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약을 구해 와 죽은 아버지를 살린다는 내용이다.
❺ 크리스마스 전날 밤, 굴뚝으로 들어와 착한 아이들의 양말 속에 선물을 넣고 간다는 상상의 할아버지. 4세기경 소아시아 지방 리키아 미라의 대주교였던 세인트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❽ 만화가 김수정이 꼬마 공룡을 소재로 하여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연재한 만화이자 이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❿ 신비로운 해저세계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대모험을 그린 '근대 과학소설의 선구자' 쥘 베른의 대표작 '해저2만리'에 등장하는 잠수함 '노틸러스호'의 선장.
⓫ 함경남도 북청에 전해오는 탈놀이. 정월 대보름 무렵 사자를 꾸며 집집마다 다니며 춤을 추어 잡귀를 쫓는 민속놀이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이다.
⓮ 도읍 지나 각 고을에서 주산(主山)으로 정하여 제사지내던 산, 부산의 ○○금정산
⓰ 1837년에 발표된 안데르센의 동화 속 주인공으로,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항구에 동상이 세워져 있다.
⓲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중국 송나라 저공(狙公)의 고사로,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BUSAN CULTURAL CENTER
NEWS

12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문화회관 찾아가는 예술단 12월 공연이 확정되었다.
12월에는 국악관현악단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요양원 찾아가는 음악회',
교향악단의 '문화나눔 거제복지관 음악회' 등 연말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12월 4일(수)	10:00	상수도사업본부 10층 강당	교향악단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결의대회'
12월 5일(목)	14:30	동삼중학교	교향악단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동삼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12월 11일(수)	15:00	자매요양원 2층 강당	국악관현악단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요양원 찾아가는 음악회'
12월 13일(금)	20:00	영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소년소녀합창단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영도구건강가정지원센터 2013 감사콘서트'
12월 16일(월)	19:00	연제고등학교	교향악단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연제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12월 17일(화)	15: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교향악단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태교음악회'
12월 19일(목)	10:30	부산혜남학교 대강당	무용단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장애우를 위한 찾아가는 송년음악회'
12월 19일(목)	14:00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교향악단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문화나눔 거제복지관 음악회'
12월 19일(목)	18:00	화목오피스텔	합창단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제13회 수영구 장애인복지증진대회'
12월 24일(화)	15:00	상공회의소 상의홀	소년소녀합창단	내사랑 부산공연 '제6회 교육메세나탑 수여 및 결연행사'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6)

2013년도 시민합창교실 모집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2013년 12월 시민합창교실 〈헨델의 메시아로 만나는 합창의 맛과 멋〉에 참여할 합창에 관심이 있는 단체 및 개인 수강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1. 모집부문 및 내용

행사명	모집부문	비고
2013 시민합창교실 〈헨델의 메시아로 만나는 합창의 맛과 멋〉	노래에 관심 있는 합창애호가	신청

2. 강의일수

12월 4일(수), 12월 11일(수), 12월 18일(수), 11:00~13:00
(3일간 하루 2시간)

3. 참가신청 및 참가비용

- 참가신청 접수 : 2013년 11월 11일(월)~12월 4일(수)
- 시민합창교실 참가비용 : 균일 10,000원(교재비 포함)

※ 접수인원이 많을 시 선착순으로 선정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 수 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참가비

제7기 시민클래식교실 수강생 모집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클래식 음악 향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제7기 시민클래식교실'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1. 강습개요

○ 과 정 명 : 제7기 시민클래식교실
○ 강습기간 : 2014년 1월 8일(수) ~3월 5일(수), 매주 수요일 14:00~17:00
(※1월 22일 강의 없음)
○ 강습내용 : 오페라 속 '다양한 사랑의 스펙트럼' (8주 커리큘럼)
○ 모집인원 : 150명 (선착순 마감)

2. 수강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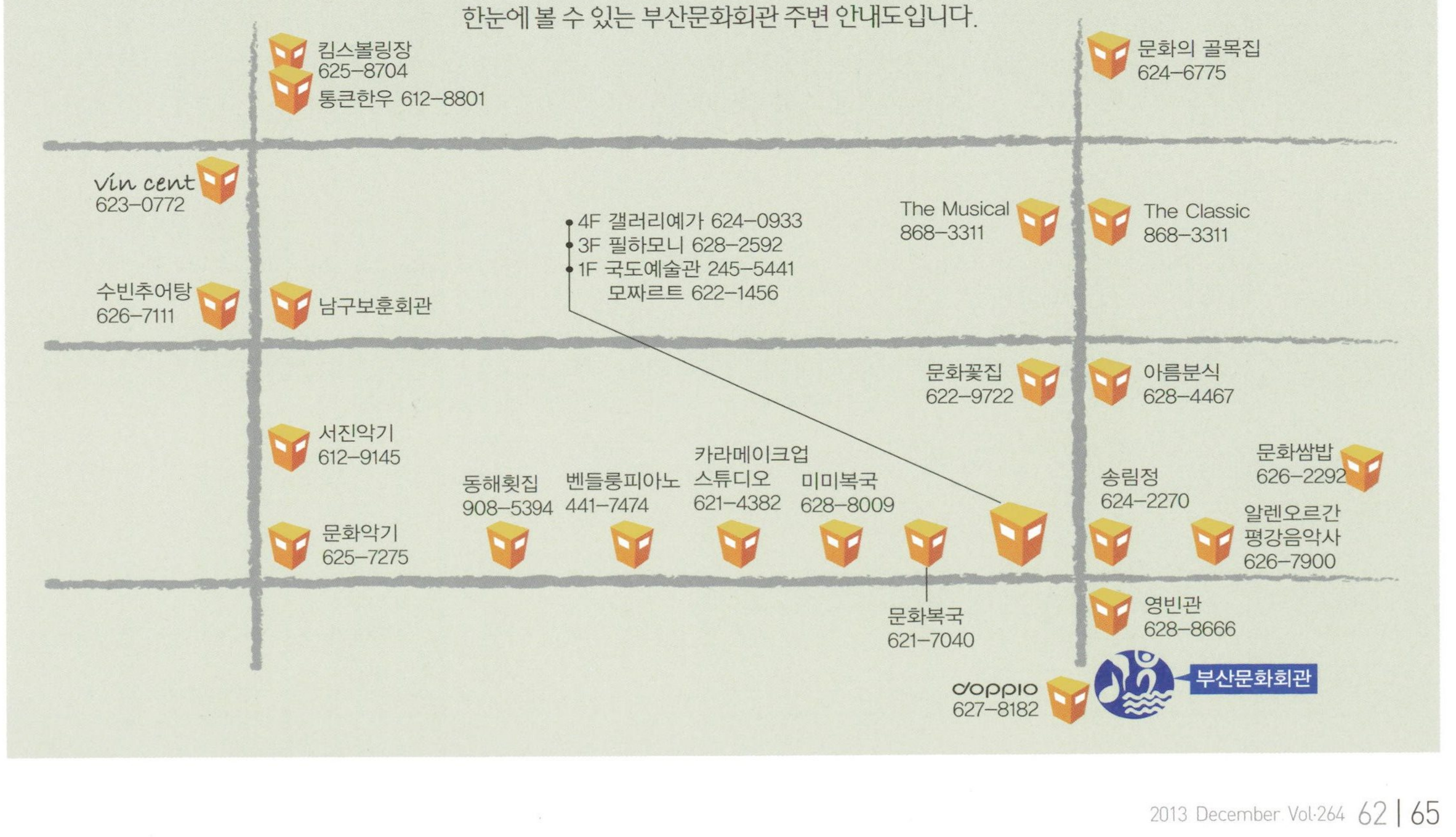
○ 신청기간 : 2013년 12월 16일(월)~2014년 1월 7일(화) ▷ 15일간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수강료 입금
→ 입금 확인 후 신청 완료
▷ 전화 051-607-3111~3, 팩스 051-607-3119
전자메일 busanphil_1@naver.com

3. 수 강 료 : 1인 50,000원

4. 강습세부일정

일자	강의 내용	장소
1. 8	개강식 ► 피가로의 결혼 _ 사랑은 용서를 싣고	소극장
1.15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_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미쳐버린 여인	국제회의장
1.29	오텔로 _ 질투로 파멸해 가는 인간의 절망	〃
2. 5	트리스탄과 이졸데 _ 사랑은 죽음으로 완성된다	〃
2.12	카르멘 _ 갈등과 유혹, 그리고 자유 의지	〃
2.19	호프만의 이야기 _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2.26	투란도트 _ 진정한 사랑의 깨달음	〃
3. 5	살로메 _ 등만 바라보는 사랑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 수료식	〃

공연시간에 쫓겨 힘드신 적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청렴 韓 부산

2013년 12월 공연일정

12 2013 December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단장 박강우(010-2553-0737)	2 UKO(United Korean Orches) 난치병어린이를 위한 제31회 사랑 나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UKO(626-8084, 010-5540-1538) 부산YWCA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여진경(010-5628-8232)	3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제35회 합창정기연주회 '오라토리오의 향연' 19:30 초대/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990-2231, 010-6550-6201) 부산시립무용단 2013 풍류 8기-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4 세계의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Concerto Festival II' 몰도바 국립 방송교향악단 부산연주회 19:30 균일 2만원/프로아트(02-585-2934~6)	5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설립 30주년 기념 공연 19:00 무료/부산대학교 무용학과(517-0906)	6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설립 30주년 기념 공연 19:00 무료/부산대학교 무용학과(517-0906) 젊은 국악 프로젝트 '아! 부산이여' 19:30 1만원-5천원/창작국악단 젊은풍류(010-6708-8388)	7 2013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15:00, 19:00 6만원-5만원-4만원/오늘커뮤니케이션(1599-8879) 인코리안아카데믹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인코리안 아카데믹오케스트라(010-4842-6688)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8세 이상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8 2013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14:00, 18:00 6만원-5만원-4만원/(주)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세계의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Concerto Festival II' 몰도바 국립 방송교향악단 부산연주회 19:30 균일 2만원/프로아트(02-585-2934)	9	10 소프라노 윤지영 독창회 19:30 균일 2만원/윤지영(010-5165-3744) 극단 하늘개인날 '미운 남자' 19:30 균일 3만원/극단 하늘개인날(010-9495-4730)	11 2013 부산문화 송년콘서트 그리움을 아는자만이 19:30 7만 7천원-6만 6천원-5만 5천원-4만 4천원 부산문화(1600-1803) 극단 하늘개인날 '미운 남자' 19:30 균일 3만원/극단 하늘개인날(010-9495-4730)	12 2013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베토벤 심포니 No. 9 '합창'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1152회 MBC목요음악회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첫번째 정기연주회 19:30 1만원-5천원/부산Bravo아버지합창단(010-3954-0362) 극단 하늘개인날 '미운 남자' 19:30 균일 3만원/극단 하늘개인날(010-9495-4730)	13 2013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베토벤 심포니 No. 9 '합창'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노엘합창단 제3회 한국청소년합창축제 우리반이 최고야 19:00 무료/노엘합창단(623-3331, 010-4183-2293)	14 CTS부산방송 개국 8주년 기념 성탄음악회 17:00 균일 2만원/CTS부산방송(784-9988) U.K.Y.O 제8회 정기연주회 17:00 균일 5천원/U.K.Y.O(010-5540-1538) 토요상설무대-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16:00 무료(8세 이상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15 2013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부산공연 19:30 7만 7천원-6만 6천원-5만 5천원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박현정 클래스 연주회 17:00 초대/박현정(010-3861-8494)	16 춤패 배김새 제 22회 정기공연 대마도 조선통신사 교류 20주년 '물길' 19:30 균일 2만원/춤패 배김새(010-2445-9839)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제18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클라리넷콰르텟(010-7543-0883)	17 부산시립무용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1:00 2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8 부산시립무용단 장애인을 위한 송년공연 10:3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 합동발표회 19:00 무료/부산여성문화회관(320-8334)	19 2013 부산솔리스트앙상블 19:30 균일 3만원/부산일보사(461-4436)	2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 제10회 글로리콰이어 가족음악회 19:30 초대/글로리콰이어(010-8544-4702)	21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40주년 기념 및 제140회 정기연주회 'Happy Christmas' 17:00 균일 1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61~2)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격정천리'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부산멜로스 오케스트라 첼로앙상블 연주회 17:00 초대/부산멜로스오케스트라(010-6432-0821)
22 국제신문 송년특별음악회 '오늘 같은 밤' 17:0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국제신문(500-5222)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격정천리' 15: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3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격정천리'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3 7080콘서트' 20:00 5만원-4만원-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격정천리'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5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격정천리' 15: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6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3 송년음악회 '호두까기 인형'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1~3)	27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함께하는 아지무스 오페라단 송년음악회 '겨울연가' 19:30 8만원-5만원-3만원-2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338-4649) 김명수 가야금 독주회 '현's tory 세번째 이야기' 19:30 균일 1만원/김명수(010-3130-1353)	28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울댓 베르디, 울댓 오페라' 갈라 공연 19:30 12만원-7만원-4만원-2만원 그랜드 오페라단(853-2341) 토요상설무대-뮤직팩토리 라라 16:00 무료(8세 이상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29 소프라노 박현정 귀국 독창회 19:00 초대/박현정(010-6735-1366) 피터 베이츠 내한공연 18:00 7만원-6만원-5만원 한국-네덜란드음악교류협회(010-3016-5118)	30 정명훈과 친구들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영앤잎섬(02-720-3933)	31 부산문화회관 '2013 제야음악회' 22:30 3만원-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전시실**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작품 전시회-대, 중전시실 11월 26일(화)-12월 1일(일) 부산대학교 미술학과(010-5041-0893) 제31회 대한민국 미술대상전-대, 중전시실 12월 5일(목)-12월 8일(일) (사)한국현대미술협회(644-0005) 제16회 대한서화예술대전-대, 중전시실 12월 14일(토)-12월 16일(월) (사)대한서화예술협회(010-6654-2450)	제9회 부경서도대전-대, 중전시실 12월 21일(토)-12월 24일(화) (사)한국서도협회 부산경남지회(010-8501-8181) 제74회 부산일요화가회 회원전-대전시실 12월 28일(토)-12월 30일(월) 부산일요화가회(010-3724-4730) 한미동맹 60주년 미술대전 12월 18일(수)-12월 20일(금) 6·25전쟁 60주년기념 미술대전조직위원회(010-5600-7165)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December 2013 Program Guide

12 2013 December

Grand theater Medium theater Small theater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P.Y.O**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B.M.J.C**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The 8th Regular Concert of Busan Doctors Clarinet Ensemble 17:00 Free/B.D.C.E(010-2553-0737)	**2** The 31st of Regular Concert of U.K.O(United Korean Orches) 19:30 20,000/UKO(626-8084, 010-9663-4224) The 14th Regular Concert of Busan YWCA Choir 19:30 Invitation/Busan YWCA Choir(010-5628-8232) Jang Myungsoon(010-4618-1637)	**3** The 35th Regular Concert of Kosin University Choir 'Feast of Oratorio' 19:30 Invitation/Kosin Uni.(990-2231, 010-6550-6201) 2013 Pung Ryu 風流-The 8th Finding Our Dancing Characteristics with Citizen 19:30 3,000/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607-3131~2)	**4** Th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MOLDOVA-TELERADIO 19:30 20,000/Pro Art(02-585-2934)	**5** The 30th Anniversary Performance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Dance Dep. 19:00 Pusan National University(517-0906)	**6** The 30th Anniversary Performance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Dance Dep. 19:00 Pusan National University(517-0906) Young Traditional Music Project 'Busan is a song' 19:30 10,000/5,000 Young Traditional Music Project(010-6708-8388)	**7** 2013 Nonverbal Performance 'Nanta' 15:00, 19:00 60,000/50,000/40,000/Today Communication(1599-8879) The 18th Regular Concert of Incorean Academic Orchestra 18:00 Invitation/Incorean Academic Orchestra(010-4842-6688) Saturday Regular Stage-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8 2013 Nonverbal Performance 'Nanta' 14:00, 18:00 60,000/50,000/40,000/Today communication(1599-8879) Th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of MOLDOVA-TELERADIO 19:30 20,000/Pro Art(02-585-2934)	**9**	**10** Soprano Yun Jiyoung Recital 19:30 20,000/Yun Jiyoung(010-5165-3744) Drama 'The Ugly Men' 19:30 30,000/Kwak Jongpil(010-9495-4730)	**11** 2013 The Farewell Concert of Busan Culture 19:30 77,000/66,000/55,000/44,000/ Busan Culture(1600-1803) Drama 'The Ugly Men' 19:30 30,000/Kwak Jongpil(010-9495-4730)	**12** The Farewell Concert of Busan Cultural Center-Beethoven Symphony No. 9 'Choral' 19:30 20,000/15,000/10,000/5,000/B.P.O(607-3111~3) The 1152nd MBC Thursday Concert '1st Concert of Bravo Father Choir' 19:30 10,000/5,000/Busan Brave Choir(010-3954-0362) Drama 'The Ugly Men' 19:30 30,000/Kwak Jongpil(010-9495-4730)	**13** The Farewell Concert of Busan Cultural Center-Beethoven Symphony No. 9 'Choral' 19:30 20,000/15,000/10,000/5,000/B.P.O(607-3111~3) Noel Choir 'Youth Choral Festival' 19:30 Free/Noel Choir(623-3331, 010-4183-2293)	**14** CTS Countries Anniversary of the Open Concert 17:00 20,000/CTS(784-9988) The 8th Regular Concert of UKYO(United Korean Youth Orchestra) 17:00 5,000/UKYO(010-5540-1538) Saturday Regular Stage-Traditional Music Association of Korea, Busan Branch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15 2013 Les Petits Chanteurs a La Croix de Bois in Busan 19:30 77,000/66,000/55,000/SPA(1599-7448) Park Hyunjeong's Class Concert 17:00 Invitation/Park Hyunjeong(010-3861-8494)	**16** Dance Group Bae-Guim-Sae 'Visit the 20th Anniversary concert of Tsushima' 19:30 20,000/Dance Group Bae-Guim-Sae(010-2445-9839) The 18th Regular Concert of Busan Clarinet Quartet 19:30 10,000/Busan Clarinet Quartet(010-7543-0883)	**17**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Speical Performance for Teenager 11:00 20,000/B.M.D.C(607-6042,607-3131~2)	**18**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farewell Performance for handicapped 10:30 Free/B.M.D.C(607-6042,607-3131~2)	**19** 2013 Busan Solist Ensemble 19:30 30,000/Busan Daily News(461-4436)	**20** The Farewel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19:30 10,000/7,000/5,000/B.M.T.O(607-3121~2) The 10th Family Concert of Glory Choir 19:30 Invitation/Glory Choir(010-8544-4702)	**21** The 140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Boys and Girls Chorus 'Happy Christmas' 17:00 1,000/B.M.B.G.C(607-3161~2)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er 15:00 10,000/B.M.T(607-3151) Busan Melrose Orchestra Cello Ensemble 17:00 Invitation/B.M.O(010-6432-0821)
22 The Farewell Concert 'Today the Same Night' 17:00 Invitation/Kookje Company(500-5222)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er 15:00 10,000/B.M.T(607-3151) Busan Melrose Cello Ensemble 18:00 Invitation/Melrose Cello Ensemble(010-6432-0821)	**23**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er 19:30 10,000/B.M.T(607-3151)	**24** 2013 7080 Concert 20:00 50,000/30,000/20,000/B.C.C(607-6057)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er 19:30 10,000/B.M.T(607-3151)	**25**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er 15:00 10,000/B.M.T(607-3151)	**26** 2013 Farewel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The Nutcracker' 19:30 2,000/B.P.Y.O(607-3111~3)	**27** 2013 Farewell Concert of Ajimus Oprea Company 'Winter Sonata' 19:30 80,000/50,000/30,000/20,000 Ajimus Oprea Company(338-4649) Kim Myungsoo Gayageum Recital 19:30 10,000/Kim Myungsoo(010-3130-1353)	**28** 'All That Verdi, All That Opera' Gala Concert 19:30 120,000/70,000/40,000/20,000/Grand Opera(853-2341) Saturday Regular Stage-Music Factory Lar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29 Soprano Park Hyunjeong Recital 19:00 Invitation/Park Hyunjeong(010-6735-1366) Peter Beets Recital 18:00 70,000/60,000/50,000/ Music Wise(070-7794-5118, 010-3016-5118)	**30** Myung-Whun Chung & Friends 19:30 Invitation/Young & Ipsum Inc.(02-720-3933)	**31** Busan Culture Center New Year's Eve Concert 22:30 30,000/20,000/10,000/B.P.O(607-3111~3), B.C.C(607-6057)				

Discounted tickets available for annual members. •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 Please visit our website at http://culture.busan.go.kr for more information. • For invitation, please call the organizer.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12월 7일 부산시립무용단

▶프로그램

동래학춤(출연/황동하)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학이 고고하고 우아한 자태로 여유롭게 노니는 형상을 모방한 춤사위.

장고춤(출연/김도은, 김시현) 아름다운 장고 가락을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시켜 흥을 돋우며 음악과 어울려 가볍게 움직이는 춤.

선비춤(출연/류권홍) 조선시대 선비정신을 가미하여 학문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남성의 멋과 품격을 나타낸 춤.

진도북춤(출연/김주령, 윤은하, 이현주, 전혜련) 북춤과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장단과 흐름이 흥에 겨우며 생동감이 넘치는 춤.

설장고(출연/김윤호, 권봉정, 안주희, 이나겸, 이상민, 박은혜, 박미나)

소고춤(출연/김공주, 허태성) 장고잽이 중 기예가 가장 뛰어난 이가 장고를 치면서 여러가지 춤사위나 자기만의 독특한 버슴새들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설장고 가락과 맵시 있게 어우러지는 춤.

· 안무, 구성/홍경희(예술감독)

12월 14일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우리가락 우리마당

▶프로그램

박종선류 산조-아쟁 · 거문고 병주(아쟁/박일 · 거문고/오상훈 · 장구/김영애)

가야금 병창 –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창/강명옥 · 장구/김영애)

전통무용 '입춤' (춤/신치련)

남도민요 '남원산성,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창/김정애, 강순자, 조정례)

25현 · 18현 가야금 이중주 '아리랑,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연주곡' (25현 가야금/오은영, 18현 가야금/배민성)

경기민요 '금강산타령, 노랫가락, 창부타령, 궁초댕기' (대금/송재윤 · 창/김정회, 임희진)

12월 28일 뮤직팩토리 라라 '겨울동화'

▶프로그램

Joambo

영화음악/러브 액츄얼리, 로미오와 줄리엣, 티파니에서 아침을, 오브 더 레인보우, 에델바이스 등

우리민요/군밤타령, 몽금포 타령 등 수곡

· 편곡/정주아

· 연주/정주아(피리), 하정희(타악), 곽은진(판소리), 조미리(대금), 박현정(가야금), 김원지(해금), 김명희(거문고), 김청현(하모니카), 연제초등학교 새싹중창단, 서보경(영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대가야의 문화가 살아 있는 고령

2014년 1월 10일(금)

곳곳에 대가야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 고령으로 떠나는 역사기행. 대가야박물관을 시작으로 대가야왕릉 전시관, 우륵박물관, 점필재 선생의 정신이 살아있는 개실마을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10:00 대가야박물관, 대가야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답사
12:30 개실마을 도착, 중식
13:30 개실마을 탐방 및 전통체험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6:30 부산으로 출발

나를 찾아 떠나는 합천

2014년 2월 14일(금)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합천 해인사와 새롭게 단장된 대장경문화축전 주제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를 둘러보며 우리의 뛰어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새봄을 준비하는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및 출발
10:00 해인사 도착, 해인사 탐방
11:30 중식
13:00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람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6:00 부산으로 출발

2014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culture.busan.go.kr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December Vol·264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12.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64호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12.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64호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센텀점
TODAI Restaurant
20% Discount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가스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Newtop Dental Clinic
해운대뉴탑치과

20% Discount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드립니다

20% Discount
넌센스 로맨틱 코믹극
도둑과 연인

송림정
Tel. 051-624-2270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5% 할인

20% Discount
콘서트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토다이 센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2-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 뉴탑치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부산 해운대구 우동 602-5
051)744-280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드립니다'

2013.12.3(화)-2014.1.5(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4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6시(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5천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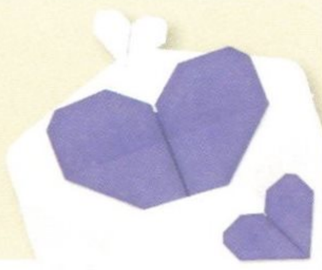
넌센스 로맨틱 코믹극 '도둑과 연인'

2013.12.3(화)-2014.2.23(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5시(월요일, 1/30~1/31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공간소극장(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4년 1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 자 의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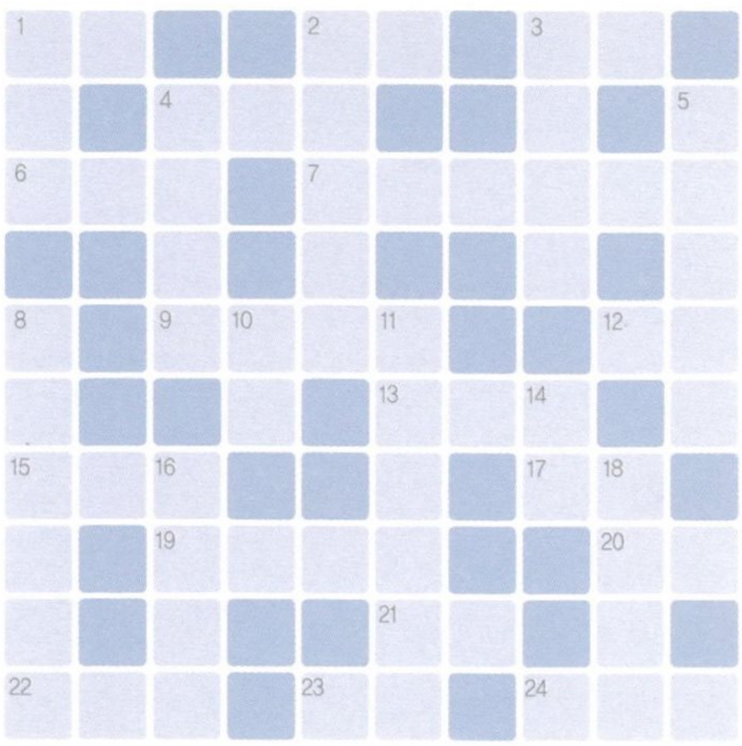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 퍼즐정답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NO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YES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40th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since 1973

창단40주년 기념 및 제140회 정기연주회

지휘 전 상 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Happy Christmas'

OB합창지휘 배정행

반주 이영옥

OB합창반주 최윤희

특별출연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지휘 김철수

반주 고지혜

특별출연 북구소년소녀합창단

Merry Chrismas in Love -박지훈 곡 · Merry Christmas in Love · 징글벨 ·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사랑의 밤 · 썰매타기 · Merry Christmas in Love

특별출연 -북구소년소녀합창단 지휘 김철수 ·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 진달래꽃 · 아 노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 The saint Hallelujah · Amazing grace · Glory luck away

-부산시립소년소녀OB합창단 지휘 배정행, 반주 최윤희 · 오륙도 · 마음이 이슬처럼 · 유랑의 무리 · 새야 새야 파랑새야

흥부와 놀부 -박수경 편 · 흥부와 놀부 · 신세 한탄 · 흥부 박타령 · 놀부 랩소디 · 놀부 박타령 · 놀부의 뉘우침

기획담당 최형태 | 안무지도 노금선 | 합창지도 김양자

2013. 12. 21(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지휘 김 철 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2013. 12. 20 FRI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정보_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 우리비나리
- 일파가야금 합주단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민요와 캐럴
- 김혜란 명창의 흥겨운 민요 한마당
- 국악관현악을 위한 타악 협주곡 "회오리"

주 최_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 관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후 원_ 내일신문

공연문의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 607-3123 /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셔틀버스운행(무료) ·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비발디 **사계**(四季)의 **첫 감동**으로
새해를 맞이하다!

이 무지치 MUSICI

신년 음악회

CORELLI
Concerto Grosso op.6 n.2 in F Maj.
Concerto Grosso op.6 n.4 in D Maj.

VIVALDI
Concerto in d min. op.3 n.11, RV 565, for two violins and cello, strings and continuo
Concerto in C min. RV 119, for strings and continuo, from "L'Estro Armonico"
"The Four Seasons", from "The Contest of Harmony and Invention"

* 프로그램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 **1.16**(목).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 주관. 부산문화회관

티켓. R_6만원, S_5만원, A_4만원, B_3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ticketlink 1588-7890 / BS 부산은행 전지점

공연문의.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607.3100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607.6057